
호 스님(동국대 불교대학장)
성 끄집어 내는 방법…
우회법과 直入
6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59년 단기 4348년(음력 4월 11일) · 주간

제1046호 2015년 5월 28일 목요일



금주의 법구-〈잡아함경〉

육신이 있기 때문에 얽매인다.
얽매임으로 근심과 걱정이 생긴다.
얽매이지 않아야 평정심을 찾는다.

거리 연등, 이제는 '친환경 시대'

서울 사찰·거리 LED연등 1만개 이상 증가 '눈길'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서울시내 사찰과 주요 거리에 설치된 연등 가운데 LED조명을 활용한 연등이 올해 들어 1만개 이상 대폭 증가했으며, 그중엔 햇빛으로 전기를 자체 생산하는 태양광 연등도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광화문과 청계천 주변, 인사동, 삼청동, 북촌 등에 설치된 연등 4,000여개를 에너지 효율이 낮은 백열등에서 친환경 고효율 LED 전구로 교체하고, 사찰마다 태양광발전을 통해 불 밝히는 태양광 연등도 5550개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조계종과 태고종은 서울시는 지난해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원전 하나줄이기 사업을 위해 함께 노력해 왔다.

주요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의 개최를 지원하는 서울시는 광화문에서 남대문까지, 그리고 인사동에서 삼청공원까지 거리의 총 8000여개 연등 중 절반인 4000여개 연등을 기존 백열전구(10W)에서 LED등(3W)으로 올해 교체한 것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LED기업과 불교계의 만남을 주선해 야외에 설치하는 연등에 10W 백열전구 대신 사

인사동 등 4000개 거리 연등
백열등에서 LED로 전면 교체
요금 걱정없는 태양광 연등도
도심 사찰에 증가 추세

용할 수 있는 LED 전구가 개발·채택되도록 제안했는데, 이번에 3W LED 전구로 교체가 이뤄지게 됨으로써 전력소비를 70% 줄이는 성과를 가져왔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총동창회와 함께 지난 12일부터 청계천에서 진행 중인 '전통 등 전시회'에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LED 조명의 다양한 장점을 적극 알리고 있다.

LED 전구는 벌레가 좋아하는 자외선을 발산하지 않아 청결한 환경이 유지되고, 발열량이 적어 조명 아래 진열된 상품의 신선도를 장시간 지켜준다. 수은을 쓰지 않아 인체에 해가 없으며, CO2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킨 친환경 조명이다.

반면, 백열전구는 소비하는 전력의 95%를 열로 만들고 단지 5%만 빛을 내는 데 쓰는 비효율적인 조명이며, 더운 여름철엔 주위 온도를 올리는 난로 역할을 해 냉방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게 한다.

또한, 백열전구는 사용시간이 약 1,000시간임에 비해 LED 전구는 약 25,000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해 수명이 최대 25배까지 길다.

전기요금 걱정 없는 '햇빛발전 LED 연등'도 확산되고 있다. 동국대학교 내 정각원, 강서구 화곡동 보광사, 종로구 평창동 삼각사 등에는 설치한 총 5550개의 태양광 LED 연등은 햇빛 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기로 불빛을 밝히고 있다.

태양광 LED 연등은 낮에 햇빛으로 생산한 전기를 저장하는 축전지와 조도센서가 장착돼 있어 밤에는 자동으로 켜지고 주변이 밝아지면 저절로 꺼진다.

사찰 내에 모든 연등을 태양광 LED 연등으로 바꾼 종로구 평창동 삼각사 주지 성해 스님은 "전원공급을 위한 수십미터의 전선을 연결하던 기존 연등과 비교하여 태양광 연등은 따로 전원을 공급하지 않아도 되어 설치와 관리가 한결 편하다"며 "1년밖에 사용하지 못하던 기존 백열전구와 달리 4~5년을 사용할 수 있어 태양광 LED 연등이 훨씬 경제적인 데다 햇빛으로 충전된 LED조명의 불빛이 밝고 선명하여 아름답다"고 말했다.

정희정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불교계와 협력하여 매년 많은 전력을 사용하는 연등을 친환경 고효율 LED 전구로 교체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모든 연등 및 사찰 내 조명을 LED로 바꿀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법계위원회(위원장 고산)가 5월 19일 조계사에서 개최한 제1급 법계 품서식에서 스님들이 가사를 정대하며 불교중흥을 서원하고 있다.

"불조 혜명 이어 종단발전에 앞장 설 것"

조계종 1급 법계 품서식 개최…종덕·현덕 54명 품서

조계종 1급 법계인 종덕·현덕 법계에 대한 품서식이 봉행됐다. 조계종 법계위원회(위원장 고산)는 5월 19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종덕·현덕 법계 품서식을 열고 비구 스님 28명, 비구니 스님 26명 등 총 54명의 스님들에게 법계를 전했다. 이날 법계를 품서받은 스님들은 지난 4월 조계종 최초로 열린 1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스님들이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이날 법어를 통해 "수행자가 본분사에 충실할 때 중생의 귀감이 되고 만인을 바른길로 인도 할 수 있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자비원력으로 중생구제를 발원해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종덕과 현덕법계는 종단 핵심이자 지도자 자격을 갖추었음을 나타내는 법계"라며 "수행과 정진, 그리고 전법교화를 통해 한국불교 중흥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법계 품서식에서는 스님들을 대표해 중앙승가대 교학국장 선응 스님과 총무원 재무국장 우하 스님이 법계증을 받았다. 이어 교학국장 선응 스님을 대표로 전법도생과 불교중흥, 종단발전을 서원하는 발원문 낭독이 이어졌다.

한편, 이번에 법계를 품서받은 스님들은 자필유언장 등을 통해 사후 재산의 종단 출연 등을 약속했다. 법계는 스님들의 수행력과 종단 지도력의 상징이자 종단 위계서열의 기본으로 종덕과 현덕 법계는 교구본사 주지를 맡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글·사진= 노덕현 기자

수좌 스님 80%, "노후걱정에 수행 장애"

선원수좌복지회 '수좌 스님 수행과 복지' 세미나서

노후대비 스님 25% 불과
대비미흡 62%가 재원부족

선원 수좌스님들 대부분이 노후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노후대비를 하는 스님들은 25%에 불과해 종단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원수좌복지회(대표이사 의정)가 5월 6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수좌스님들의 삶과 수행, 그리고 복지체계'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박수호 덕성여대 지식문화연구소 연구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선원수좌복지회가 2014년 7월 하안거 결제대중 85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사자 대부분(96.1%)이 노후대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나 노후대비를 하고 있는 응답자는 24.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노후대비가 미흡한 이유로는 재원부족이 61.9%로 꼽혔다. 이러한 노후걱정이 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밝힌 스님들도 79.9%에 달했다.

수좌 스님들이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복지서비스는 의료비지원(59.6%)과 원로 수좌 스님의 주거안정(35.7%) 해제 시 거처(32.3%)로 나타났다. 몸이 아프거나 정주할 곳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 복지에 대한 요구는 연령대 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수좌 스님 중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스님들은 29.6%에 불과했다. 와병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의료비 조달(49.0%)로 꼽혔다. 의료비 부담 등으로 증상이 심할 때만 병원을 이용한다는 응답자가 57.7%에 민간요법을 활용하거나(14.7%), 치료조차 하지 않고 견디는 스님도 9.2%에 달했다.

박 교수는 "최저생계비를 밑도는 현재 소득 수준으로 수좌 스님들이 개인적으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이라며 "의료기관과 협력해 일반인과 분리된 스님들만의 치료공간을 확보하거나 암, 중대질환 치료를 위한 보장방안을 민간보험사와 공동으로 강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거복지에 대해서는 "사찰 경내 혹은 인근에 수행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노후 거처의 확보에 대한 요구가 높다. 비구 스님과 비구니 스님이 선호하는 주거형태가 다른 만큼 질병치료 시 거처하게 될 요양처에 대한 수요도 고려해 다양한 형태의 노후 거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참불선원장 각산 스님의 '해외승가 수행공동체 체험',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의 '수좌형 출가자의 삶과 사회보장형 수행지원 체계' 등이 발표됐다. 노덕현 기자

韓日불교, 청소년 교류 방한 논한다

한일불교교류대회 6월 8~10일 용주사 일원서

한일 관계가 경색 국면인 가운데 양국 불교계가 청소년 교류를 통한 유대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자승)와 일한불교교류협의회(회장 후지타 류조)는 오는 6월 8일부터 10일까지 2박 3일간 화성 용주사 일원에서 '한일불교문화교류 제36차 대회'를 개최한다.

'한일 청소년 문화 교류를 통한 유대 강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양국 불교계를 대표하는 지도자 200여 명이 참석한다.

6월 8일에는 수원 노보텔 엠버서더 호텔에서 환영만찬이 진행되며 본행사인 평화기원법요식과 학술대회는 6월 9일 열린다. 학술대회에서는 한국 측 발제자로 김응철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가, 코야마 텐유 대정대학 불교학부 교수가 일본 측 발제자로 각각 나선다. 발표 이후 양국 불교계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해 발표할 예정이다.

대회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일본의 과거사 참회가 담긴 30주년 기념비(여주 신륵사 조성) '인류화합공생기원비'를 참배하게 된다. 또한 진각종 통리원을 방문해 한국 밀교의 현황을 살펴보게 된다.

한편,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는 1977년 1차 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주제를 채택해 국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며, 양국 불교도들의 교류와 우호를 증대하는 평화기원법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신성민 기자

사 령

명)편집국 취재부 기자 **박 아 름**

2015년 5월 26일 부

이상 1명

BORYEON
전화 031)526-2201

佛紀 2559年 乙未年 Buddha's birthday 평화로운 마음 향기로운 세상

불자기업 보련기획에서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귀의 삼보하옵고

보련기획을 이용해주신 스님 및 불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회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련기획 임직원 일동

실천적 승가모임 '향수해' 결성
첫 행보는 네팔 지진 피해 구호

6월 1일 네팔로 출국

지진 피해로 엄청난 어려움에 겪고 있는 불자들의 고향 네팔을 돕기 위해 '향수해' 스님들이 두 팔을 걷어 붙였다.

향수해(香水海)는 수미산을 둘러싸고 있다는 향수로 된 바다를 의미하는 뜻으로 부처님의 가르침 실천해 한국불교의 희망이 되고, 세상을 향기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한 모임이다.

이 모임은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공사'에 동참했던 스님들이 주축이 돼 실천적인 대중 불교 운동을 펼치기 위해 30여 명의 스님들이 모였다.

아직 정식 출범을 하지는 않았지만 자신들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재난을 당한 네팔 국민을 위해 회원 스님들은 십시일반 성금을 모금하고 직접 지진 피해 현장을 방문해 구호활동을 할 계획이다. 이미 5월 21일 조계종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향수해' 대표인 마가 스님은 지진 피해로 부터 정신적 고통을 받는 네팔인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갖고 희망을 심어줄 예정이며, 짜장으로 자비행을 실천하는 운천 스님은 밥을 제공해 배고픔으로 부터 구원의 손길을 펼칠 계획이다. 네팔인의 어머니 진주의사 권현옥 씨도 이번 봉사활동에 참가해 향수해 스님들을 도와 구호 활동에 동참한다.

1차 봉사는 마하이주민센터 진오 스님과 함께 복구 현장에서 활동할 계획이고, 2차는 학교 재건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향수회 회원들은 6월 1일 10여 명이 지진피해 복구 지원 활동을 펼치기 위해 네팔로 향한다.

향수해 사무총장 거제도 금강사 성원 스님은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준 회원스님들께 감사 드리며, 앞으로 2차 3차 자원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황교안 총리 내정자 종교편향 이력 논란

朴 대통령, 21일 지명… "목사 과세 부당" 물의 빚어

신학대 출신 개신교계 법조인
94년개혁 스님 사법처리 지휘



법무부 장관 임명 당시부터 종교편향 논란에 휩싸였던 황교안 장관<사진>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되면서 불교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5월 21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국무총리 내정자로 지명했다. 검사 시절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활약했던 이력이 가장 큰 걸림돌이나, 그의 종교편향적 행보도 이에 못지 않다.

황 내정자의 종교편향적 시각이 잘 드러난 것은 그의 저서인 〈교화와 법 이야기〉이다. 그는 저서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해 특정종교에 치우친 시각을 드러냈다. 현재 정부는 개세주의 원칙에 따라 종교인 과세를 적극 추진 중이다.

황 내정자는 저서에서 "(법원은)담임목사 사택과 달리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등의 사택을 세금부과 대상으로 판결하고 있다"며 "(이 같은) 판결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법원의 결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반면 교회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는 "교회 건물 및 부지, 사택, 기도원 등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할 가능성이 있으나 다행히 현행법상 교회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기술했다.

비과세소득에 대해 규정한 소득세법 12조에 대해서는 "목회자 사례비는 일반 급여와 현저히 다르고 그 원천이 된 성도들의 헌금은 이미 성도들이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 아니라 종교자유 보장을 위해서라고 비과세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압권은 "세상법보다 교회법이 우선 적용돼야 한다"고 명시한 부분이다. 이는 법조인으로서 형평성을 잃어버린 기술이다. 실제 그는 '교회법'과 일반 사회의 '세상법' 간에 충돌이 일어날 경우, "우리 기독교인들로서는 세상법보다 교회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 것"이라며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크고 앞서시기 때문"이라고 했다.

황 내정자와 불교계와의 악연도 존재한다. 1994년 조계종 개혁 당시 스님들의 연행해 사법처리하는 과정을 진두지휘한 사람이 황 내정자다. 당시 황 내정자는 서울지검 공안2부 검사였다.

황 내정자는 사법고시 합격 후 연수기간 중에 신학교에 편입했고 졸업 후 양천구 목동 성일침례교회 전도사로 활동했다. 검사 시절에는 각 검찰청 신우회 설립을 위해 노력했으며 법조계 기독교모임인 애중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신성민 기자**

"낙단보 마애불서 종교활동 보장하라"

고운사, 16일 낙단보서 민족문화수호 결의대회



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운사는 5월 16일 낙단보 마애불 앞에서 '마애불 종교차별 불교탄압 규탄 민족문화수호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고운사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민족문화를 수호해 나갈 것이며, 본말사 주지 스님과 불자 등 사부대중은 힘을 합하여 종교차별과 불교탄압을 막아 낼 것이다. 반드시 낙단보 마애불을 수호해 나가겠다."

조계종 제16교구 고운사 본말사 사부대중이 5월 16일 낙단보 마애보살좌상 앞에서 '마애불 종교차별 불교탄압 규탄 민족문화수호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을 비롯해 말사 스님들과 신도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했다.

낙단보 마애보살좌상은 지난 2010년 10월 4대강 공사 낙동강 부근 낙단보에서 훼손된채로 발견됐다.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낙단보 현장을 방문 · 참배했고 문화재청은 10월 29일 마애불을 중요문화재(보물)로 가지정했다.

이후 경상북도는 2011년 낙단보 마애불을 유형문화재로 지정했으며, 주변은 정비사업을 통해 공원으로 조성됐다. 이후 관리부실로 인한 훼손 및 훼불의 문제가 제기되자 관할 교구본사인 고운사는 2014년 2월 성보의 관리와 보존을 위해 원종 스님을 마애사(임시법당) 주지로 임명했다.

그러나 2015년 수자원공사는 마애사 마애불 앞 연등과 불단 등 종교시설물 철거하라고 일방적으로 구두로 통보했다. 이에 원종 스님은 1월 22일 수자원공사의 종교 탄압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수자원공사를 성토했다. 하지만 기자회견 이후에도 수자원공사의 탄압은 계속돼 왔다는 게 고운사의 주장이다.

이날 대회에서 고운사 대중은 수자원공사의 일련 행보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본말사 사부대중 등 500명 동참
보존 · 참배로 등 약속 이행 요구
불이행시 국토부 항의방문 예고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은 "낙동강을 굽어보며 중생들의 염원을 듣고 지켜준 마애불 앞에서 법회를 갖는 것은 종교 차별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끝내고 민족문화수호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며 "수자원공사 직원이 관리라는 미명하에 연등과 불단 등을 철거하고 단전도 하겠다는 통보는 우리 불자들의 신앙심을 무참히 짓밟는 만행이며, 당초 국토부가 한 약속을 스스로 어기는 일로, 종단과 고운사 그리고 불자들을 기만하는 술수이다. 이것이 바로 종교차별이요 불교 탄압"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고운사 본말사 스님과 불자들은 국토부 · 문화재청이 당초 약속한 대로 마애불을 성역화하고 종단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일체의 종교차별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법회 참석 대중들은 결의문을 통해 마애불 앞에서의 자유로운 종교활동 허용을 주장했다.

대중들은 결의문에서 "다종교 한국사회에서 우리 불자들은 국민화합과 종교평화의 버팀목임을 자부해 왔다"면서 "하지만 국토부는 천년의미소 마애부처님을 훼손한것도 모자라 지금은 이곳 마애부처님앞에 종교 탄압을 일삼고 있다"고 힐난했다.

고운사 본말사 대중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종교탄압 재발방지 약속 △마애사 마애불앞 종교 집회 자유 보장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인 참배공간과 마애불 보존 대책을 조속히 이행할 것 △국토부 산하 수자원공사의 종교탄압 관련자 즉각 해임을 촉구했다. 이어 "정부 및 관계기관의 성의 있는 조치가 없을 경우 국토부 항의방문 등 범국민적으로 종교탄압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결의했다.

이날 법회는 마애불과 낙정, 낙단보 구간을 행진하며 "종교탄압 중단"과 "종교자유 보장" "종교탄압을 자행한 수자원공사 관련자들에 대한 해임" 등을 촉구하며 마무리됐다. **신성민 기자**

흥천사, 친환경 한옥 어린이집 개원한다

최적 보육환경… 6월 1일 개원
20일 자승 스님 방문해 격려도

서울 흥천사(주지 정관)에 산과 사찰이 어우러진 친환경 보육시설 '흥천어린이집'이 개원한다. 한옥 목조로 지어진 흥천어린이집은 주변 산림과 흥천사의 전각이 어우러졌다. 한옥 목조 양식의 어린이집은 전국에서도 드물다.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일환으로 흥천사 경내 부지 2,734㎡를 활용해 국비와 시비, 구비, 흥천사 자비 등 총 22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591.86㎡ 규모로, 내부는 한옥 전통 양식과 달리 자연채광을 활용한 현대식 시설을 갖춰 친환경적인 보육시설로 평가 받고 있다.

지하 1층은 조리실과 교사실, 교재실, 세탁실 등을 갖췄으며, 지상 1층은 원장실과 0~4세 보육실, 다목적 홀 등으로 꾸며졌다. 지상 2층은 5세 보육실, 다목적 홀 등이 마련됐다.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와 모든 층에 화장실을 설치했고, 작은 정원도 꾸며 최적의 어린이 보육시설을 갖췄다.



오는 6월 1일 개원을 앞둔 서울 흥천사의 흥천어린이집은 5월 25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총무원 부실장단을 초청해 시설을 공개했다. 사진제공= 조계종

지난 4월 준공과 동시에 원아를 모집한 흥천어린이집은 현재 0~3세반에 50명의 어린이들이 입원한 상태다. 내년부터는 4~5세반도 운영해 총 85명의 정원을 채울 예정이다. 원장을 비롯해 총 10명의 보육교사와 1명의 조리사 등이 어린이들을 보살피고 있다.

흥천어린이집은 오는 6월 1일 개원을 앞두고 5월 20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총무원 부 · 실장단을 초청해 시설과 운영현황을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자승 스님은 "흥천사와 숲이 함께 어우러져 친환경적이면서도 내부는 작은 곳까지도 아이들을 배려한 세심함이 돋보인다"며 "그동안 내가 본 어린이집 가운데 가장 잘 지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에 정념 스님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하나하나 직접 점검하며 최상의 어린이집을 갖추기 위해 정성을 들였다"며 "흥천어린이집이 종단을 대표하여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흥천사는 이날 공익기부법인 아름다운동행에 네팔지진 피해 돕기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신성민 기자**

'사찰토지처분금' 개정안 재추진

종회 재정분과위, 9차 회의서 결의

각 사찰의 토지처분금을 모아 종단 목적사업에 투입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사찰부동산관리법' 개정안이 재발의 된다.

조계종 중앙종회 재정분과위원회(위원장 주경)는 5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9차 회의를 열고 늦어도 11월 정기회까지 사찰부동산 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토지처분금을 총무원으로 모아 종단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찰부동산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15대 중앙종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본회의에서 일부 교구본사 출신 종회의원들의 반발에 밀려 부결됐다.

논의 끝에 재정분과위원회는 6월 임시회 이전 개정안에 대한 기본안을 마련하고 교구본사주지협의회와 공동으로 세미나 혹은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개정안을 확정하고 늦어도 11월 정기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신성민 기자**

佛紀 2559年 乙未年 Buddha's birthday 평화로운 마음 향기로운 세상

부산불교회관은 도심포교를 위해 계획 설계된 미래불교 도량입니다
(부산시청 옆) 정통교육도량
부산불교회관 여여선원
(부설-자선단체) 세상을 향기롭게
선원장 정여스님(前범어사 주지)
영 도 대 흥 사 주 지 정여스님
대연동 붓다선원 주 지 도경스님
삼랑진 여여정사 주 지 도명스님
김 해 여여정사 주 지 도명스님
해운대 여여선원 주 지 도우스님
사량도 관음낙가사 주 지 효원스님
울 산 여여선원 주 지 효암스님
여여선원 신도회 명예회장 김경환
신도회장 이향순
신도회, 총동문회, 복지회, 선림회, 명상회 십만배기도회, 여여산악회, 여여선원카페, 지장회, 관음회, 청년회, 청소년회, 어린이회, 기초교리반, 여여불교대학, 선불교대학원,
■여여선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연로 15, 7층(부산불교회관) TEL 051)853-5486~7, FAX 051)863-6422
■세상을 향기롭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연로 15, 6층 TEL 051)702-9944

학교법인 금정학원
이사장 오홍선
교 장 정진완
교 감 권장석
교 법 사 이석언
행정실장 김세경
교직원일동
금정반야불자회 서적조천회장 외 임원일동
■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2104 전화 051)517-3984 팩스 051)517-3982

부산여성불자회
총 재 혜 총
자문위원 천양자 백명숙 양은순
회 장 왕선자
장학회장 백영숙(광명심)
부 회 장 정정자 정순천 유영남
총 무 박정림 김선미
재 무 서정례 손하영
■ 부산 진구 중앙대로 913 (양정동, 불교회관 4층) 전화 051)817-3166, 3168

한국불교태고종
동래읍성 마안산 자비암
주 지 청암 자관
신도회장 황선호
사부대중일동
■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천로 5번가길 46 (명륜동) 전화 051)552-3320

대한불교조계종
소백산 비로사
주 지 성공
사부대중일동
■ 경북 영주시 풍기읍 삼가리 전화 054)638-5033

대한불교원효종
대 원 사
창건주 대원행
주 지 원 경
회 장 홍규환
총 무 김경희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오리 산 46 TEL 053)768-0887

아낌없이 주었던 원력… 당신이 그립습니다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18일 대행선사 3주기 다례재 봉행

문도 스님 등 3천여 대중 참석 육성 법문 들으며 가르침 되새겨

"상상할 수 없는 원력 불사 하신 선사의 유지, 계승 · 발전해야"



스님들이 묘공당 대행 선사의 〈뜻으로 푼 천수경〉을 합송하는 가운데 참석자들이 각령전에 절을 올리고 있다.

"몸뚱이로 볼 때는 죽는다 산다가 있다. 그러나 본래 나온 것도 없고 갈 곳도 없다. 그러니 우리 마음의 도리는 영원한 것이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가도 가는 게 아니고 와도 오는 게 아니다. 이 세상에는 '뗬다 가라앉았다, 가라앉았다 뗬다' 하는 것뿐이다. 가라앉았다 뗬다하는 작용과 굴레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한국 불교 포교사에 한 획을 그었던 묘공당 대행 스님의 생전 육성 법문이 울려 퍼졌다.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을 평생에 걸쳐 실천하신 스님의 법문이 더욱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순간이었다.

묘공당 대행 스님 3주기 추모 다례재가 5월 18일 한마음선원 안양 본원에서 엄수됐다. 다례재에는 조계종 포교부장 송묵 스님, 청암사 승가대학장 지형스님, 한마음선원 문도를 비롯해 국내외 25개 지원 문중 스님, 최대호 前 안양 시장 등 사부대중 3천여 명이 참석했다.

한마음선원 안양 본원 주지 혜원 스님과 (재)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 등은 헌다와 헌화, 헌향을 하며 대행선사 열반 3주기를 추모했으며, 본원과 각 지원 신도회장들도 각령전에 헌화하며 추모의 뜻을 더했다.

청암사 승가대학장 지형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한국불교 포교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선사의 업적을 찬탄하며 그 유지를 계승할 것을 문도와 대중에게 당부했다.

지형 스님은 "부처님께서는 깨달으시고 나서 승단이 구성된 후, 전법의 길을 펼치라는 전도 선언을 하셨다"면서 "선사께서는 한국 불교 포교사의 큰 획을 그으셨으며 무어라 단언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업적을 남기셨다"고 추모했다. 이어 "선사께서는 법과 지혜, 그리고 덕을 갖추고 교화와 포교를 하신 분"이라며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불사를 하셨다. 이제 우리 후학들은 선사의 업적과 유지를 계승 ·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주지 혜원 스님은 자신보다 신도와 제자를 생각했던 큰스님을 그리고 추모했다. 혜원 스님은 "스님께서는 평생 당신을 위해 살지 않으셨다. 스님은 무엇이라도 생기면 신도와 제자들을 먼저 살뜰히 챙기셨다"면서 "가르침을 따라 살다보니 불사도 원만하게 이루어졌다. 스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감사하다. 스님을 추모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가르침대로 살고 있는지, 제대로 실천해 가고 있는지 항상 자신을 돌아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스님의 생전 육성 법문을 시청한 후 선원의 도량탑을 재조명해 보는 영상을 통해 스님이 탑을 건립하게 한 배경과 모든 이들이 자신의 내면에 진정으로 귀의하여 각자 마음 속의 탑을 세워야 함을 일러주신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겨보았다. 이어 스님들이 대행 선사의 〈뜻으로 푼 금강경〉을 합송하는 가운데 모든 참석자들이 각령전에 삼배를 올리는 것으로써 다례재 의식을 마무리하였다.

김주일 · 신성민 기자



5월 16일 광화문 일대에서 법음이 울려퍼진 '광복 70주년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대회'의 하이라이트인 '세계 간화선 무차대회' 전경.

30만 대중, 불교 역량 확인 실천적 메시지 부족 '아쉬움'

'한반도 통일 세계평화 기원대회' 성과와 과제

불기2559년 연등회와 함께 진행된 '광복 70주년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대회-세계 간화선 무차대회'가 별다른 사고 없이 원만 회향됐다. 5월 15~17일까지 진행된 대회의 하이라이트는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세계 간화선 무차대회'였다. 이날 광장에는 종단을 넘어 전국에서 운집한 31만 명의 불자와 시민들로 가득 찼으며, 모두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의 법어를 경청했다.

무엇보다 한국불교 사상 최대 인원이 운집하는 만큼 무차대회의 초점은 '안전'에 맞춰졌다. 주요 본사 총무국장들이 사전에 상경해 이동 동선을 일일이 브리핑을 받고 현장을 답사했다. 당일에는 조계종 포교사단에서 파견된 3000여 명의 포교사들을 자원봉사로 배치해 질서 유지를 유지토록 했다. 주최 측의 노력으로 세계 간화선 무차대회는 무사고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

무사고 회향 '안전 대회' 의미 준비 짧아… 치밀한 계획 필요 법거량 없었던 간화선 무차대회

환영 만찬부터 해외 고승 인터뷰, 현충원 참배, 세계 종교인 평화 회의 등 해외 고승과 이웃종교인 220명이 일정에 차질없이 행사를 진행한 것도 한국불교계의 역량이 발전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사부대중 30만 명이 한곳에 모이는 법석이 펼쳐진 것은 한국불교 사상 처음 있는 일로 개최만으로도 의미가 분명하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적지 않다. 대회를 지켜본 사부대중은 큰 대회를 안전하게 치룬 것은 의미가 있지만 치밀한 진행은 이뤄지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조성택 고려대 철학과 교수는 "불교계가 광화문에서 대규모 법석을 연 것은 1600년 역사상 처음이지만 그 준비과정은 너무나 짧았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회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사회에 파급효과를 끼치기 위해서는 홍보를 비롯해 각종 세미나 등 사전 준비부터 캠페인과 같은 사후 활동까지 함께 가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간화선 무차대회는 대회 자체에만 치우친 느낌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규탁 한국선학회장(연세대 철학과 교수)은 "영어 번역 또한 학계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뤄졌으면 한다. 법문에 대한 영어번역을 접한 결과 아쉬움이 많았다"면서 "대회 진행이 보다 섬세하고 철저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 회장은 "대회 비용부분은 공식기관을 통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설령 스님들이 재원을 마련하더라도 신도들의 기부형식을 통해 총무원과 교구본사, 공식기관을 통해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한국불교 사상 최대 법석이지만 대회 메시지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담고 있지 않아 앞으로 한국불교가 무엇을 할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무차'의 형식을 빌었음에도 격외의 거량이 자유롭게 이뤄지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대회 참석자는 "이번 대회의 외향은 잘 갖추었다. 문제는 최대의 법석 안에서의 메시지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정말 소외받고 어려운 사람들을 모셔서 그들을 위한 법석으로 만들어야 했고, 인류평화 · 공동체 회복 · 사회갈등에 대한 불교적 실천론이 구체적으로 담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차대회는 워낙 많은 사람이 있어서 거량에 문제 있었지만 대표 한 두명에게 거량이나 의견 개진이 있도록 했어도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며 "이제 대회를 통해 한국불교의 현실을 잘 평가하고 내실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물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성민 기자

"종무원이 행복해야 사찰이 행복해요"

전등사, 15일 종무원 전용 숙소 '상락원' 개원

강화도 전등사(주지 범우)가 5월 15일 종무원들을 위한 전용 숙소를 개원했다.

전등사는 지난해 10월 사찰 인근의 여관으로 사용되던 건물을 인수, 4개월간의 리모델링을 거쳐 15일 종무원 숙소 '상락원'으로 개원했다. 각 방에 화장실과 거실을 갖추고 있으며 상락원은 1인 1실 기준으로 1층에 남자 숙소 6개, 2층에 여자 숙소 7개가 마련돼 있다.

숙소 이름을 '상락원'으로 지은 회주 장윤 스님은 "전등사 직원들을 위한 숙소였던 정행당이 선체험관으로 바뀐 후 경내 곳곳에 생활하던 직원들을 위해 새로운 숙소를 마련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전등사 직원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복지에 더 많은 고민을 해 타 사찰에 모범이 돼달라"고 당부했다.

주지 범우 스님은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여관을 인수하여 직원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했다"며 "상락원이란 이름처럼 늘 즐겁고 화합 하면서 지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강화도 전등사는 5월 15일 인근 여관 건물을 매입 · 개조해 종무원 숙소인 '상락원'을 개소했다.

'평화의 소녀상' 동국사에 건립된다

추진위, 8월 15일까지 모금 전개…日이치노헤 스님 등 동참

군산에서 위안부로 끌려가 삶이 짓밟힌 소녀를 평화의 상징으로 승화하기 위한 '평화의 소녀상'이 군산 동국사에 건립된다.

군산평화소녀상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이승우 · 김부영)는 5월 18일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 동국사에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평화의 소녀상은 현재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져 있으며 동국사 평화의 소녀상은 8월 15일 광복절에 맞춰 제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 조동종 운상사 주지 이치노헤 스님이 2014년 동국사에 세운 '참회와 사죄의 글' 비석 옆에 들어설 예정이다. 이치노헤 스님과 이번 평화의 소녀상 건립 취지에 공감한 일본인들은 약 1500여 만원을 건립비용으로 기부했다.

건립 비용은 모두 5000여 만원으로 추진위는 8월 14일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만원 이상 구좌 모음 운동을 전개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조계종 노동위, "노조했다고 인권 무시"

5월 20일, 포스코 비판 성명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가 5월 20일 성명을 통해 "포스코가 노동자의 죽음을 외면하지 말라"며 노조활동 보장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 앞서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EG테크 분회장이던 양우권 씨가 10일 무노조 방침에 자살했다.

조계종 노동위는 성명을 통해 "노동자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는 구시적이고 비민주적인 경영방침"이라며 "양분회장 앞에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노조활동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EG테크 노조지회는 2006년 12월 53명으로 노조 설립하였으나 2008년 포스코 및 EG테크 회유로 노조는 와해됐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기 2559년 부처님 오신날
'나누면 하나되는 세상'



대한불교 실상 산문종

실상선원 선원장 성환

천 축 사 정헌, 성우
용 암 사 지공
천 지 사 천공

대 중 일 동

실상선원 | 서울 성북구 성북동 93번지 ☎ 02)745-8503
천 축 사 | 대전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 041)734-2680
용 암 사 | 경북 청송군 현동면 월마리 산 49-3 ☎ 054)873-3607
천 지 사 | 전남 함평군 대동면 운교리 28번지 ☎ 061)322-1498

일 주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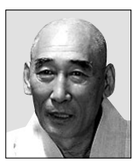
지구촌공생회 · 백천문화재단 협약

월주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스님은 5월 18일 지구촌공생회 서울사무국에서 백천문화재단과 캄보디아 룸첵도서관 건립 협약을 체결했다.



동국대 총장 취임 기념 네팔 돕기

보광 동국대 총장 스님은 5월 20일 신임총장 축하난을 판매한 금액과 학내 네팔 돕기 캠페인 모금액을 아름다운동행에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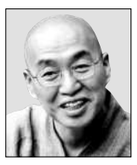
대승보살계 수계대법회

설운 순천 선암사 주지 스님은 대승보살계 수계 대법회 및 정대불사를 6월 20일 오전 10시 선암사 대웅전에서 봉행한다. (061)754-5247



애니어그램 입문 워크숍

응묵 남원 실상사 주지 스님은 5월 29~31일 인드라망대학에서 '9가지 점 또는 각을 내포한 그림' 인 애니어그램 입문 워크숍을 진행한다.



광복70주년 평화재단 세미나

법륜 평화재단 이사장 스님은 6월 18일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광북70주년 기념 한반도평화공동체 세미나를 개최한다.



제8기 염불자원봉사교육 모집

보경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스님은 6월 3일까지 제8기 염불자원봉사교육 연수생을 모집한다. (02)6334-2211



〈산사에 홀로 앉아〉 북콘서트

일운 울진 불영사 회주 스님은 6월 6일 오후 2시 〈산사에 홀로 앉아〉 북콘서트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진행한다.



한국불교사연구소 개소 10주년 세미나

고영섭 한국불교사연구소 소장은 5월 30일 재소 10주년 기념 제10차 집중세미나 '불교전래가 한국사회미친 영향' 을 개최한다.



동국대 경주캠, 임석대동제 개최

이계영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은 5월 20~22일 2015년 교내 축제인 임석대동제를 개최했다.



한국불교학회 춘계학술대회

권탄준 한국불교학회 회장은 6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퇴옹 성철의 불교전통 계승과 현대한국사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동국대 불교 교양강좌 높은 인기

명사강연, 템플스테이에 학생 몰려



템플스테이에서 염주꿰기를 진행하는 동국대 학생들의 모습이 진지하다.

동국대(총장 한태식) 교양강좌 '참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이 탄탄한 커리큘럼을 앞세워 인기를 끌고 있다. 의무 수강이 아닌 일반교양 강의임에도 이번 학기 4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수강하고 있다.

매주 화요일 오후 4시부터 120분 간 진행되는 '참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은 불교에서 견성(見性)에 이르는 과정을 열 단계로 간명하게 표현한 십우도(十牛圖, 동자승이 소를 찾아 나서는 것에 비유한 선 수행의 열 단계를 묘사한 그림)에 따른 강의와 템플스테이를 통한 사색적 삶의 부활을 통해 자기실현의 길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강의다.

참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에는 지성의 양식과 함께 치유의 힘을 제공할 멘토가 필요하다. 십우도에 맞춘 강의계획에 따라, 매주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멘토들이 학생들과 함께한다.

이번 학기에는 △이정현 국회의원의 '0프로도 100프로가 될 수 있다' , △철학자 강신주 박사의 '매달린 절벽에서 손을 뗄 수 있는가' , △조광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의 '지상에서 우주로' , △영화배우 최민수의 '내 삶의 리듬 36.5도' , △주철환 아주대 교수의 '더 좋은 날은 지금부터다' 등이 진행된다. 학생들은 특강을 들으며 멘토들로부터 타자와 소통하는 법, 배려와 나눔, 긍정의 힘 등을 배운다.

'십우도' 강의에 멘토 출연 '화제'

템플스테이 종교불문 400명 참여

이와 함께 동국대와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이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1박 2일 동안 인제 동국대 만해마을과 백담사 일대에서 템플스테이를 하며 자기성찰을 통한 마음경영, 활동적인 삶과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한 과정을 터득해 나간다. 학생들은 40명씩 10개조로 나뉘어 5월 한 달간 매주 2개조 씩 템플스테이를 체험한다. 지난 5월 2일 1차 템플스테이를 시작으로 5월 23일까지 4차에 걸쳐 8개조가 템플스테이 체험을 마쳤다. 남은 2개조는 30일 템플스테이를 체험할 예정이다.

템플스테이에 참가했던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다. 중국인 유학생 왕밍츠(국제통상학과) 양은 "아침에 일어나 108배를 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지만, 이상하게 할수록 마음이 편안해졌다"며 "좋아하는 고기도, 휴대전화도 없었지만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서 긍정적으로 변해가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지선 스님, 네팔 돕기 1천만원 기부

5월 21일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에 전달

백양사 방장 지선 스님은 광주 문빈정사 주지 법선 스님을 통해 5월 21일 아름다운동행 측에 네팔지진 구호기금으로 1000만원을 기부했다.

법선 스님은 "지진 나기 한 달 전 지선 스님이 현재 피해를 심각하게 입은 박타푸르 등의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어, 이번 지진 피해에 더욱 마음아파 하셨다"며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어 기금을 마련하게 됐다. 부처님이 태어나신 나라가 지진으로 인해 피해입은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 문빈정사 주지 법선 스님(사진 오른쪽)이 5월 21일 아름다운동행에 지선 스님의 기부금 1천만원을 전달하고 있다.

"현실감 있는 연출… 본방 기대된다"

BTN, 20일 드라마 붓다 VIP 시사회

BTN 불교 TV(대표이사 구본일)는 부처님 일대기를 55부작 장편 드라마로 제작한 '붓다' 의 VIP 시사회가 개최됐다.

5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개최된 이날 시사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교육원장 현응스님을 비롯해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 구본일BTN불교TV 대표이사와 종무원, 신도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에서 처음 소개되는 드라마 '붓다' 는 실제 고증을 통한 세트 구성과 인도 특유의 연출 등이 눈길을 끌었다. 1회에 나타나는 부처님과 반목하는 데비닷다에 대한 복선과 왕궁 안에서의 시기 · 암투도 실감나게 구성됐다.

총 55부작으로 제작된 장편드라마 '드라마 붓다' 는 제작준비기간만 10년이 걸렸으며, 부처님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 연출, 세트, 의상, 컴퓨터그래픽 등 1,600억원의 제작비가 투입됐다. 또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편을 한국말로 더빙했다. 한편, '드라마 붓다' 의 첫 방송은 5월 25일 부처님오신날 밤 9시에 1, 2회를 연속 방송하며, 본방송은 매주 수, 목 밤 9시에 BTN을 통해 방송한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사진 왼쪽 세번째)과 종단스님들이 드라마 '붓다' 를 보고있다.

한일불교교류協, 무차만발공양



한일불교교류협의회 여성부(회장 백명숙)는 5월 17일 부산 광복로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제10회 무차만발공양' 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일불교교류협의회 이사장 도산 스님(태고종 총무원장), 사무총장 법등 통리 원장(총지종), 백명숙 회장 및 여성부 회원 20여명이 참여했다.

백명숙 회장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절에 가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사찰음식을 체험하고 나누기 위해 마련했다"며 "특히 올해 10회를 맞아 더욱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해 나누는 의미와 기쁨이 더 크다"고 전했다. **하성미 기자**

부산 로스쿨 불교동아리 템플스테이



동아대 로스쿨 불교동아리 '법등회' (회장 전효철)와 부산대 로스쿨 불교동아리 '향성' (회장 김진욱)은 5월 16~17일 해남 미황사(주지 금강)에서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특히 일반 신입생 포교를 위해 계획된 이번 템플스테이는 동아대 로스쿨 신입생 20여명과 부산대 로스쿨 학생 10여명이 함께 동참했다.

동아대 법등회 전효철 회장은 "신입생 포교를 위해 마련한 자리라 더욱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봉축대법회 개최



불기 2559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서울지방경찰청 경승단(서울지방경찰청 경승실장 원학 스님)이 주관하고 봉은사 등 경승 사찰들이 후원하는 '서울지방경찰청 봉축 대법회' 가 5월 14일 서울지방경찰청 2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원학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 서울지방경찰청 구은수 청장을 비롯한 사부대중 170여명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모 연 문

원각사 땅 한평 사기 불사를 봉행합니다



송광사 광주포교당 원각사에서는 대웅전 뒷집 땅 한평 사기(집 3채, 151평) 불사를 봉행합니다. 땅 부지 매입 이후 전각건립, 공양간 신축, 신도님 휴식 문화공간 등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원각사는 광주 도심포교당 중심도량으로 20여 년 전부터 크게 발전하여 왔습니다. 원각사 불자님의 오랜 숙원인 뒷집을 매입하여 광주불교 중심인 부처님의 전법도량으로 더욱 번창하기 위한 이런 뜻깊은 불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원각사 땅 한평 사기 불사 동참 인연 공덕으로 불보살님의 가피를 입어 다겁생의 업장이 소멸되어 자손은 번성하고 무병장수하며, 복덕구족 되시길 부처님 전에 간절히 발원 하옵니다.

송광사 광주포교당 원각사 주지 도요 합장

■ 동참시주 : 1인 땅 한평 100만원

■ 동참계좌 :
광주은행 019-107-341746 원각사
농 협 301-0089-8977-61 원각사

■ 문의접수 : 원각사 종무소 062)223-31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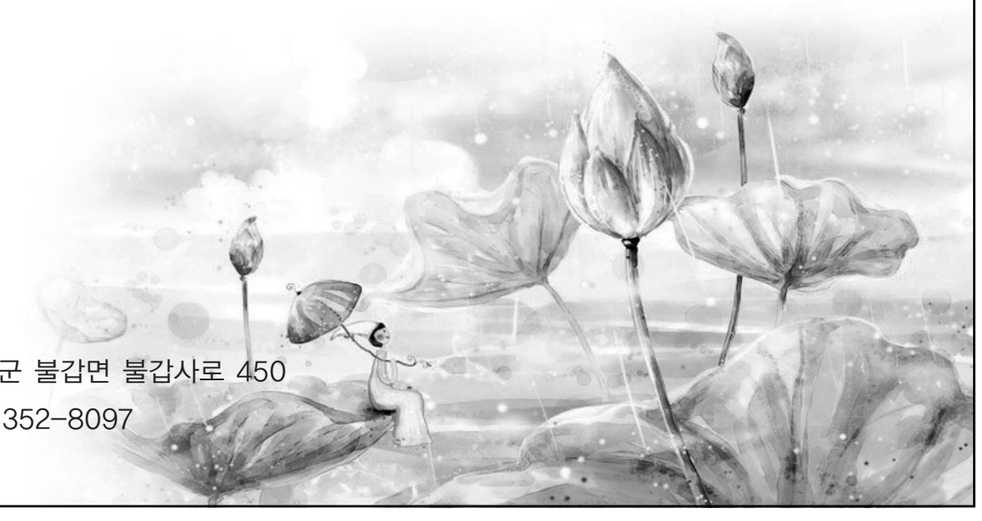
※ 동참 시주자는 공덕이 오래 전해지도록 전각 법당 건립시 현판에 이름을 새겨 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송광사광주포교당 원 각 사

佛紀 2559年 乙未年 Buddha's birthday 평화로운 마음 향기로운 세상

대한불교 조계종 불 갑 사

사 부 대 중 일 동



전남 영광군 불갑면 불갑사로 450
전화 061)352-8097

사찰 북카페, 지역 쉼터로 각광

모든 것은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 사찰이라는 신행 · 수행 공간도 마찬가지다. 바야흐로 문화의 시대, 사찰에도 문화공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편안하고 아늑한 인테리어로 공간을 꾸미고 읽을거리와 마실거리 등을 제공해 누구나 쉽게 사찰을 접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변모한 것이다. 문화로 내 마음을 치유하고 쉬어가는 곳, 이제 사찰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사찰과 카페의 '콜라보' 문화와 신행이 만나다

부산 복합문화공간 쿠무다

부산 송정에 위치한 북카페 쿠무다는 단순한 커피숍이 아니다. 경남 함양 대운사(주지 주석) 부산불교학당에서 '문화포교'를 위해 개원, 1층 카페와 2층 법당으로 이루어진 복합문화공간이다. '수련'이라는 의미를 지닌 쿠무다는 토크콘서트 및 북콘서트, 무료전시 등이 활발히 진행되며 설립 1년 만에 지역 대안 문화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카페를 설립한 주석 스님은 누구나 쉽게 불교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카페 쿠무다를 열게 되었다. 현대식 북카페로 꾸며진 1층 카페는 전혀 불교색을 띠고 있지 않지만 차를 마시러 온 손님들이 직접 커피를 로스팅하는 스님을 보며 자연스럽게 불교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복합 문화공간을 지향하는 쿠무다는 무명 작가들을 위한 무료대관도 진행하고 있다. 이미 올해 전시 일정 역시 꽉 차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쿠무다 외경

독서하고 차도 마시고 광주 직장인들의 휴식처

무각사 '문화공간 로터스'

광주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무각사(주지 청학)는 인근 직장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휴식처다.

무각사 문화관 1층에 위치하고 있는 로터스 북카페는 문화관의 꽃이다. 이곳에서는 불교서적뿐 아니라 국내외 다양한 명상서적 500여 권과 인문학 서적과 타 종교의 서적을 비롯한 명상음악을 갖췄으며 실내뿐 아니라 실외에도 전통차와 커피를 즐길 수 있는 테라스가 마련돼 있다.

뿐만 아니라 무각사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준비돼 있다.


무각사 '로터스'의 모습


백천사 주지 무구 스님이 경내 도서관에서 지역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다. 사진=김주일 기자

어린이 함께하니 사찰에 '웃음꽃'

백천사 어린이 도서관 카페

2011년 어린이 도서관 조성
리사이클링으로 도서를 구비
인근 지역 가족들 발길 잦아

경기 남양주 백천사(주지 무구)에는 이색 문화공간이 많다. 찜질방도 눈길을 끌지만 가장 한눈에 들어오는 것은 연못 위에 한옥 정자 형태로 조성된 어린이 · 가족을 위한 공간인 도서관이다.

2011년 만들어진 백천사의 도서관은 오롯이 어린이와 가족들을 위해 지어졌다. 작은 공간이지만 어린이 도서를 포함해 2천여 권의 책이 비치돼 있다.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도서관 외관에서도 드러난다. 어린이들이 좋아만한 울라프, 뽀로로, 라바 등이 익살스럽게 탱화처럼 조성돼 있다.

주지 무구 스님이 도서관을 만들어야겠다고 원력을 세운 것은 지역 주민이나 신도들이 처분하기 어려워하는 항아리, 옛 물건을 받아 안았고, 최근에 들어서는 서적들도 받기 시작했다. 그렇게 리사이클링해 모인 책들을 활용하기 위한 공간으로 도서관 건립 불사를 진행했다.

무구 스님은 "아무래도 사찰은 어른들을 위한 공간이라 아이들이 오면 지루해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가족들이 와도 아이들 때문에 어른들은 법회에 집중하기 어렵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도서관은 지역 사찰의 사랑방, 책방 역할을 톡톡히 한다. 어린이 도서 외에 일반도서들은 신도라면 은 누구나 대여해갈 수 있다. 도서 출납 장부를 적지도 않는다. 그냥 스님에게 인사하고 이 책을 빌려가겠다고 하면 한정 없이 빌려준다. 지역 사찰만의 정감나는 풍경이다.

이날 자녀와 사찰에 들려 〈여인실록〉 등을 대여해 간 김순진(33, 경기 남양주시) 씨는 "보통 사찰에 가면 불서 위주로 비치돼 있어 손이 잘 가지 않게 된다. 소설을 좋아해서 백천사 도서관에 비치된 소설이 있으면 빌려서 읽는다"면서 "아이와 놀 수 있고, 책도 대여가 가능하다는 점이 백천사 도서관이 가지는 장점이다. 사찰에 이 같은 공간이 많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백천사는 어린이 도서를 더 확보해 아이들이 좀 더 재미있게 지낼 수 있는 공간으로 도서관을 자리매김해 나갈 계획이다. 무구 스님은 "사찰 재정이 넉넉한 편은 아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재미있게 놀 수 있도록 책을 계속 기증받고 있다. 불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백천사 어린이 도서관 전경.

인터뷰 – 백천사 주지 무구 스님

"'가족 종교 승계' 위해 어린이 포교 중요"

경기 남양주 백천사는 사실 사세가 크지 않다. 그래도 백천사는 주지 무구 스님의 원력에 따라 매년 어린이날 여름 수련회를 열고 지역 어린이들을 불교로 이끌기 위해 노력한다. 어린이날 행사에서는 주지 스님과 함께 짜장면을 만들어 먹고 아이들을 위해 만든 잔디 위에서 레크리에이션이 진행된다.

여름 방학을 이용해 매년 7월 열리는 수련회는 오로지 '놀이'다. 가뜩이나 학원에 쫓기며 힘든 아이들이 굳이 사찰에 와서 까지 공부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함께 사찰 인근 도랑에 물장난하고 성불도 놀이 등 게임을 하며 몸으로 노는 것이 백천사 어린이 여름 수련회의 전부다. 인기도 좋다. 지난해에는 70명 정원이었으나 지원자가 넘쳐났다. 올해에는 한부모 가정 어린이를 위해 수련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도 중에는 아이들 공부시키면 수련회 안 보내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아이들은 자연과 놀게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야 몸도 마음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도서관, 여름 수련회 등 어린이 포교에 열심인 이유를 묻는 질문에 무구 스님의 대답은 명료했다. "아이들이 절에 오게 하기 위해서"라고.

"요즘 사찰을 가면 고령화가 심각해요. 어린이 포교가 잘 안되는 것도 있지만, 신도들도 자녀들을 사찰에 보내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가족 간 종교 승계'가 중요해집니다. 제가 어린이들을 사찰에 모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불교 신행이 가족 안에서 대물림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수제 전통차가 일품인 지역 주민들의 지대방

국제선센터 북카페 '수다원(修茶園)'

서울 목동 국제선센터(주지 탄웅) 1층 로비에 자리하고 있는 북카페 수다원(修茶園)은 사찰의 지대방이자 지역의 응접실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매일 평균 100~200명의 불자와 지역주민들이 수다원에 차를 마시기 위해 다녀간다. 인근 성당 수녀님들도 찾을 정도다. 학교 앞에 위치해 가끔 학생들이 몰려와 차를 마시거나 조용히 앉아 문제집을 풀다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가격도 1~2천원 수준으로 저렴한 것도 인기의 요인이다.

가격이 저렴하지만 맛과 품질이 낮은 수준은 아니다. 2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대추, 유자차 등 전통차를 담가 내놓고 있어, 저렴한 가격의 더치(Dutch) 커피와 깊고 신선한 차 맛은 입소문을 타고 있다.


국제선센터 수다원 전경

편안하게 쉬면서 교리를 배우는 곳

금륜사 '다륜북카페(茶輪Book Cafe)'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금륜사(주지 본각)는 민족 문화유산 서오릉과 연계돼 종교와 문화, 예술, 그리고 만남과 휴식의 안식처 역할을 하고 있다.

금륜사 1층에는 차와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는 '다륜북카페' 가, 2층에는 법당이 있다.

다륜북카페는 관상용 보리수나무, 고무나무, 떡갈나무 등으로 꾸며져 아담한 온실 같다. 이곳에 신도들이 보시한 책들과 예술가들이 기증한 도예작품들이 곳곳에 놓여있다.

카페에서는 신도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만든 차를 판매하고 있다. 찻값이 적힌 메뉴판은 있지만 계산대와 돈을 받는 사람이 따로 없다. 카페 한쪽에 놓인 보시함에 넣을 만큼 넣으면 된다.


금륜사 북카페 '다륜'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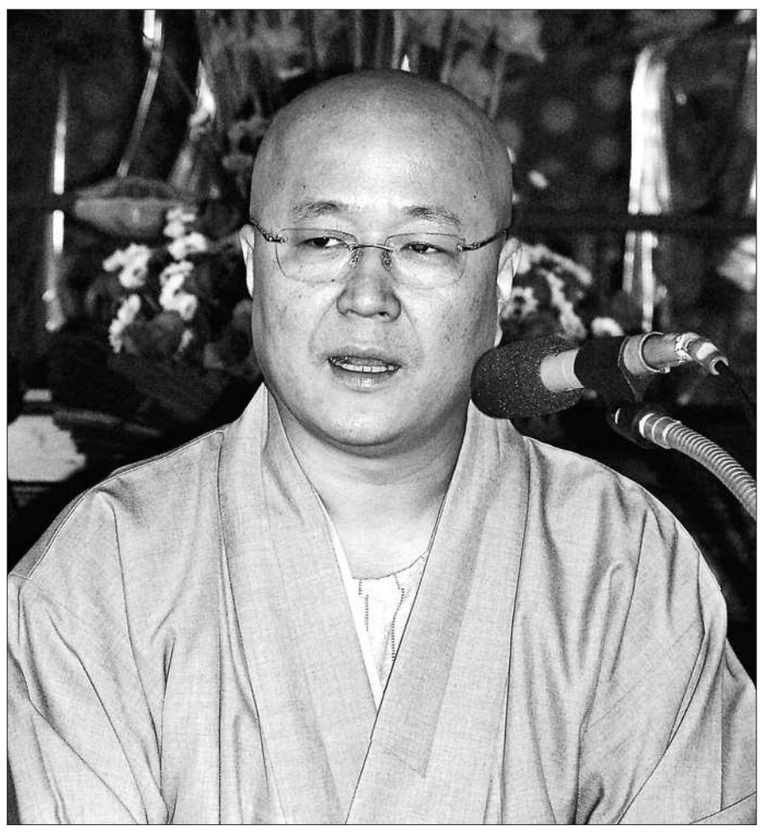


불성 끄집어 내는 방법… 우회법과 直入

동국대 정각원 토요법회

종호 스님 (동국대 불교대학장)

'일체중생 본래열반(一切衆生 本來涅槃)' 일체 모든 생명은 본래 열반의 상태에 있다는 말로, 그 근본이 바로 불성(佛性)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본디 태양처럼 밝고 환한 존재인 인간이 번뇌 미망이라는 흑운(黑雲)에 덮여있을 뿐이라고 말씀하셨다. 종호 스님은 5월 2일 동국대 정각원 토요법회에서 '생활 속의 불교' 를 주제로 강의했다. 종호 스님은 "불성(佛性)을 끄집어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며 "고통과 번뇌를 걷어내는 과정을 거치는 우회법과 본래 자신이 부처임을 자각하고 그 본성을 직접 자각하는 직입(直入)"에 대해 설했다. 이것을 '본중자각' 이라 말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스스로 완전히 행복한 존재임에 한치의 의심도 없을 것"을 강조했다. 정리=박아름 기자



종호 스님은 … 1974년 해인승가대학 강원을 졸업한 종호 스님은 1986년 동국대 불교대학 선학과를 졸업한 후 1988년 동대학원 선학과 졸업, 1994년 동대학원 선학과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및 불교대학원 학장으로 재직 중이다.

본래열반 무루지혜의 상태

오늘 법회 주제는 '생활 속에서의 수행' 입니다.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연결시켜 수행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수행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론적인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경전이나 조사 어록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우리의 본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본래 '부처' 입니다. 보적경이나 능가경에서는 "일체중생은 본래의 열반이며 무루지성 본좌구족"이라고 말합니다. 헌데 능가경에서는 일체중생이 아닌 일체제법이 본래의 열반이라고 합니다. 차이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일체중생 본래열반' 은 모든 생명체는 본래 열반 상태에 있다는 뜻이며 '일체제법 본래열반' 은 생명체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 즉 무생명체를 포함해 본래 열반의 상태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루지성 본좌구족' 은 어떤 의미일까요? 한없는 지혜, 무루의 지혜가 본래 완전히 구족되어있다는 의미입니다. 풀이하자면 모든 중생은 본래 열반의 상태에 있으며 한없는 지혜가 원래 구족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어록에서는 우리가 본래 태양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태양이 단지 구름에 가려져 있는 것뿐입니다. 본디 태양처럼 밝고 환해서 조금의 어둠도 없는 완전한 존재이지만 번뇌 미망이라는 구름에 덮여 태양의 밝음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중생신중의 금강불성입니다. 중생은 색수상행식이라는 오온으로 덮여 있어 밝은 태양이 드러나지 못하는 소위 중생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래 자신이 갇혀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잘 믿지 않습니다. 이유인 즉은 구름의 두께가 워낙 두터워서 구름이 있다는 것조차 볼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본래 부처이며 한없는 지혜가 갖추어진 존재라는 것은 불성이라고도 합니다. 불성은 초기 경전부터 후대 조사 어록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흐르고 있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저는 불성을 여래장, 진성, 자성 등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열반경에서는 "연기가 곧 법이며, 또 불(佛)이다. 법을 아는 자 나를 보고, 나를 아는 자 법을 본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불성이 제일이며 열반이고 중도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불성이 바로 인간 본래의 면목이라는 것인데, 먼저 존재의 형태로 말할 수 있습니다. 불성은 어느 문자나 어느 형상으로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어느 시점에 시작된 적도 없으며(無始),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항상(恒常)합니다. 즉 불성은 모든 일체 번뇌의 뒤덮임과 쌓임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체 모든 주생은 이러한 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본래 원하는 것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흑운(黑雲)에 가려있어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또 한없는 모든 공덕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무량(無量)하다 할 수 있습니다. 공덕이라는 것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 한계를 가늠하기 어려운 것으로, 쓸수록 바닥이 나는 무위(無爲)한 것과는 다릅니다. 또한 구경청정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받을 때 그 사람 마음에 어떤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내재돼 있다면 청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없었을 때 진정한 선이 집적이 됩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성이나 지혜는 나눌 수 없는 불가분의 것, 불가사의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헤아리는 것만으로는 알 수 없으며 샘이 없는, 그야말로 한없는 공덕과 지혜로 갖춰져 있는 것이 불성이며 자성, 여래장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모두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고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세계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래가 여래의 지혜를 가지고 여래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중생이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본래 부처였기 때문에 부처 안에 들어있는 지혜를 드러내 스스로 부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존재가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부처가 다시 부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여래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일문천호'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를 제대로 들으면 모든 것을 전부다 들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모든 것을 다 알게 된다. 아마 여러분은 그런 것들이 어쩌면 연결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어느날 문득 나도 모르게 정말로 섬광처럼 내 몸을 스치고 가면서 그런 느낌이 올 수 있지 않나.

불성 체득의 두 가지 방법론

불성의 체득은 '수행' 입니다. 오늘날 간화선 · 위빠사나 · 명상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간화선은 전통적으로 고려시대 보조 진월 스님에 의해 발전된 수행법이며, 위빠사나는 80년대 한국에 들어와 유행한 수행법, 명상은 2000년대 무렵부터 급속히 확산된 방법입니다. 이 수행법들은 지향하는 목표는 같을지라도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에 전파되었으나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한 묵조선이 있습니다. 묵조선은 중국에서 많이 행해집니다. 또 다른 형태로서의 지관선은 불교의 모든 경전 이론과 수행체계를 정리를 해서 수행으로 만들어낸 방법으로 아주 체계적이고 논리적이며 핵심적인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열반 상태에 존재
온갖 번뇌 미망에 가려져 못볼 뿐
간절히 발심해 본성을 자각하면
우리모두 청정한 부처가 될 수 있어

일단 이런 수행법들을 정리해 보면 대체적으로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직입이라고 해서 곧바로 들어가는 방법, 또 하나는 단계적이며 우회적으로 수행의 역량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명상이나 위빠사나는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우회적인 성향을 더 강하게 띈다면 간화선 · 묵조선은 곧바로 근본에 도달하는 직입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묵조선은 간화선보다 더욱 직접적으로 부처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것을 지향하는 반면 간화선은 화두의 타파를 통해서 불성에 도달할 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관선은 직입과 우회적인 방법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완전한 존재임을 자각할 것

다음은 수행자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수행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발심입니다. 어록에서는 발무상보리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진실로 내가 이 공부를 해야겠다는 발심이 있을 때 공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필요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절이나 기도를 할 때도 간절한 필요성과 있어야 진정한 발심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간화선에서는 어린아이가 엄마 생각하는 것처럼 혹은 목이 타들어갈 때 물을 찾는 것처럼 간절함과 긴급함, 절박함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흔히 말뚝신심이라고 하지요. 그것 또한 간절함에서 비롯됩니다. 근기로 얘기를 하자면 상근기일 때 가능한 것이며, 하근기일 경우에도 간절하고도 절박한 마음을 내었을 때 그 순간 그 사람도 상근기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을 보고 발심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부처님 가르침, 자기 자신의 변화, 세상의 변화 등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계기로든 강한 발심이 있을 때에 수행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얼마만큼 간절하고 긴박하게 발심하고 있는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부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선지식자입니다. 선지식은 세상에 많고도 많지만 만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능가경에서는 부처님이 보살들을 이끌어줘야 그 보살들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은 중생 스스로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고 합니다. 중생이 무언가를 해보려고 해봐야 안목과 역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고의 경지에 오르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이처럼 선지식은 대단한 영향이 있습니다. 공덕이라는 것은 일체 무량의 공덕이지만 선지식의 힘, 즉 법력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지식에게는 무형의 기운이 있습니다. 예컨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어서오너라, 비구여"라고 말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아라한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얼토당토 않는 말 같지만 이해를 해보면 부처님에게는 중생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그 기운, 공덕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 정신적 육체적 구조가 그 힘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직입 수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무한한 복덕을 갖춘 존재이니 그 본성에 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묵조선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본래 부처님이니 좌선수행을 통해 그것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본중자각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중생의 모습이고 세상에는 많은 고통이 있으니 그런 것들을 조금씩 제거해서 행복으로 가까이 이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번뇌를 제거할 필요 없이 본래 내 참 모습을 발견해 그것에 일치해 살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일치시킬 수 있을까요? 내 자신이 본래 근심걱정 없는 완전히 행복한 존재라는 것을 확실히 자각하고 믿고 알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한 치의 의심도 없어야 합니다. 내 안에 무한 공덕이 갖춰져 있고 복혜가 충만한 존재라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활 속의 수행입니다. 생활 속에서 수행은 부정적인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털어내고 바꿔야할 것이 없습니다. 인생에 불행과 슬픔은 없고 오로지 나는 행복한 존재라는 것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이것을 수행하면 내 몸에 좋은 기운이 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행동도 가벼워집니다. 불성을 깨우는 것을 현실 속에서 실천해 해보니 실제로 생활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 직입의 수행을 조금 변화시켜서 '나는 본래 완벽한 존재' 라는 것에 사로잡혀보는 것도 좋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좋은 영향이 다른 사람에게도 미칩니다. 과학적으로도 좋은 호르몬과 뇌파가 발생되어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미칠 수 있습니다. 5분 간 좋은 생각은 6시간 동안 좋은 호르몬이 생성된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분 간 나쁜 생각을 하고 화를 내면 6시간 동안 부정적인 기운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니 '나는 행복한 존재' 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내 몸만의 변화가 아니라 상대에게도 긍정적인 기운이 전달됩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을 하면서 한 두 사람이 집중하게 되면 여러 사람이 함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참선에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진정한 행복을 원한다면 스스로 변하십시오. 불성이 드러난 존재가 최고로 행복한 존재입니다.

연인원 4만명이 참가하는 힐링전문 템플스테이도량

선무도 공연과 함께하는 골굴사 성지순례

오감으로 느끼는 생생한 문화체험
보고 듣고 따라하고 느낌으로 배운다
선무도와 불교종합예술공연 – 체험 – 감동의 파노라마



1500년 마애불의 미소가 삼세업장을 소멸하는 골굴사

주변성지 : 기림사, 오어사, 석굴암, 문무대왕 수중릉

◈공 연 내 용 : 선무도 · 승군의 검무 · 화랑의 봉술 · 아수라의 바라무 · 사천왕의 탈춤
선무드라춤 테라피 · 힐링살풀이 · 불교전통무용 · 민요

◈ 템플라이프(유료) : 선무도체험 · 공연관람 · 공양(식사)

◈ 선무도 지도자 과정 신입생 모집 : 2년 전액 무료 (홈페이지 참조)

◈ 선무도 공연 ◈
매일 오전11 시 30분, 오후3시 30분(무료공연)
월요일 은 쉽니다.





◈ 선무도 수련원 ◈
· 서울본원(종로) 02)763-2980
· 서울 강남지원 02)599-5554
· 부산지원 010-2554-8100
· 울산지원 052)276-6271

선무도총본산 골굴사 재)선무도 대금강문
☎ 054)744-1689 / 775-1689 www.sunmudo.com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 88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5년 5월 中
◆ 개강일시 : 2015년 5월 中.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명리학 과정 (임성도 교수)

① 명리학 : 초급, 중급, 고급 (각과정 3개월) 2시 반 ~ 4시
② 성명학 : 초급, 상급 (각 3개월)
▶ 개강일시 : 2015년 5월 中 (매주 월) ◀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일연 원효 설총의 얼 담은 공원 문열다

경산시, 총비용 513억 투입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개장

원효 스님과 일연 스님, 그리고 설총의 정신과 업적을 기리기 위한 역사문화공원이 탄생했다.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최근 남산 일대에 삼성현역사문화공원을 개장했다.

총 26만 2천㎡ 부지에 조성된 삼성현역사문화공원은 총 사업비 513억원이 투입됐으며 지난 2009년 12월 착공에 들어가 2013년 6월 기반시설을 완공하고, 공원 내 삼성현역사문화관 콘텐츠 조성사업을 3월에 끝마쳤다.

삼성현역사문화관과 국궁체험장. 둘레길, 야외공연장, 바닥분수대, 어린이놀이터, 다목적운동시설 등을 갖췄다.

주요시설로는 삼성현콘텐츠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삼성현역사문화관', 전통 국궁체험장인 '국궁장', 이야기가 있는 '둘레길', 야외공연장, 바닥분수대, 어린이놀이터, 다목적운동시설, 피크닉장 및 각종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원효 · 일연 스님과 설총에 관련된 자료를 콘텐츠화한 경산 삼성현역사문화공원(사진 왼쪽)과 개장행사 모습(사진 오른쪽)

특히 삼성현역사문화관은 국내외 30여 곳에 흩어진 삼성현 관련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 · 체험공간이다. 지상 1층에는 〈삼국유사〉의 원효 전기를 세긴 전통서각, 체험공간인 온가족실, 기획전시실이 있으며, 지상 2층은 원효실, 설총 · 일연실, 삼성현 관련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아케이브실로 구성되어 있다.

경산시는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개장을 시작으로 공원 인근에 '동의 참누리사업' 등 시민을 위한 문화 · 교양 시설 등을 확충해 나길 예정이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삼성현역사문화공원은 시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정신문화의 공간이자 친근하고 쾌적한 휴양공간, 경산의 문화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문화관광의 명소로 만들겠다"며 "역사 속 불교 선지식들의 자료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장식에는 최영조 경산시장과 이천수 경산시의회 의장, 이두환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일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이사장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광주봉축탑 기단부분 인위적 훼손 '충격'

광주지역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기 위한 봉축탑의 훼손됐다. 지난 5월 20일 저녁 9시경 광주불교연합회 측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에 세워진 봉축탑의 기단부분이 훼손된 것을 발견하고 관할경찰서에 신고했다.

이번에 훼손된 봉축탑은 화엄사4사자3층석탑을 모형으로 한지로 만든 것으로 전체 4면으로된 기단부분 중 2면에 걸쳐 날까로운 면도칼로 14m가 찢어졌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 저녁에는 1m 크기로 훼손됐으나 훼손 정도가 경미해 간단한 처리만이 진행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전주지역에서 거리연등이 훼손돼 논란이 인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웃종교계의 광신자의 소행으로 보고 있다.



날카로운 칼로 훼손된 탑의 모습(원안)

한편, 광주봉축탑은 5월 27일까지 불을 밝힌다. 이번 설치된 봉축탑은 서울과 수원에 설치된 20m크기의 초대형 탑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완주 송광사, 삼세불 사면법당 개당법회

완주 송광사(주지 법진)가 삼세불 사면법당을 개당했다. 완주 송광사는 5월 20일 기존 대웅전 편액 외 보광명전, 무량수전, 유리광전 3개의 편액과 20편의 주련불사 회향법회를 봉행하고 편액 주련불사 회향법회와 삼세불 사면법당 개당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송광사 회주 도영 스님, 조계종 원로의원 지성 스님, 보현사 회주 자광 스님, 팔달사 회주 혜광 스님, 화과원 원혜 스님 등 종단 원로스님들과 백담사 유나 영진 스님, 前 화엄사 주지 종삼 스님 등 500여 대중이 참석했다.



도영 스님은 "불자여러분들이 송광사의 주인이 되어 삼세불의 편액과 주련에 새겨진 부처님의 금구를 마음에 새겨 수행정진의 지표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군산 흥천사, 청소년 백일장 대회

군산 흥천사(회주 지환)는 5월 9일 봉축 청소년백일장을 개최했다. 올해로 7회째 열리고 있는 흥천사 청소년 백일장 대회는 운문부와 산문부로 나뉘어 군산지역 20여개 학교의 300여 중고등학생이 실력을 겨뤘다.

이날 고등부 장원에는 이건희(전북외고 3), 중등부 장원에는 이지윤(군산중 3) 학생이 당선됐다. 이밖에 입상한 학생들에게 총 500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됐다. 시상식은 부처님 오신 날인 5월 25일 흥천사 법당에서 열린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부안 내소사 지장암, 솔바람 음악회

현대인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 산사 음악회가 부안 내소사 자장암에서 열렸다. 부안 내소사 지장암(감원 일지)은 5월 9일 지장암에서 한국식 오카리나 제작자이자 연주자인 김준모 씨와 피아니스트 이지우 씨를 초청, '제10회 숲속의 소리 힐링 – 솔바람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준모 씨는 자신의 3집 음반 '그리운 엄마 보고픈 엄마'의 곡들을 오카리나 선율로 연주해 참석한 300여 명 대중으로부터 갈채를 받았다.

일지 스님은 "오카리나의 아름다운 선율이 현대인들의 지친 일상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내년에도 개최해 힐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참 나 찾아가는 구도여행으로 초대를"

6월 1일~8월 28일, 하안거 재가 안거 수행 결사 봉행

반결제 프로그램 진행, 수행점검
재가자 수행 프로그램 대중화 목표

부산 재가자들의 수행 정진을 위한 하안거 결사가 봉행된다.

(사)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수진, 이하 조계종연합회)는 5월 20일 부산 송정 대원사 쿠무다에서 '하안거 재가 안거'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조계종 연합회 사무총장 목종 스님(대광명사 주지)은 "동안거를 처음 시작했던 지난해에는 홍보가 미비해 조계종연합회에 소속된 사찰이 대부분이었다"며 "부산 외에 타 지역에서도 신청이 들어오고 있으니 잘 협력해 수행풍토가 뿌리 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취지를 전했다.

올해 하안거 기간은 6월 1일~8월 28일 90일 간 진행되며 입재는 5월 30일 오후 2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열린다.

입재식에 앞서 오후 2시에는 조계종연합회에서 발간한 '재가안거 수행록'을 함께 살피고 수행 교육 안내를 위한 설명회가 실시되며 안거 기간 동안 진행할 수행법 및 점검 방법 등을 확인한다. 재가자 수행 프로그램 안내 후 정식 입재식은 오후 3시이며 수불 스님(범어사 주지)의 법문이 이어진다.

또한 조계종연합회는 점검하는 시간을 강조하기 위해 사찰에서 진행하는 포살법회뿐 아니라 반결제 시간도 갖는다. 반결제 시간은 참가하는 모든 불자들이 함께 모여 자신의 수행담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기 위해 마련하는 자리다.

20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하안거 재가 안거'의 접수기간은 5월 29일까지며 재가안거 수행결사 운영사찰 종무소 및 조계종 부산연합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051)501-7554

하성미 기자

부산 생명나눔실천, 제9회 작은 음악회 개최

환우를 위해 직접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가 열린다.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는 6월 9일 오후 7시 부산 동의의료원에서 '제9회 환자 쾌유를 위한 작은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차 나누기 및 사랑의 떡 나누기와 함께 재활원에서 활동하는 성우원 합주부 연주, 천사가수 설라경, 키다리 삐에로 열락, 밴드 바나나우유 등의 공연이 진행된다.

하성미 기자

"일심으로 정토 구현 앞장 서자"

대한불교 원효종 원효 스님 1329주기 추모대재 개최



대한불교원효종이 5월 16일 개최한 추모대재에는 7백여명이 참석했다.

대한불교원효종 종조인 원효 스님의 1329주기 추모대재가 5월 16일 경주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대재에는 대한불교원효종 종정 정광 스님을 비롯해 원로원장 창해 스님, 자문위원장 금봉 스님 총무원장 우석 스님과 원로위원 혜초 스님 등 700여 대중이 참석했다.

이날 원효종 총무원장 주석 스님은 "원효 스님의 사상은 인간은 누구나 불성을 가지고 있으며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일심은 모든 존재와 현상의 근거이며, 일심이 구현한 세계가 바로 정토이다. 원효 스님의 사상과 무애정신을 되새겨 보자"고 말했다.

원로원장 창해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원효 스님이 염원한 귀일심원사상은 인류에게 돌아가야 할 영원한 고향을 가르쳐준 등불"이라며 "인류 평화가 성취되길 간절히 발원하며 불국정토가 이룩되길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원효종 종정 정광 스님의 법어에 이어 규정원장 일륜 스님은 원효 스님 행장을 읊으며 "스님의 삶은 오늘날까지 우리들 가슴 속에 깊게 남아 있다. 지역감정으로 얼룩진 상처 빈부격차에서 오는 온갖 갈등, 이 모든 것들을 치유 할 수 있는 화쟁사상의 큰 가르침이 오늘 우리들에게 더욱 크게 다가온다"고 말했다.

추모대재에 이어 종단에 공이 많은 스님과 신도들에게 공로상 등을 수여하는 종도대회도 진행됐다.

경주=하성미 기자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NAVER 성화불교전시관

주 · 야 상담 합니다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한마음 한걸음으로 109년,
우리나라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 SINCE 1906



사찰 건축

천년 가람을 이루는 지극한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최신스틸공법 시공 / 대웅전 / 요사채 / 산신각 / 전문시공




스틸한옥의 장점
- ◆ 단열효과가 높고 유지 보수가 쉬우며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
- ◆ 층수에 관계없이 고층 시공이 가능함. 한옥빌라, 한옥빌딩, 한옥아파트 등
- ◆ 스틸구조에 의해 디자인 면에서도 한옥의 선을 맘껏 살릴 수 있다. 다양한 디자인 한옥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주)만성기업 한중열 합장

부산 사상구 강선로 11번지 / 010-4245-1335

대원불교미술원

청동불사 조성(제작) 전문

청동불상, 개금, 탱화, 단청 일체

진실과 원칙, 최고의 재료로 부처님 조성에 온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 많은 조언과 믿음으로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스님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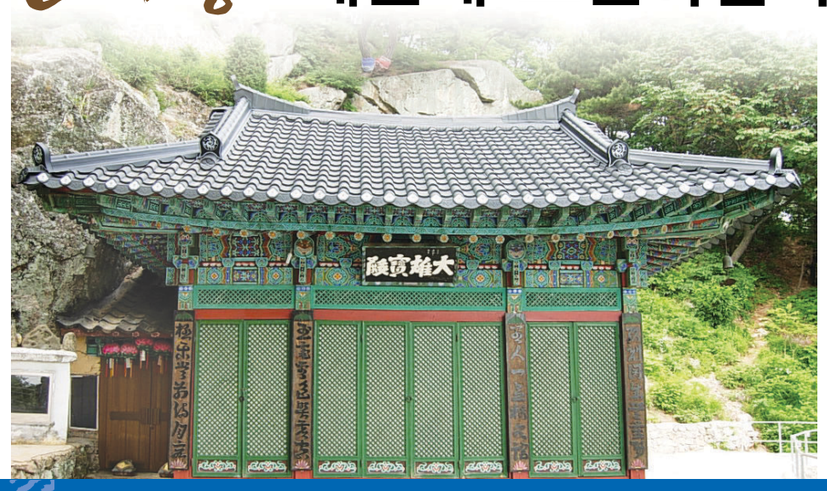
원장 임영달 합장





경기 포천시 내촌면 진목 1리 915-14
전화 031)532-3722 | 010-7171-2636 | 팩스 031)533-3722
이메일 lyd5798@naver.com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약수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빙의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 약 사 선 원
010-2766-7677

북한산 국립공원 올래길
서울 은평구 진관동 대서문길 36-1 북한산성상가 A동 20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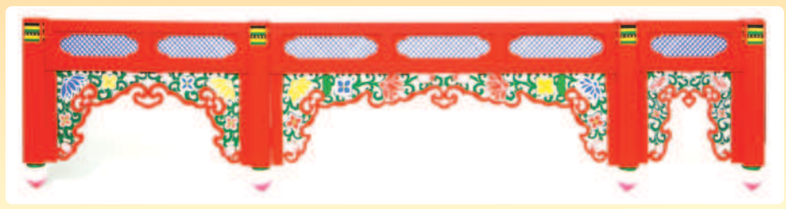
목각단청운각

(간편조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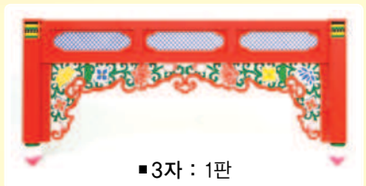
법당장엄 5층 목탑



전통적인 연꽃 단청과 문창살문양으로 부처님을 모시는 법당을 보다 장엄하게 설치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대웅전, 산신각, 포교당, 소법당 등의 천장에 누구나 간편하게 직접 조립할 수 있게 제작


■3자 : 1판


■2자 : 4판


■1자 : 4판

※ 단청운각 1세트 17자 (5m, 10cm) / 가격 : 90만원



■ 크리스탈사리탑
높이 45cm / 가로, 세로 20cm
가격 : 35만원

■ 크 기 : 높이 120cm / 하단 가로 45cm
보급가 : 900,000원 (배송비 포함)
*내부 조명등 있습니다.

주문문의 고전상사
전화 : 031)442-3168 / 010-3772-3165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618-185번지
계좌번호 : 농협 356-1008-993643 (예금주 : 김판희)

모든 제품은 입금 후 우편 배송하여 드리며,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교환 및 환불하여 드립니다.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0-5264-3906 www.yjkukak.com

대한명인 제14-406호
대 고 제 작

한국 탑 조형의 우수성 가장 잘 드러나

탑의 진화

㊱ 10층탑 – 1



〈사진1〉
경천사지 10층석탑

일반적으로 불탑을 조성할 때는 층수는 홀수로 면은 짝수로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은 유교와 도교사상에 근거한 중국문화에서 연유된 것이다. 즉 짝수는 음수로 땅을 상징하는 수이고, 홀수는 양수로 하늘을 상징하는 수이기 때문에 불탑의 평면은 짝수로 하고 하늘로 향하는 탑의 층수는 홀수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불교경전에서는 불탑을 조성할 때 층수의 홀수와 짝수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

〈십이인연경〉에 의하면, '여덟 부류에 속하면 탑을 세울 수 있나니 첫째는 여래(如來), 둘째는 보살(菩薩), 셋째는 연각(緣覺), 넷째는 아라한(阿羅漢), 다섯째는 아나함(阿那含), 여섯째는 사다함(斯陀含), 일곱째는 수다원(須陀洹), 여덟째는 전륜왕(轉輪王)이다. 전륜왕 이하의 부류는 탑을 세우되 하나의 노반(露槃 : 層)만 둘 수 있으며, 친견은 하되 예배를 할 필요는 없나니 성탑(聖塔)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초과(初果)는 2노반(二露槃 : 二層), 이과(二果)는 3노반(三露槃), 삼과(三果)는 4노반(四露槃), 사과(四果)는 5노반(五露槃), 연각(緣覺)은 6노반(六露槃), 보살(菩薩)은 7노반(七露槃), 여래(如來)는 8노반(八露槃 : 八層)을 둔다. 8노반 이상이면 모두 불탑(佛塔)이다' 라는 경설이 있다. 이에 따르면 초과(須陀洹), 삼과(阿那含), 연각(緣覺), 여래(如來) 등의 탑은 모두 짝수에 속하는 셈이다.

이처럼 불교경전의 내용에 근거한 짝수 층인 10층의 불탑이 우리나라에서는 조성되어 현존하고 있다. 국보 제86호인 '경천사지 10층석탑' 과 국보 제2호인 '원각사지10층탑' 조계사 세존사리10층탑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1층 역사의 길에 복원되어 있는 경천사지 10층석탑**〈사진1〉**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자. 이 불탑은 고려 충목왕 4년(1348년)에 개성 부소산 자락의 경천사에 조성되었던 10층탑이다. 이탑의 건립 연유에 대해서는 현재 1층 탑신석 창방 부분에 남아 있는 명문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명문에 의하면, '대화엄경천사에서 원나라 황제와 태자전하의 만만세, 황후폐하의 천추만세 등을 축원합니다. 비가 순하게 내리고, 부처님의 태양은 더욱 빛을 발하고, 법륜이 항상 전하기를 축원합니다.… 지정8년 무자년 3월' 이라는 내용이 음각되어있다. 즉, 원나라 황실의 안녕을 기원하고, 국태민안하여 불법이 성하여 수복을 이루기를 발원하고 있으며, 대시주는 강융(姜融)과 고용봉(高龍鳳)이며, 대화주는 성공(省空)스님, 시주는 육이(六怡)스님이 담당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

고려사의 기록에 의하면, 예종12년인 1117년에 숙종의 기제사를 경천사에서 봉행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절의 창건은 탑의 조성보다 최소한 230년이 앞선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탑이 조성되던 고려의 사회적 상황은 원나라와 부마관계를 맺고 심한 내정간섭을 받던 시기였다. 특히 친원세력들이 득세를 하였는데, 출세를 위해 자청하여 원의 환관이 되어 당대에 권세를 누린 이들이 적지 않았다. 대시주의 하나인 고용봉(?~1362)도 원의 환관이 되어 황제의 총애를 받았던 인물이다. 그는 공녀로 원나라에 끌려간 기자오(奇子敖)의 딸을 원순제의 황후로 등극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최근에 모 방송국에서 '기황후' 라는 사극을 방영하였는데, 극중의 고용보가 바로 고용봉과 동일 인물인 것이다. 이러한 고용봉은 원나라와 관련된 많은 사찰에 불사를 후원하였지만, 원나라 황실의 후광을 믿고 '횡포가 심하여 못하는 짓이 없을 정도이다!' 라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원성이 높았다. 결국에는 해인사에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지만 그 동안의 죄질이 너무 심하다 하여 공민왕 때 처형당하게 된다. 한편 대시주의 또 다른 인물로 명문에 기록되어 있는 강융(?~1349)은 본래 관노(官奴)출신으로 충선왕과 충렬왕의 왕위쟁탈전 때 충선왕의 측근으로 큰 공을 세워 부원군으로 봉해질 만큼 실세를 누리던 인물이었다. 특히 그의 딸을 원나라 승상 탈탈(脫脫)의 애첩이 되게 하여 더욱 권세를 누렸으며,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강융은 경천사를 탈탈의 원찰로 삼고, 원나라에서 장인을 데려다 이 탑을 조성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처럼 막강한 권세를 누렸던 친원세력에 의하여 조성된 이 10층탑은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고려의 불교문화와 조화를 이루어 독특한 조형성을 간직하고 있다.

독특한 조형성이란 화엄사상에 근거한 십(十)의 상징적 표현을 말한다. 1층 탑신에 새겨진 명문에 '대화엄경천(大華嚴敬天)' 이란 구절**〈사진2〉**에서 알 수 있듯이 경천사는 화엄사상을 공부하는 화엄사찰이었다. 그런데 '화엄경' 에선 십주, 십행, 십회향, 십지 등 십(十)을 '화엄의 수' 로 보기 때문에 화엄종 사찰이었던 경천사에 10층탑을 조성한 것이며, 3단으로 된 기단과 3층까지 탑신부의 형태가 4면이 돌출하여 '亞자형' 의 평면구조를 하고 있다. '아자형' 평면도 십(十)의 변형이란 점에서 층수뿐만 아니라 평면까지 화엄사상에 근거하여 도상적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4층부터 10층까지 사각형 평면과 목조 지붕 양식 등을 새긴 것은 당시 원나라 라마탑에서는 쉽게 찾아 볼 수 없는 형식으로 원나라와 고려의 문화적 조화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탑의 우수성은 각 면에 부조된 조각의 정교함과 다양성을 들 수 있다. 우선 기단부에는 당나라 현장스님의 인도 구법을 의인화한 소설 〈서유기〉의 장면과, 보살상, 나한상 등이 조각되어 있으며, 탑신의 1층에는 삼세불회, 영산회, 용화회, 미타회를 2층에는 화엄회, 원각회, 법화회, 다보불회, 3층에는 소재회, 전단서상회, 능엄회, 약사회를 4층에는 원통회, 지장회, 열반회, 석가회의 16가지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지붕에는 각 장면의 명칭을 알 수 있도록 현판을 새겨 놓았으며, 5층부터 10층까지는 5불 혹은 3불의 여래상**〈사진3〉**이 빈틈없이 조각되어 있다. 이러한 불회상도를 바라보고 있으면, 마치 8만대장경의 경설을 한 번에 친견하는 것처럼 강한 신앙심이 저절로 구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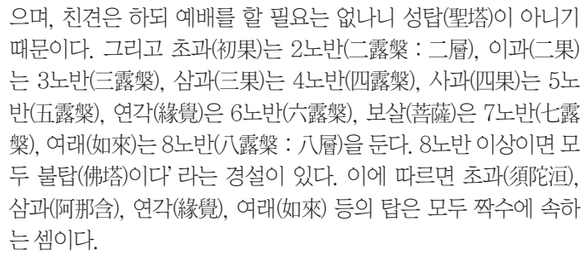
이처럼 뛰어난 경천사10층탑은 일제치하에서 비운의 운명을 시작하게 된다. 1902년 동경제국대학공과대학 조교수였던 세키노 타다시(關野 貞:1867~1935)는 일본 정부의 명을 받고 우리나라 전역의 문화재를 조사하고 1904년에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천사는 황량하게 폐사되었고 오직 석탑 1기만**〈사진4〉** 남아 있다고 하였다. 보고서 발표 후 3년이 지난 1907년 순종의 결혼식에 일본 특사로 참석한 궁내대신 다나까 미스야끼(田中光顯:1848~1939)는 당시 서울에서 골동품상을 경영하던 일본인 '곤도사고로(近藤佐五郎)' 에게 이 불탑을 일본으로 무단반출을 지시하였다. 곤도사고로는 그 당시 도굴꾼들로부터 귀중한 우리문화재를 헐값으로 사들여 일본으로 불법반출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국보 제104호로 지정 된 '전 흥법사지 염거화상승탑' 도 곤도 사고로가 불법으로 반출하여 일본으로 가져가려다 실패한 사실이 있다. 하여간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07년 2월 4일 헌병들이 총칼로 위협하여 야밤에 탑을 해체하여 몇 대의 수레에 실어 기차와 배를 이용하여 일본으로 불법 반출되었다. 이 과정에서 탑이 심하게 훼손 된 것은 당연한 결과였을 것이다. 더구나 일본에 도착한 탑의 부재들은 바로 조립되지 못하고 제실박물관 한쪽에 포장도 풀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었다. 그 이유는 불탑반출에 대한 부당성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었기 때문이었다. 여론 형성에 크게 기여한 사람은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조선 교육사업의 근대화를 위해 파견된 헐버트(1863~1949)와 영국인 베셀(1872~1909)이 각각 월간지 '코리아리뷰' 와 '대한매일신보' 등에서 현장을 방문하고 약탈사실을 폭로하였다. 그 결과 일본 내에서도 다나까 미쓰야끼의 비판여론이 커지고, 국제적인 거센 반환 요구에 힘입어 현해탄을 건넌지 11년이 지난 1918년 11월 15일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로 반환된 이 불탑은 무분별한 해체와 운반과정에서 심하게 훼손되어 복원되지 못하고 경복궁 회랑에 옮겨져 부재가 방치되는 비운의 운명을 다시 맞게 되었다. 그러다 1960년 당시 국립박물관 학예관 이었던 임화봉(임천:1908~1965)선생의 노력으로 경복궁 전통공예관 앞뜰에 복원 될 수 있었다.**〈사진5〉**

이 때 결실된 부재들은 시멘트 몰탈로 복원되고 중앙의 적심부는 작은 자갈을 섞은 시멘트 몰탈 등으로 채워졌다. 1962년 국보 제86호로 지정되어 고려시대의 위용을 되찾는가 싶었는데, 시멘트 몰탈이 풍화가 심해지고 비둘기들의 배설물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에 노출되어 대책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마침내 1995년 4월에 이 불탑은 또다시 해체되어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의 주관으로 풍화된 시멘트 몰탈의 제거와 결실된 부분의 복원, 오염물 세척 등의 정밀 보존 처리 과정을 거쳐 2005년 8월 9일에 국립중앙박물관의 현재의 위치에서 재조립되어 낙성식을 봉행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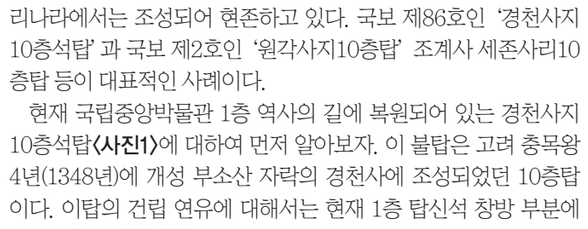
이처럼 친원 세력가들의 발원으로 조성 된 '경천사10층석탑' 은 조형성의 우수함과 조각에 나타난 도상학적 불교사상은 어느 다른 나라의 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불탑인 것이다. 또한 경천사지에서 일본으로 경복궁으로 다시 현재의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수차례 이전과 복원을 반복한 불탑은 세계사에서도 유일한 탑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천태종단 소속의 서울 관문사에서 불탑 불사가 한창 진행중인데 그 모델이 바로 이 경천사10층탑인 이유는 또 다른 의미가 있으며, 낙성식이 기대되는 것이다.

다음호에는 계속해서 조선시대에 조성된 '원각사지10층석탑' 과 최근에 조성된 조계사 대웅전 앞 '세존사리10층탑' 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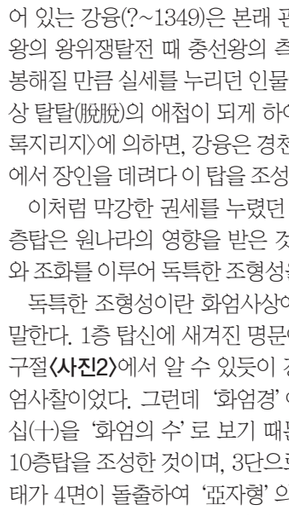


〈사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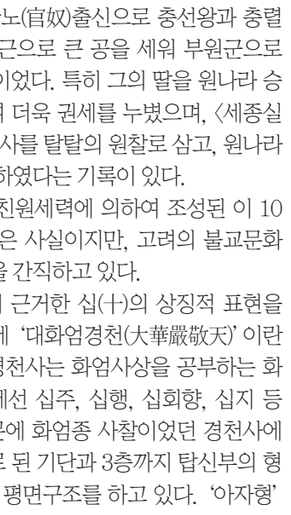
〈사진2〉 1층 탑신에 새겨진 '대화엄경천' 구절



〈사진3〉 5층부터는 여래상이 빈틈없이 새겨져 있다.



〈사진4〉 폐사 후의 경천사지 석탑



〈사진5〉 경복궁으로 옮겨진 석탑



글 · 우인보
〈불교문화예술학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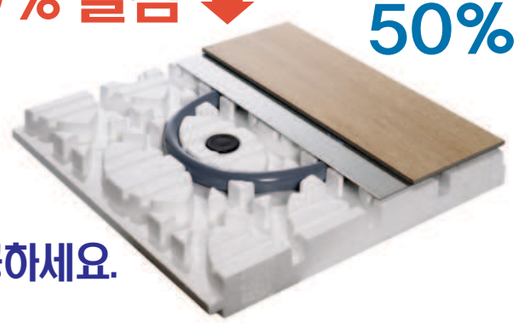
JJUN Heating System Module

"쭌 난방" 난방시스템 난방비(가스) 최대 30% 절감 ⬇

난방필름 전기판넬 대비 50% ⬇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 모듈 건식 온수난방 시스템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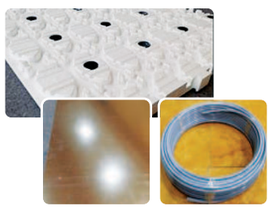
스님, 불자님 직접 온수 난방을 시공하세요.





대한민국 온돌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온 건식 온수난방시스템의 종결자!!

국내유일 D.I.Y 모듈형 접착식 건식온수난방 SYSTEM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01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수준 02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섬현상 제거 03
D.I.Y 시공 가능 03
저온수(45℃ ~ 50℃) 난방 가능 04

■ 설치장소 ■

보일러만 있으면 어디든지 시공 가능
적용보일러 : 가스, 기름, 전기, 화목, 공기열, 지열, 연탄 등
사찰 및 암자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숙박시설

특허청 KIBO 기술보증기금 인증 벤처기업

특허등록(특허제 10-1267515호)
ISO 90001:2008 인증업체
ISO 14001:2004 인증업체

www.jjunheating.co.kr

제품구입 및 A/S는 전국어디서나 무료통화
080-254-9113
H·P 010-2323-9068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1(영화동)

■ 지역 대리점

서울 : 010-5097-8291 수원 : 010-5211-7260 남양주 : 010-9183-9729
평창 : 010-6433-8612 양산 : 010-6294-6126 김천 : 010-9091-4583
진주 : 010-3583-7139 울산 : 010-4597-5577 서광주 : 010-6890-0365
익산 : 010-6610-2337 여수 : 010-3612-7784 고성 : 010-4578-0961

불자님들의 오늘 운세 는?

백팔번뇌 운수카드 + 복주머니
1SET 3만원

TIP 백팔번뇌 파자비결에 있소이다!

갑골문자(甲骨文字)는 신석기 시대 점괘(占卦)를 기록한 점서로 한자의 모체가 되어 변(邊)과 획(劃)에 신통력이 있다. 바로 격암유록이나 정감록비결은 파자(破字)의 신통력으로 국운을 예지(叡智)한 예언서이다. 나라에는 흥망성쇠가 있고, 인생항로에는 길흉화복이 있으니 천부(天賦)의 계시로 신통력이 있는 백팔번뇌 파자비결(破字秘訣)을 보는 순간 여러분의 고통은 구름처럼 사라진다.

■ 계좌번호 : 우체국 011965-02-112777 (예금주 : 한영필)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 1길 16 정원아트하우스 2층 201호 / 전화 010-7742-3111 松岩 한영필 합장

오공아, 넌 왜 돌멩이에서 태어났니?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② 돌원숭이 태어나다

'꽃 열매 산' (花果山)이라고 아시는지?
하늘 땅이 처음 나뉜 아득한 그 옛날,
동승신주(東勝神洲) 바닷가의 오래국(傲來國).
뭐 거기가 어디냐구?
그대 집 싱크대 밑에 있는 나라라든가?
하여간 거기에 있는 화과산,
천하의 명산이라네.

그리고 그 꼭대기에 신령스런 바위 하나
둘레는 일년의 날수에 맞게 세(3)길 여섯(6)자 다섯(5)치,
높이는 24절기에 맞는 두길 네자… 기타 등등.
이상하고 신기한 구석이 한 둘이 아닌 이상한 바위….
그 바위가 오랜 동안 천지의 정기를 받아
알 하나를 깠단 말씀이야.

그 알이 부화되어 한 마리의 돌 원숭이가 되었는데,
바로 그 원숭이가 뒷 날 천하에 이름을 날리는 손오공.
그렇지만 아직은 평범한 돌 원숭이지.
아니 꼭 평범하지만은 않아….
날 때 눈에서 금빛 광채가 하늘까지 뻗쳐
옥황상제님을 놀래켰다 하니까.

허지만 그 광채는 음식을 먹으면서 감춰지고
그냥 평범하게 원숭이 무리에 끼어서
원숭이 짓 하면서 살게 되었지.
원숭이 같지 않은 이 돌 원숭이,
사람 닮은 이 돌 원숭이,
앞날이 어찌 될지 점 한 번 쳐 볼까나?

점 칠 필요 없다네.
오승은이 지었다는 서유기에 뒷 이야기 다 나오니까
궁금하면 읽어 보셔.
그게 귀찮으면 우리 이야기 계속 들으면 되지.
그건 더 귀찮다구?
어이구, 그대 같은 사람을 국제화시대의 언어로
'Ungujerable' 이라구 하는 거 알아?

남의 이야기가 아니야.
그대의 뿌리, 그대 마음의 정체를 밝히는 일이니까
꾹 참고 들어보시게!
모습만 사람이라고 다 사람인가?
사람다운 사람, 참 사람이 되는 것은
돌원숭이가 사람 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라네!

어떠세요? 혹 〈서유기〉를 아직 읽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신파조로 읊어 보았습니다. 좀 청승맞다고 흉보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한 수씩 읊조리고 가겠습니다.

흠. 오늘은 손오공의 출생 대목입니다. 우선 탄생축하 노래부터 불러줄까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이 험한 세상에 왜 태어났니."

부르고 보니 축하 노래가 아니구나. 전에 학생들이 이 노래를 생일 축하곡으로 장난스럽게 부르는 것을 보고 재미있게 생각했던 것이 무심코 나오고 말았습니다. 축하 노래라고 하기는 좀 염세적인 느낌이지만, 그래도 이 세상이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 또 나는 무었을 위해 생겨났을까를 묻는 것이 재미있지 않아요? 이태백은 "하늘이 나라는 존재를 낳았으니 반드시 쓸 데가 있으리라(天生我才必有用)"이라고 호기롭게 말했지만, 그렇게 말하는 뒷면에는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싶은 큰 갈망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가끔씩은 내가 있는 이유에 대하여 물어보는 마음을 갖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튼 이 세상에 나오게 된다는 것은 신비로운 일이죠. 옛날에는 성인이나 위인급에만 탄생이라는 말을 썼는데 요즘은 모두 탄생이라고 통일되었더군요. 아무튼 출생이든 탄생이든, 제가 좋아하는 우리말로 태어남이든 이 보다 더 놀랍고 신비한 일은 없겠죠? "없던 존재가 이 세상에 있게 된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없던 존재가 있게 된다' 는 말을 좀 씹어보면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없던 것이 갑자기 있게 되는 것 본 적이 있어요? 그런 일은 신의 창조 이야기에서나 가능한 것이죠. 모든 있는 것들은 어떤 모습으로 있던 것들이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있게 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보고 듣고 하는 세계에서는 그런 것 밖에 없어요. 닭이 생겨나게 되는 것은 없던 것이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계란 속에 있던 어떤 가능성이 현실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타나는 것뿐이죠. 섭씨 100도의 끓는 물이 있게 되기 위해서는 100도 이상의 어떤 것이 있어서 그것을 가열해야만 하는 거구요. 그렇다면 우리가 태어난다는 것도 없던 것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잠재되어 있던 가능성이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겠네요.

제가 기억하는 재미있는 코미디가 있어요. 제가 재미있다고 하는 것은 보통 좀 썰렁한 이야기지만 한번 또 여러분들을 시원하게 할 각오를 하고 풀어 놓아 보죠.

이미 작고한, 정말 신화시대의 코미디언 구봉서씨가 철학교수로 나왔어요. 강의 첫 시간, 강단에 서서 칠판에 '철학' 하고 쓰더니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은 철학이라는 것에 대해 아는가?" 하고 묻더군요. 학생들이 어리둥절하면서도 "잘 모르는데요"라고 말하자, 구봉서 교수 왈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철학을 가르쳐!" 하곤 휙 나가 버렸어요.

다음 시간에 들어와서 똑같은 질문을 던졌죠. 학생들은 전번에 황당하게 당한 기억이 있어 "예, 압니다!"고 했죠. 그러자 "다 아는데 뭘 가르쳐!"라고 나갔죠.

세 번째 시간, 똑같은 질문에 이제 학생들이 작전을 짜곤 몇 학생은 안다고 하고 몇 학생은 모른다고 했죠. 그러자 구봉서 교수, "그럼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가르쳐 줘!" 하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역시 썰렁했나요? 제가 썰렁하단 소리 들을 각오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데는 이유가 있으니까요. '안다' '모른다' 는 문제도 간단히 줄이면 '있음' 과 '없음' 의 문제거든요. 모른다는 것은 앎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알게 되면 없던 앎이 갑자기 생겨나는 것인가요? 없던 것이 있게 되는 것인가요? 어려운 한자로 말해 '무(無)' 에서 '유(有)' 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든 점이 있죠? 소크라테스의 산파술이라든가 플라톤의 상기설 같은 것은 이런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나온 것이지요. 알게 되는 것은 앎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뱃속에 있는 태아를 산파가 도와서 태어나도록 하듯이, 이미 가능성으로 지니고 있던 앎을 이끌어 내는 것이라는 거죠. 또 앎이란 인간이 본디 가지고 있었는데 잊었던 완전한 앎, 그것을 다시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모든 중생이 본디 부처라는 말도 같은 틀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구요.

없던 것이 있게 될 수는 없다면 여러분들은 태어나기 이전에 무엇이었냐는 겁니다. 몸뚱이는 엄마와 아빠의 결합에 의해 생겨난 것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럼 여러분의 정신, 또는 마음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몸뚱이가 생기면 정신은 그 몸뚱이의 작용으로 자연스럽게 있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믿어져요? 또 그렇게 믿고 싶어요? 아닐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몸뚱이 이상의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고, 또 우연하게 존재하게 된 것 만은 아닌, 무언가 꼭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서 있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아마 그래서 윤회설, 영혼불멸설 같은 것이 생겼을 거예요.

또 상당히 다른 이야기로 돌았나요? 우리 본래 이야기, 손오공의 태어남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이 돌원숭이의 태어남은 참으로 신비하네요. 화과산 정상의 신령스런 바위가 알을 까고, 그 알에서 나왔다? 보통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넌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 고 하잖아요? 저처럼 어릴 때부터 영특했던(?) 사람은 다리 밑에서 주어왔다고 하니까 뿌리를 찾겠다는 열망으로 그 다리 밑에 찾아 가겠다고 떼를 써서 어른들이 아주 혼이 났다더군요.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나니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는 말은 아마도 엄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엄마 다리 밑에서 주워온 사람들인 셈이죠.

그런데 이 손오공은 엄마가 없네요. 아니 있다면 돌맹이가 엄마? "불쌍해라. 돌멩이가 엄마라니"라고 동정하는 것은 우리들 입장에서이고, 이 돌맹이에서 태어난 자세한 이야기를 보면 이 돌원숭이야말로 정말 비보통(非普通) 돌원숭이라는 것이 생생하게 느껴지네요.

1년의 날 수와 24절기 등에 맞는 치수를 가진, 우주의 운행을 상징하는 돌멩이에서 태어났단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이 돌원숭이는 부모의 정기가 합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정기를 이어받은 그런 원숭이입니다. 나중에 이야기가 더 나아가면 알게 되겠지만, 이 돌원숭이는 앞에서 말한 인간의 몸뚱이에 깃들어 있는 마음, 그 어디서 온지 모르는 마음 또는 정신을 상징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 마음을 원숭이에 비유하는 것은 불교에 자주 등장하죠. 앞에서 잠깐 마음 원숭이 이야기를 했듯이, 망아지처럼 날뛰는 뜻과 원숭이처럼 나부대는 마음을 의마심원(意馬心猿)이라 하거든요. 일단은 그렇게 대충 이해하시고, 이젠 손오공을 단순한 원숭이로 보지 말고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오늘은 좀 심오한 이야기가 많았죠? 저 혼자 심오한 척 해서 듣는 청중 다 떨어질까 걱정도 되지만, 그래도 수준 높은 분들은 계속 이야기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계속 나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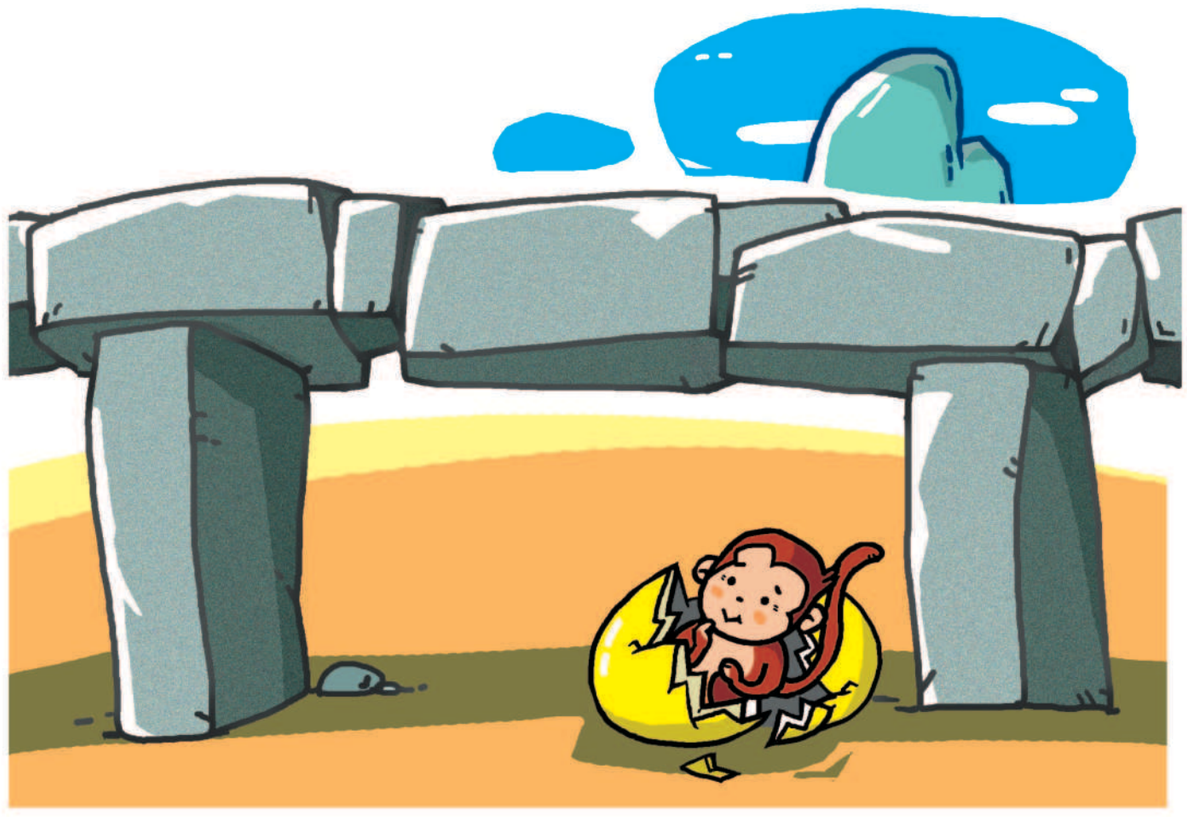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無에서 有로… 돌에서 태어난 손오공
오랜 천지 정기 받은 비범한 존재
어디서 비롯된지 모르는 마음과 유사
불교의 '의마심원' 비유 연상돼

손오공은 원숭이 아닌 '나의 마음'
마음찾고 불경찾는 이야기 사작합니다

※ 법화경 · 사경 ※ ※ 경전사경·사경지 ※



묘법연화경
할인가 28,000원(5권 이상)
정 가 40,000원(1권)



묘법연화경(우리말)
할인가 9,600원(20권 이상)
정 가 16,000원(1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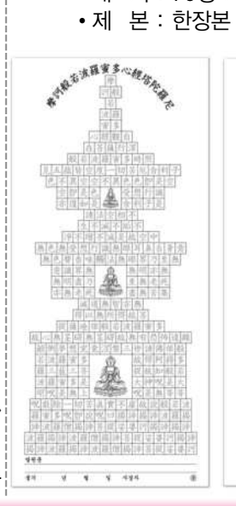
1호 반야심경(한문) 2호 금강경(한문) 3호 반야심경(한글) 4호 금강경(한글)
할인가 3,500원(50권 이상) 정 가 5,000원(1권)
• 내 지 : 70장 자연색메트지
• 제 본 : 한장본 실제본
• 표 지 : 레자크지 옵셋 4°
• 크 기 : 220㎜×310㎜





11호~17호 법화경(한문)1~7
할인가 4,200원(50권 이상)
정 가 6,000원(1권)
19호~25호 법화경(한글)1~7
할인가 3,500원(50권 이상)
정 가 5,000원(1권)

34호~40호 우리말법화경1~7
할인가 2,100원(50권 이상)
정 가 3,500원(1권)
묘법연화경사경공책 〈주문생산〉
정 가 5,000원(1권)
※칸만 그어져 있는 공책입니다







반야심경 탑사경
할인가 150원(500장 이상)
정 가 200원
• 구 성 : 한지낱장
• 크 기 : 636㎜×313㎜
• 종 류 : 한문,한글



영가옷 B형-남 정가 1,200원 영가옷 B형-여
영가옷 C형-남 정가 1,000원 영가옷 C형-여



수자영가옷 정가 800원



영가천도다라니 정가 1,000원



금강경탑다라니 정가 200원



예수재함A (50개 1박스)



예수재함B (50개 1박스)



종이신발(남/여) 1켤레
100개이상 할인가 1,300원
정 가 1,500원



한지접은 위패(대/중/소)/인쇄접은 위패(대/소)
※크기
• 대 6.5×24㎝
• 중 6×22㎝
• 소 5.3×18.3㎝
정 가 30,000원 / 30,000원 (100개)
할인가 @250원 / @250원 (1000개이상)



한지·인쇄접은영가옷(남/여)
※크기
• 15.5×19㎝
정 가 27,000원 (100벌)
할인가 @240원(1000벌이상)



금강호신경
1000조 @160원
대량주문시 전화주세요.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H.P 011-554-298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불교달력,서적,사경지,연등,염주,향,양초,다포,4.8용품,백중용품]

1천원으로 부처님 가르침 전하는 최상의 보시

교도소·군법당·병원 등 1321곳에 전달

"현대불교 통해 불교를 배우고, 부처님을 알아갑니다"



"보내주신 신문을 보고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덕분에 불교에 대한 지식도 많이 쌓아진 것 같아요. 무어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서 ○○씨 (충남 공주치료감호소)

"공장 식구들 중 불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법문을 돌려보며 신문 속 글자 한자 한자가 버릴 것 없이 유익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행스님의 법문을 읽고 가슴에 새기는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땅의 불국정토를 이루는데 현대불교신문이 초석이 되고 바탕이 되길 기원합니다."

우 ○○씨(전주교도소)

"군생활 동안 잠깐씩이나마 불교 기사를 접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이번에 제대를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 훌륭한 기사와 좋은 내용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대 후에도 현대불교신문을 구독할 예정입니다. 보다 많은 열정으로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김혁민 씨(5사단 장병)

"삶이 허망하다 느낄 때 법문 한구절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불교로 개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처님 가르침을 접하는데 신문 만한 것이 없습니다. 출소할 때까지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안 ○○씨(안양교도소)

1구좌 1천원으로 자비와 지혜의 법등 밝히세요

〈금강경〉에서 이르기를 "사구게 하나라도 남에게 일러주는 공덕이 삼천 대천 세계를 가득 채울 만큼의 칠보로써 보시한 공덕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물질적인 보시는 일시적이지만 법보시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무한한 공덕의 씨앗이 됩니다.

'현대불교' 는 소외된 이웃과 우리 사회를 지켜가는 분들에게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고자 군부대, 교도소, 양로원, 고아원, 병원 및 사회복지단체 등을 대상으로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 을 전개해 불국토를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815명의 법보시 후원자가 동참해 매주 1321부의 신문이 군장병 · 교도소 수형자 · 경찰 병원 등으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법보시된 신문은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한 명의 포교사이자 한 권의 경전이 될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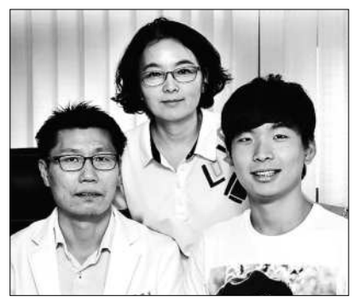
- **법보시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
- **법보시 계좌번호**: 국민은행 038-25-0008-365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법보시 문의 및 안내**: 현대불교신문 (02)2004-8200(대표), 8212(직통)

■ **법보시 발송처**

구분	발송처	발송부수	구분	발송처	발송부수
경찰	경찰서	168	복지단체	복지관련대학	30
	감별소	3		복지단체	46
	교도소	338		복지협의회	4
교화기관	교정청	3		부랑인복지	3
	구치소, 감호소	82		아동복지	23
	소년원	30		의료기관	97
군부대	군법당	399		장애인복지	10
	군병원	10		지역복지	20
병원	법당	13		청소년복지	10
복지단체	기업복지재단	6	합계	20건	1321
	노인복지	26			

"배운 것 나누는 삶 살고파"

매일 천 원씩 법보시한 백진구씨 가족



백진구씨 가족〈사진〉은 지난해 8월부터 매일 천 원씩 법보시를 해오고 있다. 매일 동전 한 닢 저금통에 넣는 것도 쉽지 않은 일, 백진구씨에게 하루마다 기부하는 이유를 물었다.

백 씨는 "하루에도 나는 수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그날 받은 것을 곧바로 회향하고 싶었다"며 "부처님께서 법보시가 가장 큰 공덕이라 하신 만큼 내 작은 기부로 많은 사람들이 신문에서 유익함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능인불교대 경전반을 시작으로 금강선원, 현재 봉은사에 이르기까지 20년간 불교대학을 거치며 교리를 공부했다는 백 씨는 "내가 계속 공부하는 것은 한 가지 이유다. 내가 가진 지식을 또 다른 이에게 나누고 싶은 마음뿐이다"고 전했다. 실제로 백 씨는 차 안에 금강경 서적이나 독경CD 등을 항상 소지하며 만나는 이들에게 베푸는 것을 즐긴다고 한다.

백 씨는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곳곳의 부처님들을 소개하는 '화엄만다라' 와 불교 기초 교리를 알려주는 '교리' 가 많은 도움이 됐다"며 "뜻을 이루면 궁극의 행복을 얻는 '행복바라밀' 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신문을 통해 유익함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gmail.com

현대불교 법보시 동참에 감사드립니다

강덕순 강명옥 강명자 강미지자 강민정 강석민 강수옥 강순희 강승례 강영내 강재훈 강주석 강황진 경연혜 고경옥 고한순 고현진 고희문 공평근 곽명순 곽순정 곽영석 곽은아 곽춘자 관음사 구암사 권경숙 권규열 권두상 권익중 권정화 권효심 금강사 금담스님 기림사 김겸재 김경숙 김경숙 김경희 김규순 김규연 김금순 김기석 김기홍 김길봉 김나령 김나연 김나영 김남규 김남숙 김다정 김동우 김명란 김명숙 김명순 김명희 김무재 김문윤 김미래 김미리 김미숙 김미연 김미연 김미원 김미향 김미희 김민규 김민성 김민주 김병호 김병희 김비연 김상권 김상분 김생곤 김석순 김선아 김선엽 김선예 김선옥 김성수 김수옥 김수혜 김숙희(2) 김순남 김순복 김순분 김순희 김승재 김승훈(2) 김신숙 김연수(2) 김영규 김영성 김영숙 김영식 김영애(2) 김영예 김영옥 김영자 김영재 김영팔 김영해 김옥선 김옥수 김옥순 김용만 김용순 김용호 김우기 김우선 김윤관 김윤성 김윤자 김은정 김은하 김은화 김의식 김인순 김인태 김일조 김장원 김재방 김재철 김재희 김정규 김정단 김정덕 김정란 김정렬 김정분 김정석 김정아 김정아 김정애 김정자 김정환 김정희 김제성 김종석 김종숙 김종영 김종환 김종희 김주일 김 준 김중석 김중철 김지숙 김지연 김지영 김진금 김진영 김찬수 김채란 김철수 김철종 김철희 김춘희 김태수 김태윤 김학수 김학표 김학현 김향숙 김현국 김현숙 김현신 김현화 김혜숙 김화일 김효상 김효찬 김희옥 김희자 김희주 김희진 나귀례 나민자 나민자 나연자 남선자 남순덕 남옥희 남정현 남주희 노덕현 노성일 노성희 노승현 노실호 노영애 노영준 논술문화 단영숙 달마대사 대광사 대성사 대지행 덕성월 도경례 도순련 도예린 도원스님 도이환 동명한의원 류지연 류진훈 류해창 묘연스님 무량사 무심사 무원주지스님 문경숙 문수홍 문숙희 문임숙 문점숙 문점숙 문정희 문태환 미륵사 민경애 민미자 민선재 민정원 박건웅 박경국 박경수 박경순 박경환 박경희 박공임 박기남 박기임 박나리 박남순 박말이야 박무주행 박미자 박미희 박민성 박봉균 박봉영 박상섭 박선동 박성택 박성희 박수경 박수영 박숙자 박숙희 박순자 박승목 박아름 박연신 박영미 박영숙(3) 박영애 박영준 박영춘 박옥경 박옥남 박용숙 박용애 박원규 박은경 박은미 박은주 박인서 박인서 박인숙 박인식 박일주 박장미 박재석 박재완 박정노 박정부 박정선 박정숙(2) 박정자(2) 박종림 박종임 박주호 박지연 박진우 박찬 박철순(2) 박철홍 박춘미 박춘봉 박태수 박한기 박향옥 박현동 박현주(2) 박형숙 박형채 박혜경 박혜리 박혜선 박화재 방명극 방명섭 방순자 방장수 방재순 방태균 배광자 배민화 배영숙 배정임 배현진 백규현 백근혁 백련사 백준혁 백진구 법응스님 법흥사 변영희 변용태 보경 보리암 보문스님 상현스님 서귀희 서미옥 서순옥 서영호 서예숙 서의숙 서정우 서정우 서청자 서춘건 서호준 석도법 석영수 석화영 선덕스님 설봉스님 성거사 성민자 성불사 성불사주지스님 성원스님 소충호 손기미 손종헌 송동호 송암스님 송연희 송용관 송은경 송정구 송종화 수원사 신경희 신남선 신덕근 신상균 신선희 신성민 신수영 신수호 신영찬 신용례 신재학 신조현 신주호 신지호 신창순 신희순 심경우 심광화 심길현 심영애(2) 심영자 심원식 심현보 안영옥 안영우 안영욱 안영자 안정은 안중희 안형준 안효진 약사암 양선희 양세욱 양순조 양연희 양영모 양영순(2) 양정자 양해근 양행선 양현주 양흥용 양희성 양희성 엄재욱(2) 엄지환 엄태영 염종희 영광사 오경란 오경환 오광자 오동근 오승훈 오신재 오용근 오재영 오정애 오지은 옥영식 옥천암 왕선자 용석천 용화사 우림사 우병선 우병수 우신지 우영계 우지예 우진궁 우춘자 원경스님 원옥리 위영란 유경자 유상재 유영미 유영순 유재기 유정숙 유지연 유지호 유태선 유태준 육성희 윤기홍 윤병덕(2) 윤복순 윤본숙 윤석범 윤수영 윤오인 윤월스님 윤정연 윤정일 윤종우 윤채남 윤향숙 윤현숙 윤희원 이강만 이강민 이강희 이건우 이경남 이경도 이경애 이광석 이광수 이광훈 이군자 이규달 이규영 이근기 이근혜 이기덕 이기승 이기탁 이기현 이기환 이나은 이낙영 이대섭 이대원성 이동건 이동격 이동준(2) 이동철 이란 이명수 이명숙 이명순 이명자 이명화 이명희 이미라 이미화 이민서 이보편 이복성 이복희 이산궁 이상묵 이상숙 이상은 이상춘 이상태 이석자 이석호 이성수 이수영 이수옥 이숙경 이순희 이승남 이여주 이연보 이연애 이영득 이영숙 이영순 이영애 이영자 이영희 이오택 이왕구 이왕진 이용법 이우순 이우윤 이우진 이원상 이원호 이원희 이유순 이윤희 이은정 이은희 이익수 이인숙 이재덕 이정남 이정민 이정순(2) 이정안 이정옥(2) 이정일 이정자 이정조 이종락 이종분 이종섭 이종옥 이종의 이종협 이중기 이지현(2) 이진선 이창우 이철헌 이춘근 이춘자(2) 이충선 이태경 이태홍 이태흥 이택희 이한희 이해 이해송 이향림 이향순 이현배 이형신 이혜경 이화자 이훈노 이희두 이희숙 이희자 이희정 일각스님 일광스님 일인 일진성 임미순 임연미 임연희 임옥빈 임용식 임원기 임재숙 임재철 임재환 임점순 임종구 임지숙 임창현 임춘희 임형준 임희석 자광사 장경희 장미숙 장미순 장미자 장성윤 장안사 장영숙 장영철 장재원 장현만 장혜선 장희숙 전계영 전등사 전명국 전미영 전병수 전상은 전소윤 전여정 전영한 전재호 정갑임 정경남 정금란 정길동 정동하 정륜스님 정명자 정몽겸 정미자 정암스님 정영수 정영신 정용수 정운경 정은영 정인순 정인자 정재평 정정애 정진스님 정창남 정천구 정태순 정하석 정학진 정해숙 정해순 정 혜 정혜숙 조공옥 조광천 조대영 조동제 조동조 조명순 조민규 조병조 조성준 조재규 조정해 조정희 조진한 조창희 조현정 주미숙 주정숙 주현순 지경애 지윤주 진동석 진명스님 진석범 진일스님 채은훈 천병길 천보사 천상봉 천영기 천주암 천지현심 청무스님 청운스님 청일스님 최갑식 최남희 최병락 최병진 최복순 최성균 최순옥 최순이 최아리 최영숙 최영숙 최용호 최윤희 최재순 최재원 최재윤 최재혁 최점자 최정기 최정미 최정선 최정유 최정희 최종열 최종원 최주선 최창숙 최철균 최태준 최현창 최흥권 최희숙 최희승 표경희 하기남 하미경 하미희 하삼란 하성미 하수연 하재한 하태선 학림사 한가람 한광호 한기영(2) 한기준 한동원 한마음선원강릉지원 한마음선원광명선원 한마음선원광주지원 한마음선원뉴욕지원 한마음선원대구지원 한마음선원목포지원 한마음선원문경지원 한마음선원부산지원 한마음선원안양본원 한마음선원울산지원 한마음선원제주지원 한마음선원중부경남지원 한마음선원진주지원 한마음선원청주지원 한마음선원캐나다지원 한마음선원통영지원 한마음선원포항지원 한세진 한승균 한승화 한영순 한윤진 한은섭 한인식 한정갑 한창훈 한효정 허남주 허명범 허미옥 허복영 허수자 허추자 허태환 혜각스님 혜륜스님 혜암스님 혜용스님 홍순 홍순혁 홍승덕 홍월자 홍인호 홍해의 화정스님 황경록 황경숙 황금영 황논철 황성미 황순희 황용숙 황인욱 황태숙 황향숙

불경 라디오 成佛

디자인,조작 upgade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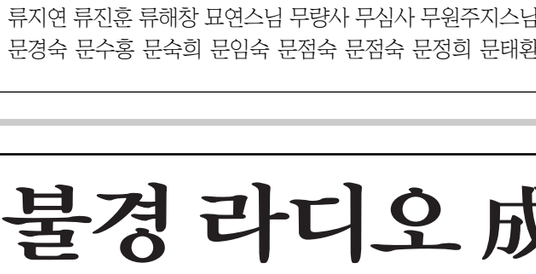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가요를 담은 SD 메모리도 재생이 가능합니다.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FM 버튼을 누르시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FM버튼을 누르고 계시면 자동 주파수 검색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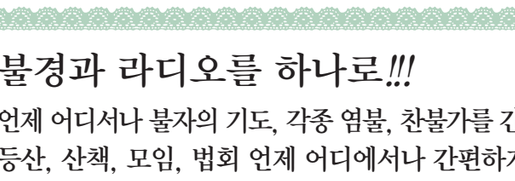
제품구성 성불라디오 (가로12cm × 세로5.7cm × 두께2.5cm) + 4GB불경SD카드 + 1200AM베터리 + USB충전케이블 + 충전아답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발송비 포함)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더욱 좋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약)

□ **정천의 삶을 위한 기도**
1. 불자의 기도
2. 아침의 기도
3. 가내 평안을 위한 기도
4. 병마 쾌유를 위한 기도
5. 명상음악
6.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도
7. 자녀을 위한 부모의 기도
8. 생일의 기도
9. 장엄 염불
10. 저녁의 기도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12. 빈손으로 왔다가
13. 사람을 쓸때는
14. 여름 벌레는 겨울이 있음을
15. 가난은 죄가 아니요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18. 향수를 바르면
19.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20. 일시에 분을 참으면

□ **항공스님의 염불시리즈**
21. 광명진언 1
22. 광명진언 2
23. 개경게
24. 지경공덕분
25. 예불문
26. 아산 혜원선사 발원문
27. 천수경
28. 반야심경
29. 화엄경 약찬게
30. 법성게
31. 참선곡
32. 우리말 반야심경
33. 관음정근

□ **찬 불 가**
34. 삼귀의
35. 찬양합니다
36. 예불가
37. 청법가
38. 불교의 노래
39. 새 법우 환영가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42. 사홍서원
43. 산회가
44. 관세음의 노래
45. 보현행원
46. 감로법을 전하자
47. 초파일의 노래
48. 마하반야의 노래
49. 성도제의 노래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51. 홀로 피는 연꽃
52. 관세음보살 1악장
53. 관세음보살 2악장
54. 개경게
55. 이상정멸분

현불샵 특가판매

편백나무 원목 경상(經床)

법회나, 경전강의, 개인기도 등
법당 및 가정에서 불자님들의 수행과 함께 합니다.

경상 (經床)

불교경전을 얹어놓고 읽는데 사용하는 책상. 법당과 가정에서 기도와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책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 자신은 물론 가족 모두가 불자가 되는 처음 시작하는 책상.



- 재 질 : **편백나무**
- 크 기 : W60㎝ × D40㎝ × H28㎝
- 특 징 : 고급 접이식 경첩을 고정하여 사용이 편리합니다.
- 가 격 : 개당 6만원
- 주 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4**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편백나무 경상


▶ 접은 상태


▶ 접이식 고급 경첩

옛 그림서 배우는 부처님 가르침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불자들은 왜 경전을 강독하고 사경을 할까? 불교 경전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힐링멘토' 들이 나타나는 현장에는 왜 사람들이 항상 넘칠까? 오랜 세월 인류의 갈증을 달래준 경전은 '뿌리 깊은 나무' 이자 '샘이 깊은 물' 이다. 저자는 초기 경전서 대승경전까지, 그리고 중국 경전까지 정독하며 삶의 지혜를 찾고 마음을 닦는다. 여기에 우리의 옛 그림이 동행해 세월의 맛을 더해준다.



옛 그림, 불법에 빠지다
조정육 지음
아트북스 펴냄
2만 2천원

경전공부는 마음공부다

저자는 경전을 통해 옛 그림을 만나고, 옛 그림을 통해 경전 이해에 깊이를 더한다. 그런데 이 이질적인 만남이 더없이 자연스럽다. 그것은 저자가 자신의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 경전과 옛 그림을 빌리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먼저 자신의 상처를 기꺼이 드러내 옛 그림에 빗대어 현재를 똑바로 바라보고, 불교 경전에 비춰 그 문제를 해결한다. 곧 별개의 것으로 보이는 세 이야기는 감쪽같이 한데 묶인다.

신변잡기적인 이야기로 자신을 드러낸 저자의 개인사는 분명 이 책의 추임새이다. 하지만 불교 경전과 옛 그림을 통해 흐트러진 자신을 바로 세우는 저자의 모습에 자꾸 마음이 간다. 온전히 내 길이 되도록, 이 길만이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행복해지는 길임을 깨닫게 해준다. 그래서 경전공부는 어디까지나 마음공부다.

옛 그림으로 만나는 부처님 가르침

이 책은 불법승(佛法僧) 삼보(三寶)에 맞춰 기획된 '옛 그림으로 배우는 불교이야기' 시리즈 중 두 번째인 '법(法)' 이다. 여기서 법이란 곧 '부처의 가르침' 을 말한다. 부처님은 서른다섯 살에 깨달음을 얻고 여든 살에 열반할 때까지, 긴 시간 동안 중생 구제를 위해 설법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삶의 아픔과 고통을 부처님께 물었고, 부처님은 그들에게 해탈과 열반의 해법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이는 팔만대장경이라는 방대한 내용으로 전해진다. 그런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는 경전을 통해 고스란히 배울 수 있다. 그러나 '불교 경전' 은 '성경' 에 비해 그 내용이나 구절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 기껏해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나 '옴 마니 반메훔' 등의 독송이 일반인에게 익숙한 정도다. 그마저도 단번에 그 뜻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언뜻 독송을 들어봤어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을 그저 듣고 넘길 뿐이다. 경전의 이야기 안에 진리가 있고, 그것이 현재 내 삶과 관계가 있음에도 말이다.

"경전 한 구절로 경전 전체를 다 설명할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바닷물이 짜다는 것을 알기 위해 바닷물 전체를 들이마실 필요는 없다. 한 스푼의 바닷물을 맛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책은 한 스푼의 바닷물이다."

그렇다. 이 책으로 부처님이 설법한 모든 말씀을 전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언어로는 도저히 전할 수 없는 살아 있는 깨달음을 전하기 위해, 수많은 이야기가 결집된 경전의 숨은 참뜻을 전하기 위해, 저자는 산수화, 인물화, 풍속화, 사군자, 병풍화 등 옛 그림과 자신의 이야기를 곁들여 경전의 이해를 돕는다. 경전을 알면 곧 부처님 가르침도 알게 된다. '현재' 를 사는 우리에게 저자는 자신의 삶과 경전 이야기를 빗대보기도 하고, 부처님 가르침과 옛 그림을 연결해 그 뜻을 전하기도 한다. 때로는 옛 그림에 자신을 투영해 삶의 지침으로 삼을 만한 바른 법이 무엇인지 질문한다. 여기서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인 법보의

불법승 삼보시리즈 중 두번째 기획
팔만대장경과 옛 그림의 절묘한 만남
옛 그림 감상법 풍부하게 확장
육바라밀에 맞춰 6개로 분류 구성

참된 의미를 엿볼 수 있다. 저자 개인사를 통해 듣는 경전과 옛 그림 이야기는 곧 나 자신의 이야기가 된다.

"팔만대장경에 담긴 설법이 모두 방편이다. 상대방의 근기(根機)에 맞게 대기설법(對機說法)을 했기 때문이다. 방편은 본질이 아니다. 사물을 비춰주는 거울이다. 본질은 아니되 본질을 찾게 해준다. 우리는 다만 거울에 비친 사 물에 머물지 않고 거울을 찾기만 하면 된다. 책을 읽는 내내 거울을 잊지 않기를 당부드린다."

옛 그림으로 시작하는 마음 수련

삶의 이야기를 옛 그림이란 소재로 녹여 인생의 지혜와 가르침을 전한 저자는 오랫동안 동양의 정신과 사상을 알리는 강의와 집필에 전념하고 있다.

또한, 불법승 삼보에 빠져 꾸준히 불교 공부에 정진했다. 그런 저자가 꼽은 팔만대장경의 대표적 구절과 옛 그림의 만남은 생경한 조화임과 동시에 '옛 그림 감상법' 을 풍부하게 확장한다.

예를들면 〈잡아함경〉 구절과 김홍도의 〈노승염송〉 연결 부분에서는 "옷의 앞부분에 진한 먹을 칠함으로써 회색 장삼 위에 적갈색 가사를 입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가슴까지 올린 두 손에 힘이 들어가 있음을 암시해준다." 며 붓 끝에 담긴 상황을 세심하게 읽어 준다. 또한 그림에 삽입된 "입으로는 갠지스 강의 모래알처럼 끝없이 염불하네(口誦恒阿沙復沙)" 라는 글귀는 자연스럽게 불자 김홍도의 이야기로 이어진다.

"그는 고난에 찬 삶을 염불로 승화시켰다. "갠지스 강의 모래알처럼 끝없이 염불" 하면서 자신에게 드리워진 어둠과 칙칙함을 작품으로 승화시켰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처지가 행복하고 즐거울 때 신심이 우러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무 문제가 없으면 신심을 내기 어렵다. 모든 것이 다 잘되는 줄 알고 느슨해지기 마련이다. 작년에 고무나무가 시들지 않았으면 나 또한 분갈이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중략) 나무를 돌보듯 자주 자신을 살펴야 한다. '백천만겁난조우' 한 불법을 만났으면 불법의 나무가 잘 자라도록 가꾸어야 한다."

다시 김홍도에 대한 이야기는 저절로 저자의 일상과 맥이 닿는다. 그저 단순한 사실만으로 불법을 일반화하는 것이 아닌 저자의 구체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한다. 이런 저자의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옛 그림과 부처의 가르침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더불어 과거의 이야기가 우리의 현재와 무관하지 않음을 알아차리게 한다.

〈중아함경〉과 정선의 〈섬농〉, 〈반야심경〉과 장승업의 〈태평항해도〉, 〈법화경〉과 이인문의 〈연정수업〉, 〈화엄경〉과 이명기의 〈송하독서도〉, 〈보현행원품〉과 장한종의 〈책거리 그림〉, 〈승만경〉과 신윤복의 〈문종심사〉, 〈사십이장경〉과 강희안의 〈고사관수도〉, 〈능가경〉과 이인상의 〈검선도〉등의 이야기도 역시 주제에 따라 저자의 개인사와 옛 그림, 부처의 가르침이 서로 넘나들며 연결돼 있다. 이는 부처가 답한 가르침이 그저 경전에 머물지 않고 온전히 내 길이 되도록 해야 함을, 그것이 스스로 행복해지는 길임을, 나아가 함께 읽고 나누는 기쁨에 대해 설파해 준다.

삶 속에 함께 있는 '불법승' 시리즈

'옛 그림으로 배우는 불교이야기' 시리즈는 옛 그림과 불교의 동행을 통해 삶의 지혜를 찾는 야심찬 기획물이다. 첫 번째 책인 〈옛 그림, 불교에 빠지다– '불(佛)' 〉편에서는 부처의 위대한 생애와 발자취를 따라가되, "부처 생애의 요약본" 으로 통하는 〈팔상도(八相圖)〉의 형식을 빌려 옛 그림과 지은이의 개인사를 버무린다. 그것은 단순한 부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며, 우리 삶을 되돌아보게 만든다. 두 번째 책인 이번 '법(法)' 편에서는 부처의 가르침이 담긴 경전을 탐독하되, 전체 구성을 육바라밀에 맞춰 여섯 개의 장으로 분류했다. 육바라밀은 보살이 생사 고해를 뛰어넘어 열반에 이를 수 있게 한 여섯 가지 기초적 수행 덕목으로, 수행자라면 누구든 지켜야 하는 계율이자 의무다. 이를 통해 행복하게 사는 법을 찾아본다. 앞으로 나올 세 번째 책 '승(僧)' 편에서는 석가모니 부처의 10대 제자와 역대 조사들의 발자취를 통해 삶의 지혜를 만날 계획이다.

행복하려면… 타인 존중, 탐욕 버려라

행복하고 행복하고 행복하라

사진 이영자 | 운주사 펴냄 | 1만 5천원



20여년 동안 인도 다람살라서 달라이 라마의 가르침을 받으며 수행한 사진작가가 그동안 찍은 달라이 라마와 티베트인들의 모습을 모아 엮은 책이다. 달라이 라마의 활동과 일상의 모습, 티벳인들의 삶과 수행의 모습, 다람살라의 풍경 등을 카메라에 담아온 작가가 그중 일부를 뽑고, 여기에 달라이 라마의 어록을 함께 수록하여 엮었다.

달라이 라마는 관용, 용서, 화해, 자비, 공존, 감사, 소박, 평화의 아이콘이다. 그의 가르침은 현대사회의 질곡과 현대인들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따스한 햇살이다. 그는 티베트의 불교 지도자지만 그의 가르침은 종교와 지역, 세대를 뛰어넘는다. 그것은 그의 가르침과 행동이 인류 보편의 가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그의 행보 하나하나는 세계적인 관심사이며,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세계인에게 영향을 끼친다. 이 책은 130여 컷의 사진과 달라이 라마의 어록으로 꾸며졌다.

달라이 라마의 트레이드마크인 특유의 미소는 온 세상의 불안과 근심을 씻어주고 모든 중생의 아픔을 달래주는 포근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 슬며시 미소 짓고 있는 모습에서는 인자한 할아버지를 연상하게 되기도 한다. 때로, 피곤에 지친 모습은 연민을 느끼게 하고, 하품을 하고 있는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슬며시 미소짓게 한다. 법문 하는 모습에서는 경건함을 느끼게 하는 반면, 익살스럽고 천진난만한 모습에서는 편안함을 느끼게 해준다.

이처럼 달라이 라마의 다양한 표정과 몸짓 하나하나에서 삶의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다. 사진과 함께 엮은 어록은, 달라이 라마의 수많은 가르침 중에서 간결하면서도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은 것들을 간추린 일종의 잠언들로, 가급적 사진의 분위기와 어울리는 말씀들을 함께 엮었다. 익히 알려진 것처럼, 달라이 라마의 가르침은 쉽고 직접적이다. 그는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누구라도 알기 쉽게 불법의 진리를 전하고, 삶의 지혜를 일깨운다. 때문에 단순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그의 가르침은 종교와 지역, 세대를 뛰어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과 감동을 준다.

모든 존재들의 소중함과 가치를 생각하게 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탐욕을 버리고 자비와 연민의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일깨우는 그의 가르침은, 세속적 질서와 사고에 물든 우리들의 영혼에 청량한 자극을 준다. 또한 평범한

달라이라마관련 130여 컷 사진과 어록 수록
지혜, 감사, 관용, 용서, 평화 등 다양한 주제

듯하지만 존재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 그의 가르침은 우리 삶을 되돌아보게 하고,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 성찰하게 한다. 우리 모두는 행복을 원하고, 그 행복을 위해 힘껏 달려가고 있지만, 실상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 않다. 이것은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행복의 내용과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반증한다. 결국 물질, 경쟁, 채움, 지배, 소유 중심의 관계에서는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반면 달라이 라마는 자비, 지혜, 감사, 관용, 용서, 평화, 믿음 등을 통해 행복을 찾으라고 말한다. 종교적 도그마가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을 울리는 그의 삶과 가르침에서 진정한 행복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일 기자

치매 앓는 부모 소재의 수필 10여 편 '감동'

나는 늙지 않는다

김삼진 지음 | 북인 펴냄 | 1만 2천원



김삼진 작가는 '글의 재미' 가 무엇이며 어떤 지점에서 독자가 감동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듯하다. 그는 자신의 수필 속에서 자기를 완전히 망가뜨리면서까지 쾌활한 웃음을 주는 참신한 실험정신으로 무장했다. 그의 이런 글은 아마도 범상치 않은 이력서 우러나온 듯 하다. 그는 성균관대서 중국문학을 공부했고, IMF 즈음에 유행처럼 번진 감원을 하기 싫었던 고위직서 스스로 물러나 퇴사했다. 이후 개인사업을 했다가 5년 만에 망하고 산 속 오두막서 5년간 칩거 했다. 그 후 노량진의 한 고시원서 또 5년 동안 총무 일을 하다가, 지난해 초부터 경기도 하남시서 치매를 앓는 99세 부친과 94세 모친을 모시고 있다. 얼핏 들어도 힘들었겠구나 생각되는 굴곡진 삶 이었다. 이 무렵 그는 고령화시대를 맞은 시대 상황과 치매를 앓는 구순의 부모님과의 생활서 얻은 소재로 10여 편의 수필을 발표했다. 글을 통해 독자를 감동의 바다로 몰고 가며 또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산책길서 만난 정겨운 부자(父子)의 모습을 보고 불현듯 치매를 앓는 아버지가 떠올라 하남시 본가로 달려가 똑같은 일을 하는 〈아버지의 산책〉, 낯선 동네의 20층 큰아들 아파트에 갇힌 듯 살던 부모님이 성당 미사 참석을 핑계로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는 하남의 집으로 되돌아오는 과정을 그린 〈탈출〉, 70평생 함께 산 아내에게 치매를 앓는 아버지가 당신의 아내를 연로한 어머니로 착각하고 '장가 보내달라' 며 애원하는 〈장가타령〉 등이 그러한 작품이다.

표제작으로 내세운 〈나는 늙지 않는다〉는 작가가 지금, 이 시점에 하고 싶은 말이 모두 담겨 있다. 세상에 늙지 않는 사람이 과연 어디있을까? 책 제목만 봐서는 저자의 바람일

저자, 자신이 늙으면 안되는 몸부림 내재
연로한 부모님 봉양이 가장 큰 이유

까 생각할 수 있지만 책을 읽다보면 자신은 늙으면 안 된다는 강한 몸부림이 내재돼 있음을 알 수 있다. 도망치는 젊음이 안타까워서가 아니라 치매를 앓지만 아직도 정정한 부모님을 계속 모셔야 하기에 그는 아직 늙을 수 없다는 것이다. 세월의 무게를 누가 이길까 마는 김삼진 작가는 정말 늙지 않길 발원한다. 건강해야 그의 바람대로 부모님을 모실 수 있지 않은가. 부모님은 살아계시다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큰 의지처이고 축복이기에 말이다.

김주일 기자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영산재 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 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前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 (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은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설법전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 ~ 8:30**
■ 수강대상 : (1)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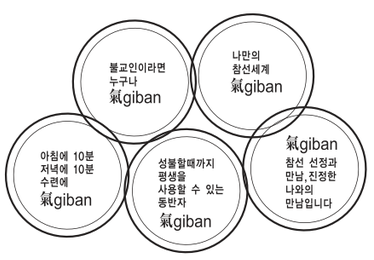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www.hyunbulshop.com

뇌과학과 불교와의 접점 모색한다

동국대와 중앙승가대, 5월 30일 '불교와 뇌과학' 세미나

동양 정신문화의 정수로 손꼽히는 '명상'의 과학적 접근과 연구는 아이러니하게도 서구학계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다. '뇌과학'으로 대변되는 명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의 저변에는 서구 물질만능주의에 따른 정신적 가치의 하락, 그에 따른 동양에 대한 호기심과 명상을 통한 내면적 성찰 등 복합적 요소가 담겨 있었다.

이런 학계의 흐름 속에 종립학교인 동국대와 중앙승가대가 힘을 모아 불교의 명상과 뇌과학의 접점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번 세미나는 아시아 주요대학의 석학들이 참여해 그동안의 연구업적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김종욱)과 중앙승가대 산학협력단이 봉축기념 학술세미나로 5월 30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하는 '불교와 뇌과학' 세미나에서는 불교의 명상과 깨달음 등을 뇌과학의 관점에서 조명하는 본격적인 시도란 점에서 고무적이다.

먼저 △김성철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과 교수의 '불교와 뇌과학으로 조명한 자아와 무아' 발표가 진행된다. 김성철 교수의 경우 진화생물학, 뇌과학에 대한 불교학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며 최근 뇌파연구를 위한 기계 등을 개발하기도 했다.

이어 △김현구 전남대 철학과 교수의 '분별에 관한 인지언어학적 접근' △최종남 중앙승가대 불교학부 교수의 '유식사상과 뇌과학에 관한 연구' △구마노 히로아키 일본 와세다대 뇌과학연구소장의 '마음챙김 명상을 통한 심리치료의 뇌과학적 이해' △위에지엔동 중국 중산대 철학연구소장의 '뇌과학 연구에 대한 선수행 관점에서의 성찰' 등이 발표된다.

논문 발표가 끝난 뒤에는 김종욱 불교문화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김종욱 불교문화연구원장은 "서양에서는

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한 · 중 · 일 석학 5명 주제발표
선수행 등의 과학적 연구 공개

종교를 과학적 연구대상으로 하는 종교학이 태동되면서 종교 체험 그 자체에 대한 연구문제가 대두됐다.

그러나 체험이라는 요소가 가지는 주관적 특성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설명과 기준 제시의 불명료성 때문에 연구가 그리 활발하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라며 "근래 들어 뇌파 및 뇌영상 촬영기술이 급속도로 발전을 이루면서 뇌과학, 혹은 신경과학, 인지과학 분야에서 종교적 신비체험, 선(禪) 체험 등을 하는 인간의 뇌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연구가 신속히 활성화되고 있는 중"이라고 소개했다.

김 원장은 "불교와 뇌과학은 공히 동일한 주제, 즉 마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의미가 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존재 행위는 우리에게 뇌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마음'이라고 지칭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며 "불교를 흔히 '마음공부'라 지칭하기에 뇌를 연구하는 것은 곧 우리의 마음을 공부하는 것으로, 불교를 연구하는 한 방법이 된다. 그런 점에서 이번 학술대회는 큰 의미를 지닐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담장과 꿀뚝으로 만나는 사찰 풍경

5월 29일~6월 27일 고산문화센터서… 27점 선보여



심상사진동우회가 제26회 사진전을 연다. 작품은 강진형의 지리산 화엄사의 담장

심상사진동우회가 제26회 사진전을 서울 종로구 계동에 위치한 고산문화센터에서 5월 29일 ~ 6월 27일 연다.

이번 전시에서는 사찰 내 담장과 굴뚝을 주제로 27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작품은 그동안 대중들에게 주목 받지 못하는 굴뚝과 담장이 가지는 여러 선들의 모습들을 보여준다. 심상은 "굴뚝은 이제 거의 제 기능을 하고 있지 않지만 아직도 절 한 쪽에 남아 옛날의 정취를 느끼게 해준다. 또한 담장은 사찰의 영역을 지켜주는 중요한 구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지 않는다. 이런 사찰의 소소한 풍경들을 앵글에 담아 보았다"며 취지를 설명한다.

또한, 심상은 6월 29일~7월 5일 청계천 광교갤러리에서도 전시를 연다.

정혜숙 기자

한국 선묵화 근현대 흐름 한눈에

5월 28일~6월 3일 백악미술관서… 동성 스님 등 35점 전시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 선묵화의 흐름을 한눈에 보여준다. 작품은 동성 스님의 선화

(사)한국불교문화예술인협회(대표 동성)는 선종미술의 일맥인 선묵과 선화의 근현대 역사를 조명하는 '한국의 선묵화 근현대 흐름전'을 개최한다. 5월 28일~6월 3일 서울 인사동 백악미술관 2층에서 개최하는 이번 전시회에는 경봉 스님, 석주 스님, 서옹 스님, 성륜 스님 동성 스님 등 20명의 스님 작품에 오제봉, 이명우, 석도륜 작가 등이 참여 총35점의 작품이 선보인다.

(사)한국불교문화예술인협회 대표 동성 스님은 "이제 불교는 인류화합과 세계평화를 위해 새로운 활로를 열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요구받고 있다. 기존의 양식을 벗어나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나아가는 진정한 양식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 대안을 불교의 문화와 예술에서 찾고자 한다"며 전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이번 전시를 통해 대중들이 한국의 선묵, 선화에 대한 근현대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한편, (사)한국불교문화예술인협회는 한국불교문화예술의 위상과 정통성을 확보하는 대중적 역량을 결집하고, 불교문화의 학적토대를 확대하고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창립됐다. 각종 연구사업, 학술발표, 세미나, 창작활동, 작품발표, 전시회 등은 물론 인류와 세계가 희망하는 새로운 삶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단체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선암사 승선교 등 도자화로 펼쳐

오만철 초대전 아라아트센터 6월 2일까지

국내 첫 '도화작가'라는 타이틀이 붙은 오만철 작가의 초대전이 6월 2일까지 서울 인사동 아라아트센터에서 열린다. '흙과 불의 사랑은 얼마나 눈부신가'라는 주제로 55점의 작품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전북 진안 마이산의 사계절은 물론 선암사 승선교, 티베트의 풍경 등을 도자기 위에 그림으로 펼쳤다.

작가는 홍익대 미술대학 동양화과를 졸업하고, 단국대 대학원에서 도예를 전공, 도자기 또는 도자기판에 그림을 그려 이색적인 느낌을 전달한다. 백자도판에 흰 눈이 소복이 쌓인 마이산 절경을 그려 꿈속에서 만날 수 있을 법한 환상적인 느낌을 주고, 앙상한 가지마다 눈꽃이 핀 설악산의 겨울 풍경은 정갈하고 단백하다. 진달래의 분홍빛으로 물든 백자도판의 봄 풍경은 따뜻함과 순수함이 가득하여 당장 봄 마중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될것 같은 설레임을 준다. 전국의 산, 들, 강, 바위, 나무, 야생화, 소나무 등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자연을 동양화풍으로 백자도판에 그려 넣었다. 화선지 위의 동양화에 익숙한 관람객은 매끈하고 깔끔한 백자도판에 수놓은 한 폭의 산수에 지친 심신을 정화할 수 있다.

오 작가는 "스케치를 다니면 산중에 산사를 많이 다녔다. 히말라야 티베트 라다크 쪽 여행도 작품에 반영했다. 선암사 승선교 광양 매화마을 등은 인상 깊은 곳이었다. 회화를 도자기로 풀어내는 작업으로 도판에 그림을 그려서 구워내는데 고난위도의 작업이다. 번짐의 느낌까지도 도자 작업으로 표현해낼 때 희열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오만철 작가의 초대전이 6월 2일까지 서울 인사동 아라아트센터에서 열린다. 작품은 선암사의 승선교를 도자화로 옮겼다.

도자 위에 산수화로 장르 개척
산사의 자연으로 '힐링' 전해

작가의 작품은 철화자기가 대부분으로 불과 철의 조화를 극적으로 표현, 깊이 있고 묵직한 향기의 도화작품이 만들어진다. 가마 속 온도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철성분의 염료가 백자도판에 아름다운 이미지를 남긴다.

자연을 작가의 눈으로 바라보고, 간결하면서 일필휘지(一筆揮之)의 힘으로 춤추듯 그려낸 우리의 산수(山水)는 도화작품으로 재해석해 관람객들의 눈을 즐겁게 할 것이다. (02)733-1981

정혜숙 기자

찬불가 열창대회 13개팀 열띤 경합

좋은벗 풍경소리가 주최하는 2015 찬불가 열창대회가 5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렸다. 이번 본선에는 5월 15일 예선전을 거친 13개 팀이 참가해 열띤 경합을 펼쳤다.

참가팀은 △강수혁 이광호(수원사) △곽대원 박경순(정각원) △곽명옥(조계사) △박미영 외 3인(여래사) △심정민(개운사) △작은바람(용화사,월인사,석림사) △장영심(대관음사 서울도량) △정효성(조계사) △이정희(장안사) △이재섭(각원사) △이영숙(여래사) △이해련(청련암) △로터스 코러스(능인선원) 등이다.

좋은벗 풍경소리 이종만 기획실장은 "예선전에 참여한 20팀 중 13팀을 뽑았다. 너무나 실력이 쟁쟁해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참여했고 포크송에서 전형적인 가곡 또 가요까지 다양한 스타일의 찬불가를 보여주었다. 첫 행사치고 너무도 만족스러웠고 향후 연중 행사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정혜숙 기자

불교중앙박물관 불전 장엄전 개막

불교중앙박물관 2015년 특별전 '불전장엄(佛殿莊嚴), 붉고 푸른 장엄의 세계' 전시 개막식이 5월 14일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열렸다.

불전을 장엄하는 다양한 장엄구들을 정리하고 의미를 새겨보는 자리로 마련된 이번 전시는 현존하는 조선 전기의 유일한 불교 패인 안성 칠장사 원패, 뛰어난 자수기법이 확인되는 순천 선암사 용문자수탁의 등 보물 7점, 전체 143점의 불전장엄관련 성보들을 한 자리에 모았다.



전시는 8월 16일까지다. (02)2011-1960

정혜숙 기자

불교용품 전문·고급 연등·봉축 현수막

2015 연등 특별공급 (한정분)
모든 연등 8cm 기준 전국 어느 상점에서나 3,000원에 구입 할 수 있습니다.

▶연등 및 각종 전선, LED 전구
▶세로거치형 현수막
▶종이등표
▶종이주름등
▶봉축 리본
▶지하철현수막
▶어깨띠
▶법보시 염주
▶비닐만월등(연꽃/일반)
▶봉축현수막
▶가야자비연등 · 가야자비연등 6cm 줄등용
▶차걸이 · 연꽃차걸이/광명등연꽃차걸이
▶고급 칼라연등 : 진분홍, 연분홍, 보라, 다홍, 오렌지 8cm
▶설화등 : 다홍, 연분홍, 진분홍, 오렌지, 보라 8cm
▶가야 궁단등 : 연분홍, 오렌지, 진분홍, 다홍, 보라 8cm
*궁단/실크/수입사등 : 진분홍, 개방형(오렌지), 밀폐형(다홍) 8cm
*황금등 : 8cm
*자비연등 : 8cm

불교장엄용품전문 가야기획
※가까운 유명 불교용품점에서 상담하십시오.

美 불교,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엘 쉬, "화해 · 모금 · 명상 등에 관심 가져야"

'Huffington Post' 지에 기고 … '타 종교 비교해 모금 가장 취약'

미국에서 불교는 더 이상 '먼 나라 종교'가 아니다. 명상에 쏟아지는 관심 같지는 않지만, '이민자 중심 불교'에서 '미국인 중심 불교'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점만큼은 확실하다. 그렇다면 미국 불교계가 이런 상황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Huffington Post'지는 예엘 쉬(Yael Shy) 글로벌종교생활(Global Spiritual Life) 이사의 글을 게재, "미국 불교계는 사회 문제에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것을 해소하려는 대화의 장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또한 사회 구성원과의 직접적이고 역동적인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예일 이사는 '인종차별주의'에 대한 미국 불교계의 관심에 힘을 더하는 한편 다른 사회 문제를 비롯해 '명상' '모금' 등의 분야에서의 노력을 요구했다.

"미국에서 퍼거슨, 스태튼 섬, 볼티모어 하면 떠올리는 게 '인종차별 사건'으로 지금까지도 적잖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목한 예엘 이사는 "다행스럽게도 미국 불교계는 '인종차별 문제'를 간과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 불교계는 미국의 그릇된 역사관과 제도에 뿌리를 둔 '특권적 우월주의'와 '관성적 인종차별'에 제동을 걸며 적극적인 토론의 장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Library Journal'지가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불자'로 꼽힌 교토 윌리엄(Kyodo William) 법사는 현재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을 초청, '다름'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02년 '흑인으로 산다는 것(Being Black)'(2002)을 출간해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오른 교토 법사의 강연에는 항상 청중이 가득하다.

"우리는 항상 진정성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바로 보아야 한다"고 매 강연마다 강조한 교토 법사는 "명상은 그것을 방해하는 장벽이나 장애물을 치우는 과정"이라며 "이를 통해 "인종 차별이라는 구태를 벗고, 이와 맞서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밖에도 브루클린선센터(Brooklyn Zen Center), 뉴욕명상센터(New York Insight Meditation Center)를 비롯해 많은 불교공동체가 '인종차별 않기', '정의로운 행동' 등을 주제로 모임을 속속 개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에서 불교의 사회적 위상은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강화되고 있다"고 강조한 예일 이사는 "불교는 '다른 사람이 자유로울 때 비로소 내 자신도 자유롭다'는 상호공존의 가치로 권력이나 특권에 함몰되어 있는 미국인의 생각을 일깨우고 있다"며 "이는 우리가 망상, 탐욕, 증오, 고통에서 벗어나고, 마음의 눈을 뜨고 부조리에 용기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글로벌종교생활(Global Spiritual Life) 예엘 쉬(Yael Shy) 이사는 'Huffington Post'를 통해 "미국 불교계는 사회 문제에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것을 해소하려는 대화의 장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명상 · 모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은 뉴욕명상센터에서 명상 중인 모습

그러나 '명상'과 '모금'과 관련해서는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미국 불교계의 눈에 띄는 성과는 단연 명상이다. 사람들 사이에서 "명상 관련 글을 읽지 않고 한 주를 보내기 힘들다"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다. 명상 관련 글이며 광고가 매스미디어의 수많은 코너 중 어김이 한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명상이 이제 '주류 문화'로 대접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여파가 심상치 않다. 불교계 내부에서 '명상이 세속적이거나 상업적인 형태로 사람들에게 다가서고 있다'고 비판하는 측과 '그렇지 않다'고 옹호하는 측이 갑론을박하고 있다. '비판하는 측'은 대부분 독실한 불교도로 그 불만 역시 만만치 않다. 그들은 "단순히 소비자로서 명상을 시작한 사람들의 변덕과 취향에 맞춰 명상을 재단하고 가공하는 일이 빈번하다"며 "이는 명상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반면 '옹호하는 측'의 입장은 다르다. 그 중심에 ABC 방송사의 '나이트라인(Nightline)' 진행자인 댄 해리스(Dan Harris) 앵커가 있다. 그는 "명상은 치유를 향한 차세대 혁명"이라고 말하고 "명상 지도자들은 이 혁명을 더욱 키우기 위해 불교를 대중의 눈높이로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에 대해 예엘 이사는 "명상의 상업화가 불교의 세속화를 부추길 수는 있지만, 그 긍정적인 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상업화나 세속화의 방향을 가다듬고 일명 '캐주얼 명상'이라는 사람들이 쉽게 다가설 수 있는 명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명상 지도자들이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금' 역시 미국 불교계에서 만만한 문제가 아니다. 예엘 이사는 "미국 불교계 재정 자립도는 아직까지 다른 종교와 비교해 가장 취약한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이는 불교공동체의 재정이 미약하다는 뜻이기도 하고, 불교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모금 관련 자료를 분석해보면, 기독교 관련 기금은 총 3,371개, 유대교 관련 기금은 3,852개로 추산된 반면 불교 관련 기금은 39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즉, 미국 불교계가 재정 마련을 위해 전통적 '보시'가 아닌 새로운 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불교가 태국이나 일본처럼 수백여 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면 '보시'로도 충분한 재정을 마련할 수 있겠지만, 미국에서의 상황은 다르다.

이에 대해 예엘 이사는 린 트위스트(Lynn Twist, Soul of Money Institute 대표) 법사의 '모금 패러다임의 변화' 주장에 귀를 기울인다. 이 주장에 따르면 '기부란 사회 재원의 재분배'이다.

"관대와 기부는 '완전한 마음'의 한 형태"라고 주목한 예일 이사는 "불교계의 모금 전략이 보다 미국적인 모습을 띨 때, 미국 불교계는 미래를 준비하는 힘을 키우고 또 깊은 가치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슈안레이 스님, 中 · 印 친교 기원

모디 총리에게 그림 2점 선물

중국 불교계가 중국과 인도 양국의 친교 다지기에 나섰다.

'Mail Online'지는 "중국 산시성의 슈안레이(Xuanlei) 스님이 지난 14일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에게 양국의 친교를 기원하는 그림 2장을 선물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에서 출가했고, 인도에서 공부했다"고 자신을 소개한 슈안레이 스님은 "두 나라의 불교는 '밀교'를 정점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며 "밀교 수행자로서 중국과 인도의 친교에 한 몫을 담당하고 싶었다"고 모디 총리에게 그림을 선물한 이유를 밝혔다.

'Mail Online'지에 따르면 슈안레이 스님이 모디 총리의 방중 두 달 전부터 제자와 함께 그린 그림 2점 가운데 1점은 용(중국 상징)과 코끼리(인도 상징)의 만남이라는 모티브를 배경으로 시진핑 주석과 모디 총리가 다정히 악수하는 모습을 담았다. 나머지 1점은 모디 총리가 중국 첫 방문지로 시진핑 주석의 고향 산시성을 선택한 것에 대한 답례로 '소나무와 대나무를 배경으로 서 있는 모디 총리'의 초상을 담았다.


중국 산시성의 슈안레이 스님은 지난 14일 중국을 방문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에게 양국의 친교를 기원하는 그림 2장을 선물했다.

"용과 코끼리를 배경으로 삼은 그림은 중국과 인도의 '영원한 동맹'을 기원하는 것"이라는 슈안레이 스님은 "밀교 수행자로서 인도에서 보다 깊이 밀교를 연구하겠다는 서원을 가지고 있다"며 "양국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진다면, 노승의 서원대로 양국의 밀교학자들이 모여 연구하고 토론하는 기회가 많지 않겠냐"고 말했다.

한편 'Economist'지는 "중국과 인도는 경제를 중심으로 관계를 확대했지만, 국경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며 "모디 총리의 방중으로 양국이 껄끄러운 영토 분야에서도 관계에 진전을 볼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인도와 중국은 인도 카슈미르(Kashmir) 주에서 국경 분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9월 시진핑 주석이 인도를 방문했을 때 중국 병사들이 인도 국경을 넘어 양국 군대 1,000여명이 대치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불교, 사회적 역할 증대 나서야 할때"

5월 14일 백악관서 불교계 컨퍼런스 열려

불교에 대한 서양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불교 지도자 컨퍼런스를 열어 눈길을 끈다.

5월 14일 미국 정부는 석가탄신일을 맞아 불교계 주요 지도자들을 초청, '광장에서의 목소리, 전 세계의 행동을 이끈다(Voices in the Square-Action in the World)' 주제로 불교 컨퍼런스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미국 소승불교 비구 보디(Bhikkhu Bodhi) 스님을 비롯한 한국 · 일본 · 중국 · 티벳 · 캄보디아 등 약 125명의 불교계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개회식은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열렸으며, 본격 회담은 백악관으로 이동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기후변화 · 인종 간 정의 · 평화 건설을 위한 불교계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예일대 환경학 부교수 마리 튜커(Mary Evelyn Tucker)와 비구 보디는 '기후 변화에 대한 네 가지 해법'을 제시했으며, 엔젤 쿄도 윌리엄스 목사는 "인류가 타락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간과가 지구를 망치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잭 콘필드(Jack Kornfield)는 마무리 연설에서 불교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불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회적 역사를 해왔다. 오늘날 우리는 종교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것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불교가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불교 네트워크 단체 Soka Gakai International 홍보 이사 윌리엄 아이켄(William Aiken)은 'Lion's Roar'을 통해 "나는 미국 내에서 불교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불교계가 사회다방면에서 역할을 증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번 컨퍼런스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백악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다음 해에는 미국 의회를 통해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불교 잡지 'tricycle'은 보도했다.

한편 'Tricycle'은 이날 행사를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며 "미국 내 불교계의 역량을 확대할 최고의 시도였다. 전체적으로 미국 불자들을 정확히 대변했다"고 평가했다.

박아름 기자

泰 역동적인 '부처님 맞이'

문신 · 로켓으로… 몸 사리지 않아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일을 맞이하는 태국 불자들의 모습은 '몸 사리지 않는 역동' 그 자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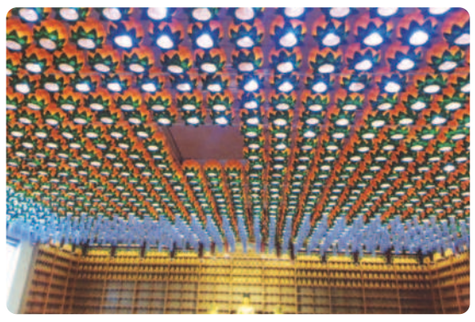
'CNN'은 태국의 부처님오신날 '위삭데이(Vesak Day)'에 앞서 열리는 'Sak Yant(일명 문신축제)'를 소개하고 "축제가 시작되면 사찰마다 불교 관련 문신을 한 사람이 모인다"며 "참가자들은 자신의 몸에 새겨진 동물을 흉내 내며 축제를 즐긴다"고 전했다. 축제 기간 중 새로운 문신을 새기고자 하는 사람들은 부처님께 꽃을 올리고 시주를 하면 문신 시술을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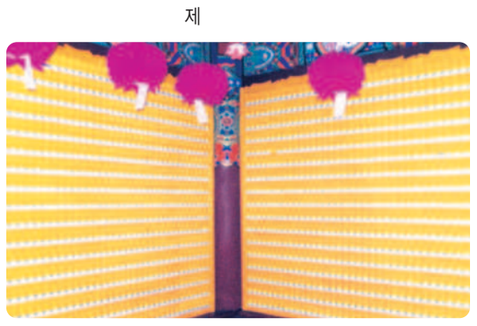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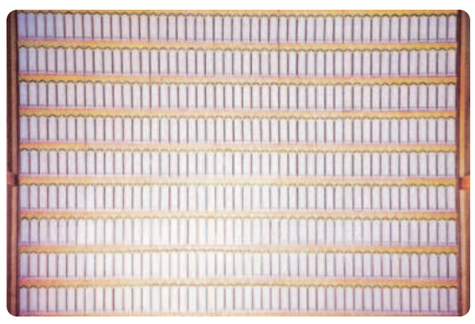
이와 함께 'CNN'은 'Bun Bung Fai(일명 로켓축제)'도 소개했다. 위삭데이 직전에 열리는 이 축제는 건기(11월부터 4월까지)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기원한다. 'CNN'에 따르면, 사찰 주변에 진행되는 이 축제에는 마을 사람들의 다양한 공연 무대가 펼쳐진다. 축제의 백미는 마지막 날에 열리는 '홈-메이드 로켓 발사'이다. 대나무에 화약을 채워 만든 로켓을 하늘로 쏘아 올리는 이 행사는 '단비를 기원하는 마음을 하늘에 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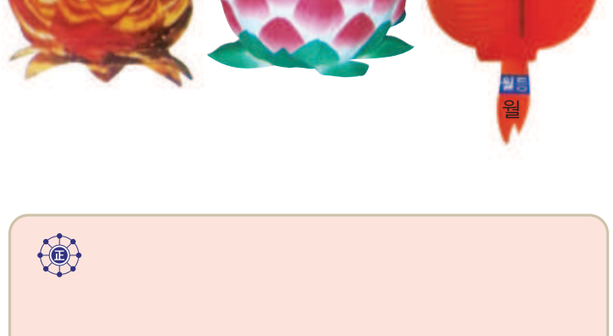
오종욱 편집위원

사찰불사! 정우불교예술원이 함께합니다



제 월

제 월


월



불 불 불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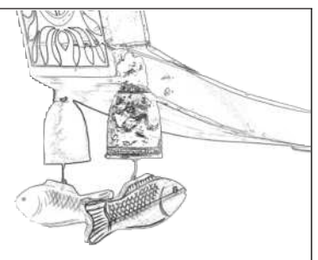
생 활 안 내

▷ 문 의 : 02)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 요일 ~ 수요일. 수요일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어리석게 살지 말라. 남의 흉내를 내면서 살지 말라.
잘못된 생각에 끌려가지 말라.
그리고 물질에만 너무 탐닉하지도 말라.

- 법구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 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작법무.천수바라 연수원
염불,사물,작법무,사주명리
살풀이,극락무,회심곡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010-5511-7000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 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범 음 범 패 대 학
학인모집 실전교육
작법,천수바라,법고,송주북,
정근북,태징,양고장,난타
경남 진주시 집현면 정수리 417
금륜사(구, 용화사) 대진 합장
055)745-3624
010-7579-8200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불교용품 재활용 센터
불상, 탱화, 불기 일체
법당 철거 및 정리
1577-9657
031-842-1070
010-9944-1075

인 연 명 리
◆ 매화연수(4주완성)
일년 신수 한눈에 보는 법
◆ 영가 찾고, 보는 법 (4주완성)
천도재,49재,조상인연기도(영가장애)
스님,법사님,포교원운영자,
관심있는분
6월,7월 2달간 2과목 완성(매주 화)
명리기초 / 통변반 수시모집, 강의 중
자운스님 010-4047-0134
(서울 삼성동)



명리첩경의 저자 - 혜공
혜공철학원
지리산 청학동에서
명리공부와 수련 하실분
010-4482-4684
010-3054-3345

분원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불교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교육부 산하 상학인가 만대교학대학원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청 소
- 이사, 입주, 상가,
공장, 사찰 청소
- 제초, 벌초작업
코끼리 청소가 하면 다릅니다
(서울 경기 지역)
(주)코끼리청소 1566-8986

침술, 뜸, 부항,
한약,역학 (명리)
카이로프랙틱(척추교정요법)전
문학원. 외국한의사,
침구사 자격시험대비반.
수강생 수시모집
www.macsj.kr
네이버 검색 「맥승정」 클릭
010-8862-1908

벽조목 진품
(벼락맞은 대추나무)
신지기기(神知奇知) 신비의 명물
벽조목으로 제액처방
비법전수,부귀공명,입신출세,빙의,간질,매매
*직접오셔서 진품을 구경하시고 주문하세요. 벼
락맞은 대추나무 진품을 치시면 구경가능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2길 136 지장선원
054-383-8553 / 010-8585-4908
cafe.daum.net/JJUJUbe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가평)
010-3774-409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부산)
010-7311-5335

기도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김해)
010-6671-5885

기도하며 일 도우실 부전스님, 행자스님 모십니다
011-288-8311

함께 생활하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2515-0664

도반인연 공고
강원도 평창 발심사
전법도반 사부대중
수행하며 살아갈
대중 모집합니다
010-9393-4965 중덕
033-334-0729 발심사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원하는 대로 이루는 기도
• 아주 특수하고 묘한 기도법을 원하는스님께 확실하게 전수 합니다
• 인천행 지하철 부천북부역 소명 4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 032)664-0048 / 011-741-0867

천 기 누 설
누구나, 최면술과
사주를 바꾸는 비법을 1대 1
특별 전수합니다
성봉사 회주 현오 합장 010-5656-3915

역학 수강생 모집
5-10년씩 배우십니까?
기초에 상관없이 한 번의 수강만으로도 최고의
사주도사가 될 수 있는 효타비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효타비결(상, 하권) / 신수비결(12권)
이름대사전의 저자 효타 스님 직강
■ 토,일반 : 토, 일요일 (15-17시) (6개월) 수강료 : 18만원
■ 주 간 반 : 화, 목요일 (15-17시) (6개월) 수강료 : 18만원
010-7121-9406 / 부산 동래구 명장2동 514-3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
감포, 영천, 미국, 중국
▶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강의!
- 화, 금요일 오전반, 목요일 저녁반
- 실참(기도,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희 힘" 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 문의 ☎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 모집 ☎ 010-9562-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에니멀 에너지 힐링 세미나
* 반려동물(개,고양이 등)을 가족처럼 기르고 있는 분들에게 희 소식! 반려동물의가벼운 병과 나쁜 버릇을 스스로 치료 해주어 마음 고생을 덜으세요. 여기와서 (디바인 하트) 라는 기 에너지를 교육 받으시면 됩니다.
* 교육시간 : 오전11시부터 ~ 오후 4시, 교육은 단 하루에 끝납니다
* 교 육 비 : 20만원, 미리 예약필요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www.Reiki.co.kr 02)720-5682. 010-8392-2557

사단법인 종단 인수하실 분
종단명 : 사단법인 0000조계종
복지사업 병행가능함. (필요시 종단명칭 변경가능)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랍니다)
문의전화 : 070-7717-2276 (영의스님)

구성학+현공풍수양택 지역별 무료공개강의 및 개강일
서울지역 무료공개강의 : 5월 26일 화요일 오후1시-4시
대전지역 무료공개강의 : 5월 28일 목요일 오후1시-4시
개 강 일
■ 서울지역 : 6월 2일 화요일 오후 1시 - 5시 (매주 1회 과목별 2시간씩 16주)
■ 대전지역 : 6월 4일 목요일 오후 1시 - 7시 (매주 1회 과목별 2시간씩 16주)
강의장소
■ 서울지역 : 서울 관악구 봉천4동 865-2번지 세종오피스텔 317호)
■ 대전지역 : 대전 서구 용문동 243-18 2층 (지하철 용문역 8번출구에서 1분거리)
010-5116-9313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성학학회 강남 안병내 배상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1.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2.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3.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2번출구 상계중앙시장 내 농협 옆

퇴마 (빙의) 최면, 심리치유 (개인지도 및 상담)
상처받고 풀리지 않는 인연고리를 풀어드립니다.
퇴마, 빙의, 우울증, 불안, 분노, 공포증, 자신감 향상 등
감정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풀지 못하는 현상들 치유가능.
* 퇴마 배우실 분은 (스님 및 무속인에 한함)
(佛)대한불교조계종 만경사 / 부산시 수영구 연수로 401번길 7
전화 051)757-7925. 010-3156-6414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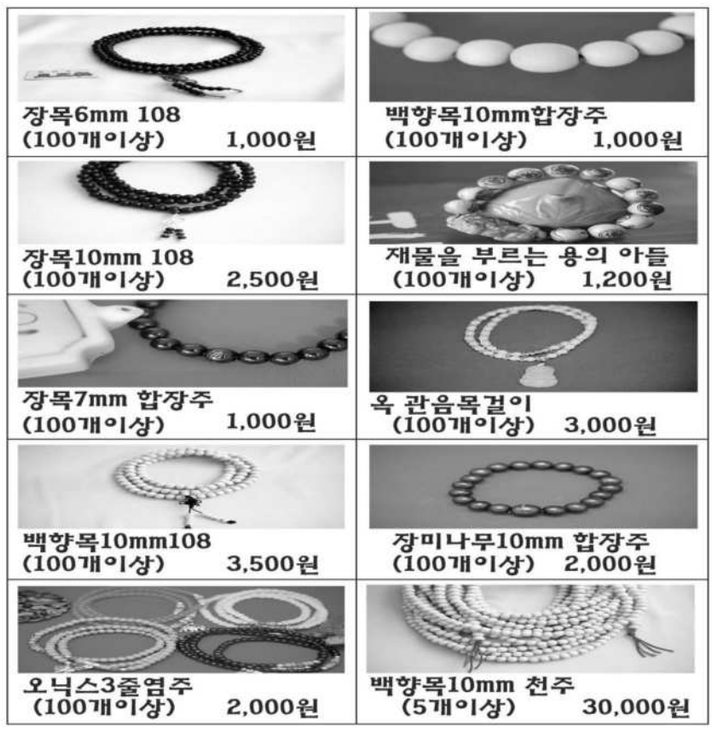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 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봉 부처님 오신날 축
108염주 합장주 천주
특별할인행사



대한민국 염주 최대물량 보유회사 —
평관헌 염주공장 (구. 삼공사)
1661-0304/010-2641-8115

현대불교신문 구독문의

■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문의 전화 : 02)2004-820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목요일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규격 5㎝ 50,000원(1회) / 가로 7㎝ 70,000원(1회) / 가로 10㎝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내 것이라고 집착하여 욕심부리는 사람은 걱정과 슬픔, 인색함을 버리지 못한다. 그러므로 안온함을 얻은 성인들은 소유를 버리고 떠난 것이다.

- 숫타니파타 -

사 찰 안 내

▶ 청정지역 토굴 안내◀
- 위치: 경남 고성
- 총부지: 970평 건물:4동
- 청정지역지정, 자연산 약초 (봉삼, 비비초, 산초, 제피, 엉개, 각종산나물 등등)
- 요양처 최적지(환우 있는분)
- 가액:1억 8천

※전국 사찰 2,000개 보유※

▶ 관광 사찰 안내 ◀
- 위치 : 동해 바닷가 근처
- 총부지:1,900여평
- 건물 : 법당48평 및 요사채 38평, 원주실15평 세계불교박물관 (5,400여년 전 벼락 맞은 대추나무화석등 석물 300여점보유) 관광버스 대형주차장 650평
- 가액 : 6억 5천 인수(은행 5억 별도)

※전국사찰 30년 역사※

※ 홈페이지 // 사찰전문 연산컨설팅 Daum카페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사

직통 051-863-6622

주소 :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 1, 505호 (만덕동 302 다산타워)

사 찰 안 내

- 위치 : 원주 도심사찰 양도
- 목조법당과요사채(방사7).산신각.창고
- 토지730㎡.납골터.텃밭.주차장.노천불
- 양도금액 : 5억 6천만(융자2억)
- 원주횡성 5분거리. 최고위치임

010-5369-4154 (주지스님)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중구 서울역 부근
- 대지: 114평, 건평 240평
- 지하1층, 지상3층(2,3층 법당)
- 문화재급 목불 불상있음
- 가액 : 30억(절충가능)

010-6728-8338

별장같은 토굴안내

순천 최고의 신도시 백화점뒤에 사찰
- 사찰창건 : 20년
- 대지 700평, 자연녹지 500평
- 대웅전(木) 22평, 삼성각 (木) 6평
- 요사채 (슬라브 2층) 방 6개 주차장(15대 완비)
- 200M 거리 아래 : 백화점, 법원, 만(10,000)세대 아파트 단지
- 순천 최대 둘레길 완공 순천,여수,광양 2015년도 광역시 통합 예정
- 가액 : 6억 8천만원, 조절가능

010-3855-7885
010-3604-547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무안
- 대지 183평, 인법당 20평 요사채 60평 (큰방 4개, 큰거실 2개, 화장실 2개)
- 가액 : 2억 6천만원

010-2060-2790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해남토굴
◎ 부지 : 134평
◎ 목조법당 : 30평
◎ 한옥요사 : 30평
◎ 양도 : 5천만원정
◎ 위치 : 경기
◎ 종교용지 : 220평
◎ 법당 : 40평
◎ 요사 : 40평
◎ 양도 : 6억8천

*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 고불,석불,골동품,탱화,고서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전국사찰수백건보유.방문접수 비밀보장>

* 위치 : 목포 도심사찰 급 양도
* 2층 편백 법당 60㎡, 황토요사채 90㎡
* 토지 200㎡ 편안한 포교사찰
* 양도가 : 3억2천만원(융자 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108호(대표: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광진구 구의동
- 약 60평 2층에 2층
- 법당 30평, 요사 30평
- 방2개, 화장실 겸 욕실 2
- 가액:2,000만원에 120만원 시설비 삼천만원

010-5497-7667

사 찰 안 내

- 위치 : 원주 치악산 자락
- 종교부지 1,200평 정도
- 목조 전통 법당 28평
- 요사채 2동(각 30평) 창고 60평
- 지장보살 좌불 노천불 모셔져 있음
- 삼성각 4평

010-9476-9800
자세한 것은 전화로 문의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부근
- 대지 324평, 법당 34평
- 삼성각 6평(목조)
- 요사채 1, 2층 100평(목조)
- 사용할 수 있는 땅 1,200평
- 가액 : 20억

010-4069-7723

포교원(급)안내

- 위치: 대전시 서구 둔산동
- 4층 건물 2층 40평
- 대웅전1 , 서재 1, 큰방 1, 작은방 1, 주방겸 거실 1
-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산신탱화, 108소불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45만원 시설비는 협의 가능

010-8653-3216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경북 안동. 절 앞에 낙동강 물이 흐르고 경치가 좋음
- 평수 : 120평
- 인법당 27평, 삼존불, 지장보살, 소불 100여불, 삼성각
- 큰방 2, 친견실 1, 공양간
- 집기일체 양도
- 잔디밭 마당에 7미터 지장보살
- 가액 : 1억 2천 5백만원

010-5555-8744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한 옥 주 택

산자락 예쁜한옥 비움과 회향하는 마음으로 주인께 드립니다
- 위치 : 경남 창녕 부곡 부곡리
- 대지 167평, 건평 30평
- 목조, 기와
- 가액 : 2억 7천 5백만원 (황토방, 정자)

010-3703-5879

사 찰 안 내

- 신도시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옆에는 산이 있어 포교와 포행하기 좋은 곳입니다
- 위치 : 울산광역시
- 대지 149평 법당 20평, 기와단청 요사 17평, 요사 10평
- 가액 : 6억 8천만원

010-3811-5466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 대지 104평,법당24평,요사채 1동
- 스님친견실 1동, 산신각
- 사용가능 평수 약 200평, 주차장 20-30대, 주차가능
- 가액 : 2억 6천만원

010-5550-9725
010-4001-8476
055-232-7151

신축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용주면 봉기리 431번지
- 면적: 413평, 계곡물 사철 흐름
- 법당: 동남간(25평) 목조, 기와
- 사채: 25평, 방2, 화장실2, 컨1동
- 가액: 융자 3천 안고, 2억 2천만원

010-8868-701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감천동 큰도로변 버스정류소 옆 2층
- 약 60평, 큰법당, 삼존불, 신중단
- 칠성단, 산신단, 용왕단, 영가단 큰공양간, 샤워실
- 큰방1개, 작은방 2개
- 위치 환경 특 A급
- 가액 : 보증금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500만원(조절불가)

010-7337-1727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소재
- 부지 : 150평(종교용지)
- 법당 : 35평(목조, 닷집, 단청)
- 요사채 : 2동 70평
- 기타 : 석등, 공양간, 종무소 등
- 가액 : 7억 5천만원
- 특징 : 도심번화가에 위치한 전통깊은 사찰로 신도구성이 잘 되어있는 사찰임

- 위치 : 제주 서귀포시 소재
- 부지 : 500평(종교용지)
- 법당 : 70평(목조, 3포7포, 단청)
- 요사채 : 2동 150평
- 기타 : 종각, 천불전, 석등
- 가액 : 7억 5천만원
- 특징 : 서귀포바닷가에 위치한 대기업의 사찰로 주변에 민속촌 등 관광명소가 많아 포교가 용이하고 템플스테이로 최고의 적지임

※ 전국소재 사찰 및 절터 양도 양수 하실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010-5848-0455

대구광역시 북구 공항로 78 (복현동 1층)

포교원안내

- 위치 : 원주시 풍물시장 중앙시장 중간
- 상권과 교통 요충지
- 평수 38평, 3층 건물에 3층 옥상이용가
- 법당, 주방 모든 집기 고루 갖추어져 있음
- 소임 관계로 14년 운영하던 포교원을 부득이 양도코져 함
- 가액: 보증금 500만원에 시설비 2,700만원 / 월 25만원
- 보시면 깜짝 놀람
- 즉시법회 가능

010-3813-6174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해남읍에서 5분거리
- 사찰도량 총 1,420평
- 법당, 관음전, 종각, 요사채
- 방은 총 13칸, 공양간, 창고, 차고외 부하장실 등등
- 건물은 총 13동 대형버스주차장, 소형주차장 등
- 가액: 3억 9천만원
- 스님 건강상 문제로

010-4628-5699

사 찰 안 내

- 위치 : 거제시 중심부
- 대지 : 2.103㎡, 건평(법당, 요사) 329.4㎡
- 창고 기타 약 15평 외 25평은 기초공사 완료되어 있음
- 석등 외 조형물 다수 있음
- 주차장 넓고 경관이 좋음
- 가액 : 현장 답사 후 협의

010-7582-0098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진주성 부근)
- 평수 50평, 3층건물 중 2층
- 구조 : 삼존불 모셔져 있고 방 2개 주방, 남녀 화장실 별도
- 가액 : 월세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답사 후 결정) 최고시설

010-5534-3939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진주성 부근)
- 평수 50평, 3층건물 중 2층
- 구조 : 삼존불 모셔져 있고 방 2개 주방, 남녀 화장실 별도
- 가액 : 월세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답사 후 결정) 최고시설

010-5534-3939

암 자 안 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예당저수지 위 150년된 암자
- 법당, 요사채, 예당저수지가 훤히 보이는 천하에 명당자리
- 약 2만평 관상수 주목 10년생
- 만평, 장뇌삼 5천평
- 요사채 및 창고
- 소유주, 직접 매각(가격 협의)

010-5097-3468

법당,포교원, 명상, 치유센터 자리안내

- 위치: 안산IC 서울외곽순환도로 바로진입 위치좋은 역세권
- 경기 부천-시흥-안산 복선전철 2015년 6월 개통
- 유동인구많고 교통편리,안산시 본오동 대로변 위치
- 전철, 농수산물시장 10분거리 상가형성 잘 되어있고, 종교행사 민원 없음
- 4층독채, 실평수50평, 법당, 주거겸용 풀 리모델링 (상담실겸, 기타옵션, 다실접객용도 최적)
- 가액: 합 5,000만원(보증금 1000/95 시설 4,000만원)
- 충남대전에 사찰불사관계로 부득이하게 내놓게 되었음

010-5913-7239/010-3145-8626

청평 한옥 안내

- 대지 199평, 건평 30평
- 전통한옥에 실내는 현대식으로 꾸며져 있음
- 방 3개(큰방1, 작은방2 중 1개는 구들방임)
- 욕실2, 거실, 주방, 패치카, 석유보일러
- 현재 스님이 거주하고 있음
- 가액 : 2억 6천만원(조절가능)

직거래 010-9411-5302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진주시내에서 20분거리
- 현재는 주택이나 8년간 절 운영했음
- 대지 578㎡, 전 274㎡(3필지)
- 건물 30평, 삼존불, 법당 1, 방 3개, 화장실 2개
- 대문입구, 500년된 똘밤나무 있음
- 기도스님이나 보살님 대 환영
- 가액 : 7,800만원

010-3321-6831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북구 구포동 782-41
- 근린시설, 담보대출 없음
- 1, 2, 3층 도시가스 보일러, 방 6개(일부)
- 즉시법회 가능
- 삼존불 일체조성, 주차가능
- 가액 : 보증금 3천만원 월40만원 시설비, 일체 없음, 선착순

010-2071-8484
011-586-4648

사찰부지 안내

- 위치 : 충주시 앙성면 능암리 산 32-6-5
- 19,808평
- 경전철 예정, 능암리 온천지역
- 농림지역 외 복숭아 과수원 약 2,000평
- 평당 3만(조건부 절충가능)

010-5203-1326

암 자 안 내

- 위치 : 전남옥과, 적송림 7부능선 사자앙천혈 인접
- 산 : 1만 2천평 종교부지 : 650평
- 건물 : 경량철골 3동, 합 52평
- 특징 : 암자, 연수원, 선원, 별장, 광주 20분거리, 암반식수
- 양도 : 3억 7천 (장난전화사절)

010-8224-1688

별장 토굴 안내 및 전세

- 위치 : 경북 성주군 용암면 대구시내 20분, 고속도로 IC 3분
- 대지 및 임야 830평
- 멋진 별장주택 40평(실 45평)
- 심야 전기 보일러
- 야산 밑 정남향 조용하고 전망 좋음
- 가액 : 양도 2억 5천만원 / 전세 8천5백만원

주인직접 : 010-3531-5562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NEW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3종 세트 27,000원

(2set 이상 주문시 배송비 무료)

햄프오일비누
1개 10,000원

토 굴 안 내

- 위치 : 충북 옥천군 안남면
- 법당건물 1동 등기필
- 요사채 1동 미등기
- 대지370평 1년도지세 45만원
- 가액 : 천오백만원 시설비 보증금 없음

010-2693-6585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진구 범천동
- 대지 약 42평, 건평 20평
- 법당 방2 공양간 욕실 실내외 화장실
- 도심밀집, 뒷산, 동남향
- 시설완비 집기 일체
- 몽땅 7,500만원

주직동 010-8503-6000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북한산 근방 포교원
- 2층 건물 중 2층
- 사용면적 60평, 옥상전체 사용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 100만원
- 답사 후 시설비 절충

010-8725-3196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구미시 선산읍 내고리 3길 127-1
- 단층주택 99.74㎡
- 창고 120㎡, 마당 하단 전답
- 총 674평
- 가액 : 일억팔천이백만원

010-5032-3511
010-2911-3590
010-7317-0027

사 찰 안 내

- 위치 : 안동시 소재 남안동 IC 10분거리
- 법당 좌우로 실개천이 흐르는 합수머리
- 종교용지 대지 약 590평
- 법당 15평, 목조 기와 단청
- 산신각1동, 요사채 2동 1동에 2층 황토방 원룸
- 법당, 집기, 공양간, 일체집기
- 가액: 2억 8천

010-5114-0172
010-4320-8842

사 찰 안 내

- 위치 : 풍기 IC에서 약 15분거리(감천)
- 산사 평수 약 3,500평, 대웅전, 산신각
- 지장전, 요사채, 주택1, 차고 1
- 사찰 옆 과수원 1500평을 택지로 조성중 텃밭 약 300평, 소나무숲
- 사찰까지 진입로 포장 되어있음

※경관 최고로 직접방문하면 대만족 할 것임

- 가액 : 3억 5천(절충 가능)

010-5203-1326
010-8829-6325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동대문구전농동미주상가건너편
-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 버스정류장 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4천 8백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99만원

010-7409-0490
02) 957-082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동상동
- 평수 : 대지 248평, 법당 23평, 요사채 2동
- 텃밭(마당 잔디), 방가루, 조경, 전망 좋음
- 시청,은행 등 관공소 도보 10분거리 뒷산 지상공원 확정
- 가액: 5억 7천만원 (대출 3억 안고 양도금액 2억 7천)

010-5019-5385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울산시 남구 남산로(무거동 태화강변)
- 평수 40평, 큰방 2, 공양간
- 몸만오시면 법회가능 • 건강상 문제로 급 안내
- 가액 : 전세 2,000만원 월세 30만원/시설비 1,500만원(절충가능)

사찰, 요양원 및 팬션 오토 캠프장 가능

- 위치 : 경주 산내면
- 평수 : 5,000평
- 요사채 : 80평
- 가액 : 7억 5천

010-2259-3630

살아있는 것은 아프다

토니 버나드

〈1〉 긴 여행의 시작

병에 걸리면 아픔과 함께 사는 법 배워라



토니 버나드는
2001년 파리 여행서 급성 바이러스에 감염됐으나 회복되지 못했다. 1982년 캘리포니아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20년 동안 그 대학 법대 교수로 재직했다. 발병전인 1992년부터 그녀는 불교 수행을 시작했는데, 그 후 많은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명상 그룹도 지도 했다. 저서 〈살아 있는 것은 아프다〉로 2011년 노틸러스 북 어워드 금상을 수상했다. 한국서 입양한 딸의 엄마인 그녀는 현재 미국 데이비스에 산다.

'영혼의 바위' 명상 캠프 참가
명상 배우는 미국인들의 성지
병걸려 쉬는 것…포기 아닌 수용
병명 알려는 것, 신경 쇠약 원인

모든 일은 파리에서 시작되었다

2001년 8월 말, 나는 미국 서부 대학도시인 데이비스에 위치한 캘리포니아대 법대 교수로서 스무 번째 해를 맞았다. 우리 자신을 축하하기 위해 토니와 나는 그 전에 특별 휴가를 가기로 마음먹었다. 3주 동안 우리는 빛의 도시에서, 그곳의 생활과 문화에 흠뻑 빠져 있을 계획이었다. 멋진 시간을 보낼 생각에 우리는 한껏 들떠 있었다.

그런데 첫 출발하는 공항에서부터 조짐이 좋지 않았다. 새크라멘토(캘리포니아 주의 주도)에서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유나이티드 항공 국내선 비행기 안에 앉아있는 동안, 비행기가 게이트에서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우리는 로스앤젤레스에서 파리의 샤를드골 공항으로 가는 직항 노선으로 갈아탈 예정이었다. 이윽고 장비 점검으로 인해 이륙이 지연되고 있다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토니와 나는 그곳에 계속 앉아 있다가는 로스앤젤레스를 출발해 파리로 가는 비행기를 놓치게 되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짐 가방을 움켜잡고서 유나이티드 항공 수속 창구로 내달렸다. 워낙 재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항공사 직원의 도움을 받아 세인트루이스(미국 중부 미주리 주의 도시)로 막 출발하려던 트랜스월드 항공 비행기에 옮겨 탈 수 있게 되었다. 그곳에서 샤를드골 공항으로 가는 트랜스월드 항공 직항 노선으로 갈아탈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원래 예정했던 시간과 거의 비슷하게 도착할 수 있을 것이었다. 텔레비전 광고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비행기 탑승구로 이어지는 중앙 통로를 전속력으로 달렸다. 짐 가방도 함께 끌면서. 비행기는 이미 탑승을 마감한 상태였지만 우리를 기내에 들여보내 주었다.

일단 비행기가 이륙하고 나자 우리는 스스로 무척 자랑스러웠다. 다른 승객들보다 몇 배나 영리하게 행동했던 것이다. 우리가 트랜스월드항공 탑승권을 손에 쥐고서 유나이티드 항공 수속 창구를 떠날 때, 그 국내선 비행기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그제야 우리 뒤에서 긴 줄을 이루고 있었다. 정말 뿌듯했다. 붓다가 우리를 보았다면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라고 말했겠지만, 당시 우리는 특별 휴가에 재앙이 될 뻔한 사건을 슬기롭게 피해 갔기에 너무 자랑스러워하고만 있었다. 나중에 몇몇 의사들은 이 트랜스월드 항공 비행기 두 대 중 한 군데서 내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을 내렸다. 나를 다시는 회복할 수 없게 만든 바이러스에.

우리는 레프트 뱅크(파리 센 강의 하류를 바라보았을 때 왼쪽 지대. 흔히 좌안이라고 부름) 6구(파리의 20개 구 중 하나로 파리 중심부)에 위치한 조그만 콜롱비에 가에 있는 원룸형 아파트에 도착했다. 첫날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해 질 녘이 되기를 기다렸다. 얼른 잠이 들어 새로운 시간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튿날 나는 몸 상태가 몹시 좋지 않았지만 단지 시차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다음 날도 여전히 몸이 좋지 않았지만 시차 이외의 다른 가능성은 애써 외면하며 토니에게 영화를 보러 가자고 제안했다. 우리는 미국 영화 〈결혼기념일에 생긴 일〉(기네스 팰트로 주연의 2001년도 개봉 영화)를 골랐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다만 어두운 곳에 앉아 내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가늠해 보고 싶었을 뿐이다. 그리고 영화를 보는 동안 내가 정말로 아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곧이어 전형적인 독감 증세가 나타났고 침대 밖으로 나올 수조차 없었다. 3일이 지난 뒤, 토니와 나는 똑같이 희망적인 결론냈다.

"별일 아니야. 파리에서 보낼 날이 아직 18일이나 남아 있잖아."

일주일 후에는 또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큰 문제 아니야. 파리에서 보낼 날이 아직 2주나 남아 있으니까."

'파리에서 보낼 날' 은 또 줄어들었다.

우리에게는 이제 이것이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 토니는 아침이면 혼자서 프랑스 식당에 들른 후 파리 시내를 거닐다가 정오 무렵 돌아왔다. 내 상태에 변화가 있기를 고대하면서. 그리고 오후에는 산책을 위해 다시 혼자서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토니는 혼자 돌아다니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다.

2주째가 되었을 때 나는 토니 옆에 동행하고픈 생각이 간절해졌다. 그래서 하루는 몸의 고통을 한번 참아 보리라 마음먹었다. 나는 오르세 미술관(파리 중심가에 위치한 미술관. 19세기 미술품을 다수 소장하고 있음)에 가서 인상주의 화가들의 유명한 작품들을 구경하자고 고집을 부렸다. 그 미술관은 기차역을 개조해서 만든 곳으로 웅장한 내부 공간으로 유명하다. 인상주의 화가들의 작품이 걸린 전시장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나를 그곳까지 오게 만든 아드레날린이 바닥나고 말았다. 이 외출은 실수였다. 나는 큰 전시장 중앙에 일렬로 놓여 있는 멋진 등나무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다. 토니에게는 혼자 가서 그림들을 감상하라고 말해야만 했다. 토니는 주기적으로 나에게 돌아와 내 상태를 점검했고 그만 돌아가겠느냐고 묻곤 했지만 나는 계속 토니에게 어서 가서 그림들을 좀 더 오래 보고 오라고 말했다. 토니의 동행이 되어 주려던 시도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나중에 의사를 만나러 간 것 말고는 이것이 마지막 외출이었다. 오르세 미술관에 다녀오고 난 며칠 뒤에는 병원에 가 봐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전화번호부를 뒤져 '미국병원' 을 찾아냈다. 이름만으로도 고향에 온 듯한 안도감이 들었지만, 전화를 받은 사람은 무례함 자체였다. 증상을 설명하자 그녀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주길 바라시나요?" 이제 생각해 보니 그것은 다가올 사건들을 암시하는 불길한 징조였다.

이번에는 '영국병원' 을 시도해 보았다. 전화를 받은 여성은 프랑스 어 밖에 할 줄 몰랐지만 그녀의 목소리에서 나에 대한 배려과 친절을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잠시 기다리라고 했고, 그러는 동안 영어를 할 줄 아는 간호사를 찾아냈다. 그 간호사는 나더러 당장 병원으로 오라고 했다.

여의사는 내가 단순히 독감에 걸린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내 병명을 '독감' 이라고 적었다. 우리의 휴가를 완전히 망치지 않도록 독감이 세균 감염으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의사는 항생제를 처방해 주었다. 우리는 지하철역으로 되돌아갔고 또다시 환승을 하고 더 많은 계단들을 오르내린 뒤, 북부 외곽지역과 우리 아파트 사이에서 유일하게 문을 연 약국이 있는 지상으로 나왔다. 왜냐하면 그날은 '은행 공휴일' 이라는 흥미로운 이름으로 불리는 공휴일이었기 때문이다.

파리에서 보낸 마지막 주에 프랑스 오픈(국제테니스연맹이 관장하는 대회)이 하루 종일 텔레비전에서 생방송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네트위로 날아다니는 공을 볼 수 있을 만큼 텔레비전과 가까운 바닥에 누울 자리를 마련했다. 그리고 테니스 경기에 푹 빠지게 되었다. 그곳에 누워 테니스 경기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동안 나는 회복되고 있는 듯 보였다. 우리의 휴가를 망치게 되어 깊은 실망감을 느꼈지만 그래도 여전히 희망에 차 있었다.

파리에서 집으로 돌아오기 전날, 나는 내가 회복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했다.

포기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

몸이 점점 건강해지는 것 같아서 7월 중순에는 '영혼의 바위' 명상 센터에서 열리는 열흘간의 명상 캠프에 참가하기로 했다. 이 명상 캠프는 미국 서부의 불교 수행자들에게는 일 년에 한 번 열리는 매우 소중한 기회였다. 조지프 골드스타인과 샤론 살즈버그라는 두 명의 중요한 명상 교사 때문이었다. 이들은 '영혼의 바위' 명상 센터 설립자인 잭 콘필드와 더불어 태국, 미얀마, 인도의 스승들 아래서 강도 높은 수행을 한 뒤 미국으로 위파사나(마음 관찰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수행)명상법을 들여온 사람들이었다. 이 세 사람은 매사추세츠주 배리에 '통찰명상협회' 를 설립했으며, 그 즉시 그곳은 명상을 배우고자 하는 미국인들의 메카가 되었다. 몇 년 후 잭 콘필드는 캘리포니아로 장소를 옮겨 다른 위파사나 명상 교사들과 함께 '영혼의 바위' 명상 센터를 설립했다. 일 년에 한 차례씩 조지프 골드스타인과 샤론 살즈버그는 통찰명상협회의 몇몇 명상 교사들과 더불어 이 '영혼의 바위' 에서 열흘간의 명상 캠프를 열었다. 이 캠프는 무척이나 인기가 좋았기 때문에 추첨을 통해 참가자를 결정했다. 기어들어 가는 듯한 목소리를 제외하고는 나는 '파리 독감' 에서 회복된 것처럼 보였다. 게다가 침묵 명상이기 때문에 말 할 필요도 없었다.

파리 독감이 급성에서 만성으로 변한 것은 이 수행에 참가하는 동안이었다. 불가사의하게도 나는 평소와 달리 모든 증상을 낱낱이 기록해 놓았다. 나는 명상 교사들의 가르침을 가끔씩 받아 적기 위해 노트 한 권을 가져갔었다. 날마다 쓰려던 것은 아니었는데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이상해서 기록해 놓지 않을 수 없었다. 수련 사흘째인 월요일 아침에는 이렇게 적었다.

"아침에 일어나니 몸이 아프다. 같은 병이 또 온 건 아닐까 걱정된다. 명상 강의밖에 참석할 수 없다고 해도 여기에 계속 있어야겠다."

그날 밤에는 이렇게 썼다. "정신이 혼미하다. 머릿속이 윙윙거리며 온몸이 마구 떨리는 느낌. 마치 며칠 밤을 새운 것처럼.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어떤 병과도 다름."

몸이 좋지 않아도 명상 센터에 계속 남기로 결정하고서 어느 날에는 이렇게 적었다.

"아픈 몸으로 홀로 있어야 한다면 이곳은 있기에 참 좋은 곳."

하지만 매일 저녁 열리는 명상 강의에 몇 차례 참석하는 것과 하루 한 번 점심때 식당에 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 내 방에 머물러 있었다. 똑바로 앉아서 명상을 하기에는 몸이 너무도 아팠지만 그곳에서 가르치는 기본적인 명상법을 따라하려고 노력했다. 그 기본적인 명상법은 '마음을 바라보라' 라는 것 이었다.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

"내 마음 안에서 걱정이 일어나고 있다."

치우침 없는 마음으로 집착 없이 다만 사실을 관찰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명상적 관점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는 없었다. 수없이 많은 골치 아픈 생각과 질문들이 이내 '내 마음 안에서 걱정이 일어나고 있다' 를 뒤따랐다.

'의사가 혈액검사 결과를 잘못 본 게 아닐까? 텔레비전 보고 싶다 방에서…. 만약 의사를 만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슬프겠지. 정말 슬플 거야, 정말로. 특히나 이제 막 건강함의 기쁨을 알게 됐는데.'

2001년 그해 가을에는 내 방 침대 아니면 병원 진료실에서 나날을 보냈다. 온갖 검사와 건강검진 결과로는 내 몸에 아무 이상이 없었다. 그래서 2002년 봄, 나는 일주일에 두 차례씩 90분짜리 강의를 하기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학교로 돌아갔다. 학교로 돌아간 주된 이유는 내가 더 이상 나아지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단지 믿을 수 없었고, 믿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2년 반 동안 일부 강의를 계속했다. 토니는 다른 도시에서 일했지만, 집에서 10분 거리인 학교까지 나를 데려다 주고 수업 후 데려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자기 시간을 조정했다. 나는 너무 아파서 학교로 가는 10분조차 운전을 할 수 없었지만 강의를 해야만 했다.

몸이 아플 때 계속 일하는 것이 얼마나 큰 실수인가는 나중에 돌이켜보고 나서야 깨닫기 쉽다. 아마도 일이 상태를 더 악화시켰을 것이다. 나처럼 만성병에 걸리면 몇 가지 아주 힘든 선택을 해야 한다.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은 당신이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은 새로워진 삶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인데도.

나에게 그 현실이란 심한 독감 증상을 겪는 것을 의미했다.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의 통증과 가벼운 두통을 겪는 것이었다. 그 고통을 상상해 보고 싶다면 독감에 걸렸을 때 느끼는 극심한 피로를 열 배로 키워 보면 된다. 건강한 사람들이 심한 시차를 겪을 때 느끼는, 초조하게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피로감을 심장의 두근거림에 더해 보면 된다. 그 피로감 때문에 낮잠이나 심지어 밤에 자는 것은 고사하고 집중을 하거나 텔레비전을 보는 것조차 힘들어진다.

몸을 쇠약하게 만드는 만성병의 현실 중 또 하나의 문제는 자신이 왜 아픈지 끊임없이 알아내려고 한다는 것이다. 결국 확실한 대답은 얻지 못하면서도. 병명을 갖다 붙이는 것이 병을 낫게 할 수 있었다면 지금 내 상태는 아주 좋아졌을 것이다. 파리에서 병이 난 이후 나는 수많은 질병과 질환으로 진단받았다.

이 글은 〈살아있는 것은 아프다〉(문학의 숲)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찰 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자나깨나
중단전 챠크라 열리고
목, 뒷골, 어깨 확 풀림
스트레스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호락호락 팬티
배, 엉덩이, 골반, 허리
차가움 냉병 즉시 해소
노폐물, 독소 배출 왕~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세계최고! 다보명차,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슬플 때 억지로 눈물 참지 마세요



거짓말을 하지 않겠어요

I will not lie, for that can put me in danger.

2006년 1월, 호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호주 법원에서 은퇴한 전직 판사가 차를 과속으로 몰아 적발되었습니다.

시속 50km로 달려야 하는 곳에서 60km로 달린 판사는 운전면허가 취소될까봐 거짓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법정에서, 운전을 한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 미국에서 온 어느 교수라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은 곧 들통났습니다. 한 신문기자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그 교수는 이미 3년 전에 사망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신문기자가 사실을 확인하려 들자 판사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둘러댔습니다. 자기는 어머니의 차를 몰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차는 판사가 속도위반을 하던 날 하루 종일 차고에 있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판사는 결국 징역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호주 역사에서 판사 출신이 감옥살이를 하는 첫 번째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약간의 벌금을 내고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거짓말로 위기를 벗어나려다가 오히려 역사에 불명예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다' 는 말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 또 다시 거짓말을 해야 하는 악순환이 온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실수나 잘못을 저질러 놓고 거짓말로 감추려고 했던 일이 있을 것입니다. 털어놓고 해결방법을 찾으면 되는데 그게 두려워서 감추려다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짓말 때문에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동화 속의 주인공 피노키오는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집니다. 실제로 사람들도 거짓말을 하면 코에 변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코가 빨개지고 커진다는 것입니다. 코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영향이 옵니다. 거짓말을 하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스트레스가 생기기 때문에 목과 머리가 아프고 긴장감이 생긴다고 합니다.

거짓말은 자기 양심을 속여 넘길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실입니다.

* 여러분이 한 거짓말 중에 가장 큰 거짓말은 무엇이었나요?
* 그 거짓말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어떤 점을 느꼈나요?)
* 나쁘지 않은 거짓말, 필요한 거짓말도 있다고 생각하나요?

놀림에 당황하지 않고 당당하게 행동하겠어요

I won't be intimidated even if someone tries to bully me.

「루돌프 사슴」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노래입니다. 빨갛게 반짝거리는 코 때문에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던 루돌프가 안개 낀 날, 산타의 썰매를 안전하게 끌면서 친구들에게 인정받는다는 내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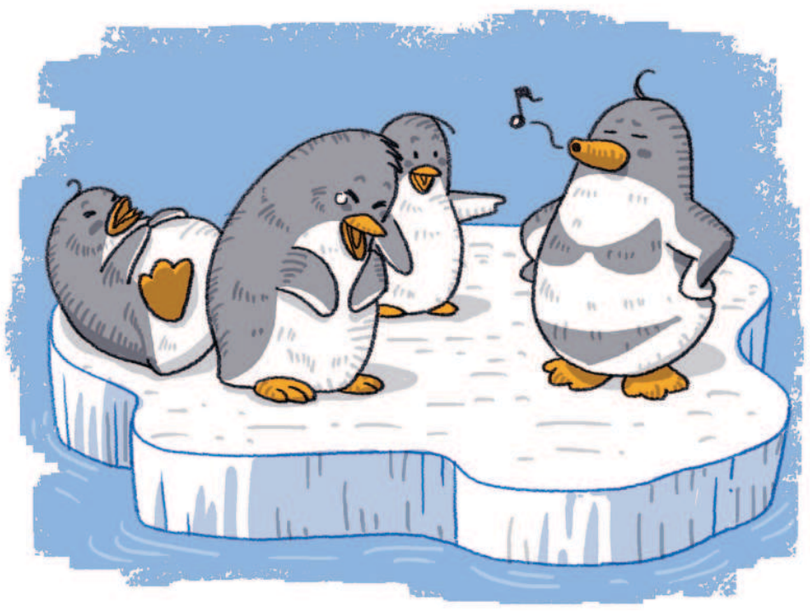
루돌프는 1939년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색칠 그램책의 주인공입니다. 그림책을 만든 사람은 한 백화점에 근무하던 로버트 메이인데, 어릴 때 몸이 작고 수줍음이 많아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로버트는 어린 시절의 경험을 살려서 루돌프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린이들이 친구를 놀리는 일은 어느 시대나 똑같습니다. 특히 놀림을 받는 어린이가 기죽어 있거나 도망 다닐수록 더욱 짓궂게 놀려댑니다.

심리학자들은 친구들의 놀림에 당당하게 맞설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화를 내거나 싸움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방법은 잘못되면 괴롭힘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좋은 방법은 아무렇지도 않게 오히려 재미있게 받아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외계인이라고 놀리면 '어떻게 알았어? 다음에는 너도 우리 별로 초대할게. 돌아오기 싫다고 울고불고 해도 소용없어' 라고 받아치는 식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와 같은 말도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놀림을 받을 때 속상해 하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놀림을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다면 어른이 되어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때 훌훌 털고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 놀림을 받았거나 놀려 본 적이 있나요? 그때 기분은 어땠나요? 놀림 받은 친구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 놀림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했나요?



슬픔이나 괴로움을 꿋꿋하게 견디겠어요

I know that sadness and hard times will pass, so I won't let them get to me.

부처님께서 인도에 머무실 때였습니다. 마을에는 갑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어머니는 부처님을 찾아와서 제발 죽은 아이를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아이를 살리려거든 불씨를 얻어오시오. 그러나 반드시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서 얻어 와야 합니다."

어머니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불씨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얻지 못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은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기와 똑같은 슬픔을 겪은 사람이 많다는 것과 아이를 잃은 슬픔이 크지만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도 생활을 하면서 슬픈 일, 괴로운 일을 많이 겪습니다. 친한 친구가 갑자기 전학을 갈 때, 친구와 다투었을 때, 친구들이 나만 놀려댈 때, 부모님께 꾸지람을 들을 때,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가족 가운데 누가 아프실 때……. 슬프고 괴로운 일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습니다.

우리가 자라서 어른이 되어갈수록 힘든 일은 더 많이 생기고 슬픔의 크기도 커질 것입니다.

슬플 때 억지로 눈물을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눈물이 건강에 나쁘지 않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슬픔이나 괴로움을 오랫동안 가슴에 담아두고 괴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나한테만 괴로운 일이 생기느냐고 원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두 슬픔을 겪고 있으며 슬픔을 이겨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 여러분이 겪은 슬픈 일, 괴로운 일을 말해 보아요.
* 슬픈 일, 괴로운 일을 겪었을 때 마음이 어땠나요?
* 슬픔이나 괴로운 일을 이겨내는 자기만의 방법이 있나요?


◆3칸겹집 목조건물 : 11,000㎜×6,000㎜×4,800㎜ ■가격 : 평당 1,500,000원
다그라스목재기둥 180×180×2700 / 다그라스 대들보 180×210
다그라스목재도리 180×180 / 다그라스서까래 100×100 / 목재판재 120×18
전통강판기와 주춧돌 300×300×300 ※황토흙 ALC 블럭 내화벽돌 판넬 자유 선택
원하는 평수 가능 토목공사 부가세별도

◆눈비를 맞아도 썩지않는 조립식 평상 : 1800×1030×400㎜
~~가격 29만원~~ → 할인가 19만원
폴리프로필렌 자재 – 기둥 110×90×400 / 도리 80×35 / 중간대 80×35 / 마루판 210×12
부가세 운송비 별도
연결이동 사용할 수 있으며 보관 설치가 간단한 평상
지 구 산 업
www.지구산업.com
TEL 063)323-3011~2 / FAX 063)323-3010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 /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동상 / 특허청장상 수상 CE 인증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전동운반차의 선구자! 근우테크㈜

KW-B4D300DP(덤프&리프트 겸용)

4륜구동의 강력한 파워

보조파이프 옵션
KW-BRD300

360° 제자리 회전 평지 200kg 운반가능
KW-BS200
사찰 사용 모습

경사지 공앙 제수 운반
고소 연등 설치
전자브레이크 장착으로 내리막도 안전
오르막 오를 시 수평유지
"전동운반차 1회 충전으로 3~4일 운전 가능"

써스펜션 (강력한 추진력)
"사찰에 최적화된 다섯가지 특장!"
1. 안전한 공양 및 제수 운반!
2. 간편하고 안전한 사용법!
3. 저렴한 유지비!
4. 안전한 연등 설치 작업대!
5. 소음 걱정 끝~!
※ 종단 / 교구 / 지역 / 신도회별 단체상담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 근우테크㈜ KEUNWOO TECH Co., Ltd.
문의전화 : 010-7518-7854, (053)801-7897, 7895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 공단로 82-6(검단동 887-160번지) www.kw-tec.co.kr



대행 스님

무한의 도리를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우리의 사회가 밝고 건전해지려면

질문 얼마 전 저희 신행회 법사 스님께서 "지금의 부모들은 자식들이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서 남들보다 더 잘 먹고 잘살 수 있도록만 가르친다. 정작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손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는 가르치지 않으면서 자신이 어렵고 힘들어지면 누구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사회를 원망만 한다."라고 하시는 법문을 듣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자식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입니다만 나와 내 가정을 버리지 않으면서 우리의 사회가 밝고 건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마음을 내고 살아가야 할까요?

답변 여러분 육신 속에 들어 있는 그 마음들은, 의식들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공장이라고 해도 되지마는 세계라고 해도 됩니다. 위라는 세상, 장이라는 세상, 간장이라는 세상, 소장이라는 세상, 이름이 그렇게 많아서 이걸 세계라고 하죠. 그냥 여러분을 해코지하게도 나오고 남을 해코지하게 마음을 일으키게도 하는 모든 의식들을 침착하게 생각해서 거기에다가 맡겨 놓고, 거기에서 나온 거니까 거기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다 놓고 나는 종노릇을 하십시오. 몸은 종노릇을 하면서 그 다스리는 마음은 항상 한마음으로 돼 주고 겸손하게 돼 주시란 얘깁니다.

아니, 내 몸속에 있는 진드기가 보기 싫고, 촌챙이가 보기 싫고, 거위가 보기 싫고 이렇다면 어떻게 내 몸을 이끌고 다닙니까? 그러니 그것도 존중해 줘야지요. '아! 그것도 나로구나. 나를 끌고 다니는 바로 너로구나!' 하고서 한마음으로 인정을 해 줘야지요. 여러분이 인정을 해 주고 '너희가 모두, 하나도 버릴 게 없이 나로구나!' 하고 인정을 해 줘야 자기 죽이는 법이 없죠. 자기가 자기 죽이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니까 그걸 명심하시라 이겁니다. 자식도 잘못하면 "저 도둑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믿고 가르쳤더니 나를 이렇게 한다." 그러지만 그것도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부모는 주는 게 부모지 받는 게, 달라고 하는 게 부모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십시오. 거미의 부모도 자식들한테 다 주고 자기는 껍데기로 화해서 그냥 말라서 가루가 돼 버립니다. 어머니는 알을 낳아 놓고 그 자식들을 위해서 다 주고선 떠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낌없이, 자식이 죽게 되면 생명을 대신해 주리만큼 그렇게 자식들을 귀하게 생각하면서 자기는 껍데기로, 껍데기로 껍데기로 이렇게 차츰차츰 변해 갑니다. 그렇게 자기는 껍데기만 남아서 나중에 함께 가자고 해도 자식들은 안 갑니다. 몸뚱이도 가지 않죠. 자기 따라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고 아무리 부부지간에 사랑했다, 아무리 재산을 사랑했다, 집을 닦고 깨끗하게 잘해 놨다, 몸뚱이를 깨끗하게 씻고 바르고 온통 귀걸이를 달고 잘 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여러분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캠핑 와서 그저 조금, 먹고살기 위해서, 좀 놀다가 가기 위해서 바람처럼 구름처럼 풀잎의 이슬처럼 왔다가도 그냥 스쳐 가듯이 그냥 또 다 버리고 가는 거죠. 애들이 공기놀이를 하다가도, 내 땅 네 땅 하고 놀다가도 저녁때 엄마가 부르면 으레 다 버리고 툭툭 털고 일어서듯이 인생도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이 생각을 깊이 해서, 무한의 도리를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현실에서도 남의 뿌리를 싱싱하게 도와주십시오. 뿌리를 도와주면 이파리도 가지도 싱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한마음으로 도와주면서 건져 주면서, 자기가 예쁘다고 뿌려 놓은 씨도 건지면서, 사랑하는 부부지간에도 서로도와 가면서 조화를 이루고 화목하게 한다면 젊은이들이 아마 스스로 첨단의 심성과 학자가 돼서 우리나라를 능히 이끌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그렇게 할 때, 저 풀 이파리 하나도 한마음 아닌 게 없이 그렇게 될 때 그 한마음 속에서 일꾼이 나온다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이 나라에 일꾼이 생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바람결처럼 스쳐 가는 그러한 논다니로서 정치를 하는 사람만이 생겨서, 부모가 잘못하면 자식이 고생하듯 우리 국민이 서로가 고생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자식들도 부모를 위해서, 부모가 그렇게 잘하도록 만드는 자식들이 되어야만이 우리 국민 속에서 그런 부모가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쇳송 할 때 '오종대은 명심불망(五種大恩 銘心不忘)'이라고 종성을 하게 했습니다. 거기에 '오종대은'이라고 하는 그 멋있는 말씀은 너무나 광대무변합니다. 하다못해 지수화풍의 은혜요 국민의 은혜요 나라의 은혜요 국왕의 은혜요 사장(師長)의 은혜요, 부모의 은혜 형제의 은혜…, 이 전체가 은혜 아닌 게 없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공기가 없으면 한시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건 무주상으로 주는 보시이기 때문에 아마 고마운 줄을 모르실 겁니다. 그러니 모두가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내 몸을 낳아 주고 길러 주고 한 육의 부모의 은혜와 법을 가르쳐 주신 법의 부모인 부처님의 은혜가…. 그래서 육을 낳아 주신 부모의 은혜나 법을 주신 부처님의 은혜나 둘이 아니에요. 그건 왠 줄 아십니까? 부모도 자식을 기를 때 조건 없이 사랑하고 부처님도 조건 없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 없는 사랑은 바로 조건이 없기 때문에 자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침 종성(鍾聲)의 뜻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의 마음들이 모두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는 마음이라면 참, 앞으로 이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도 화목한 꽃이, 인꽃이 필 것입니다. 그리고 꼭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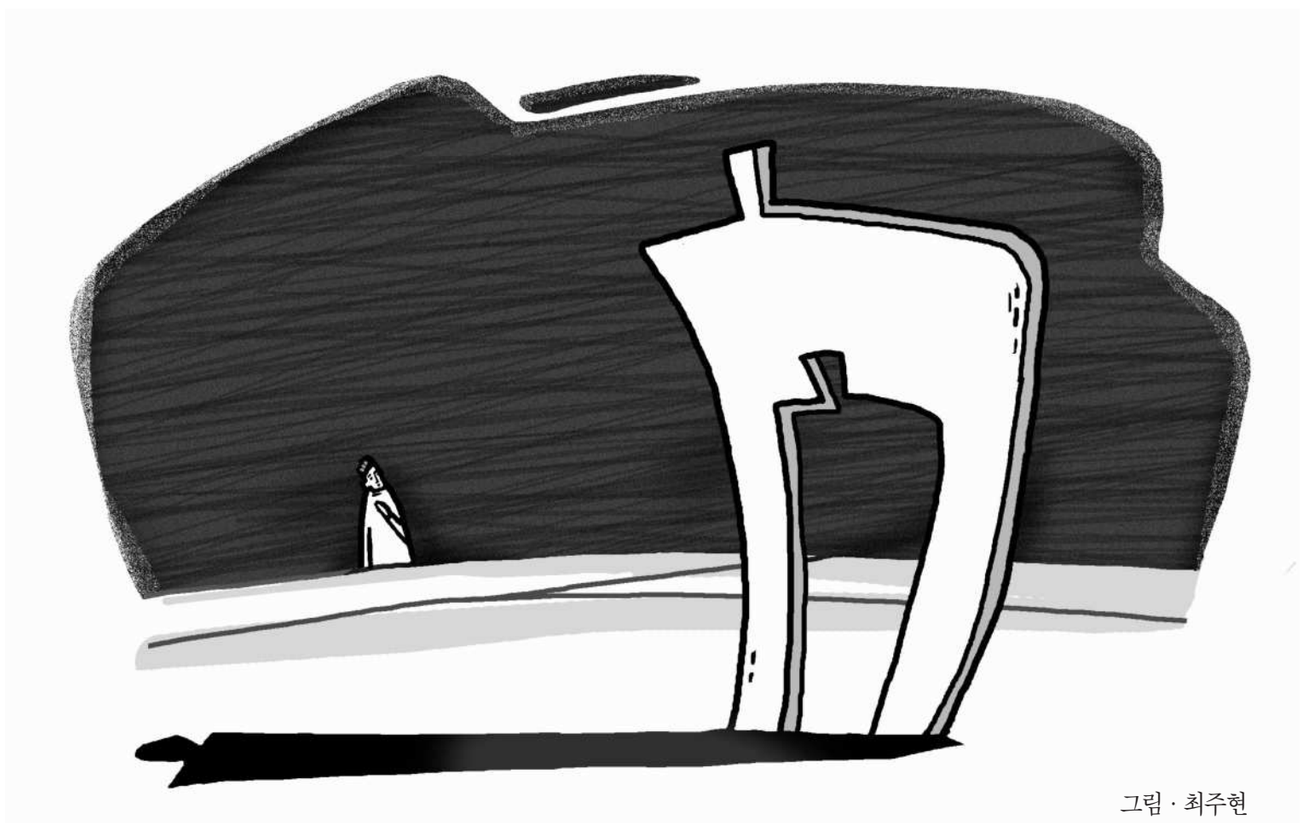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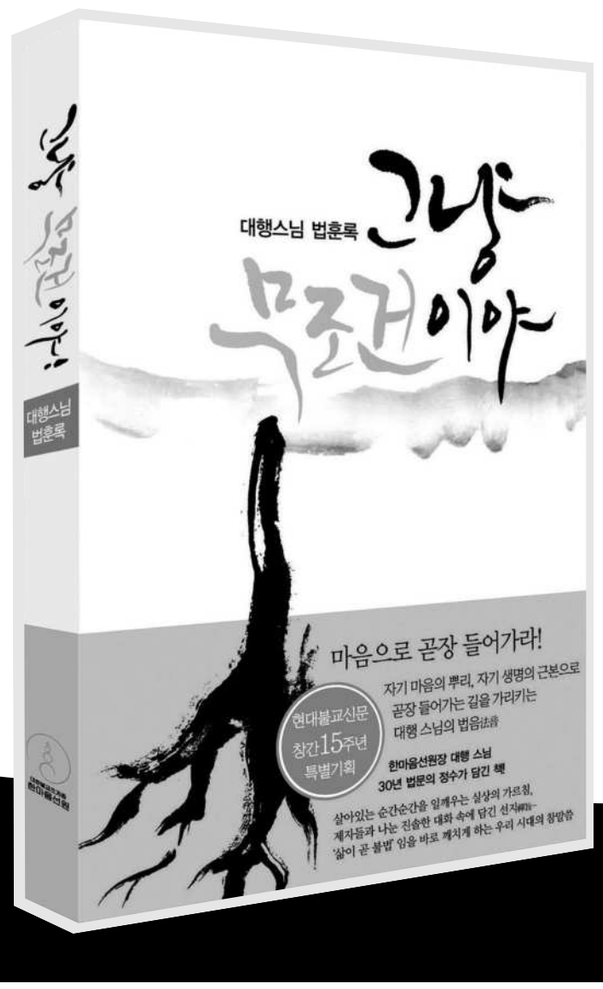
선악이 없다고 하시는 이유

질문 『법구경』을 보니까 "선도 없고 악도 없다. 비난만을 받는 사람도 칭찬만을 듣는 사람도 이 세상에는 없다.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에도 없으며 미래에도 없으리라."라고 쓰여 있던데요, 정말 그러한지요?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함이 기본적인 사회 윤리인데 어찌 선도 악도 없다고 하시는지요?

답변 이거 봐요. 악과 선이 어찌 없겠소? 동시에 모두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란 놈이 도둑질도 시키고 좋은 일도 시키죠. 그러니 좋은 일 하는 사람이 좋은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악한 짓 하는 사람이 악한 짓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나타나지 않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두가 찰나찰나 화해서, 착하던 사람도 앞에 딱 닥치면 어쩔 수 없이

☞ 22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내가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부처도 있고 세상도 있다

☞ 21면에서 계속

나쁜 짓을 하게 되고, 또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딱 닥치면 좋은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러니까 좋은 일 하는 사람, 나쁜 일 하는 사람, 이것을 참선에서는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찰나찰나 바뀌니까 말입니다. 어떤 것을 나쁘다고 하고 어떤 것을 좋다고 하겠느냐. 마음을 바로 쓸 때는 이렇게 되고, 또 나쁜 상황이 앞에 딱 닥치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옛날에 한 강도가 어느 수풀 속을 지나가는데 어떤 여인이 어린애를 안고 업고 걸리면서 엉엉 울고 가더랍니다. 밥도 못 먹였는지 "엄마, 밥 줘! 밥 줘!" 하고 울고 가는데, 참혹해서 볼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강도가 아닌 척하고선 "어린애가 배고프다 그러는데 먹을 게 없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먹을 것도 없거니와 남편도 붙잡혀 가서 영 오지 않고, 그렇게 되니까 집이라고 있던 오막살이도 뺏기고 어디로 갈 데도 없습니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돈을 뺏어서 전대를 해 가지고 있던 거와 먹을 거 좀 훔쳐 뒀던 거를, 전대 돈은 가서 오막살이라도 하나 장만해서 먹고 살라고 주고, 자기 먹으려고 집어 온 거는 그 애들을 주고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허허허 웃으면서 '도둑질을 하는 놈 위에 또 나는 놈이 있구나.' 아니, 얼마나 그것이 기가 막힌 말입니까?

또 한 가지 요거, 잠깐만 얘기하죠. 우리 신도가 집이 없어서 남이 금방 지어 놓은 집을 빌려서, "팔릴 때까지 들어가 살아라." 그래서 들어갔답니다. 집은 좋지만 그냥 자기는 보따리 보따리 해서 다락에다 넣고선, 내일 아침에 애들 학교 갈 때에 먹일 것도 없고 차비 줄 것도 없으니 엄마가 그냥 속상하니까 부글부글 속을 끓이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그 집이 좋으니까 도둑이 들어왔더랍니다. 하하하…, 뛰어넘어와 가지곤 다락을 통해서 방에 들어오려고 다락에 뛰어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보따리 보따리만 있고 속을 풀어 보니까 헌 누더기, 이불 나부랭이, 살림 나부랭이 뭐, 이런 거거든요. 다락에서 도둑이 가만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순간 안에서 "아이, 내일 아침에 애들 밥은 어떡하며, 차비는 어떡하면 좋은가?" 하고 타령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주인공, 당신만이 이 애들을 학교를 보낼 수 있고 당신만이 먹일 수 있겠다.'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도둑이 들을 때에 '주인공은 뭐고?' 허허허…. 주인공은 뭔지 모르지만 내일 아침에 당장 어린애를 보내지도 못하고 먹이지도 못한다는 소리에 그만 이 도둑이 가슴이 좀 안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첫 번째, 두 번째 해 가지고 와서 세 번째 들렀는데, 그 도둑질해 온 거를 다락문을 가만히 열고 거기다 내놓고서는 다락문을 또 타고 나가면서 하는 소리가 "어이구 참, 기가 막혀. 이것은 도둑질하러 들어왔다가 되뺏기고 가네." 이러더랍니다. 그러니 도둑놈이 어찌 도둑놈만이겠느냐 이겁니다.

그 사람이 이튿날 아침에 와서 깔깔 웃으면서 "스님! 주인공이 이렇게도 살리는 수가 있습니까?" 하는 겁니다. 세상에 도둑이 도둑질한 걸 갖다 줘서 애를 무난히 학교에 보내고 쌀 한 가마니 사고 또 연탄 사고 애들 등록금도 주고 이랬다는 겁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하니까 "그러게 도둑놈을 도둑놈으로 보지 마라. 음? 모두가, 그저 죄가 뭐가 죄겠어? 다 모르는 게 죄고 순간순간 나오는 대로, 업식에서 나오는 대로 하는 거지. 그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니야. 그리고 그 환경에 닥치면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도 많아. 그러니까 외려 더 불쌍하지. 뭐 나쁘고 좋고가 따로따로 있겠느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악과 선은 없습니다.

> 못났든 잘났든 너 먼저 알아라.
> 네 나무는 네 뿌리를 믿어야 공덕이 있는 거지
> 네 나무가 딴 나무를 믿어 봤자 에너지가 이쪽으로 오지 않느니라

입력된 것이 잘 지워지지 않는데

질문 항시 둘 아닌 도리를 되새기고자 애쓰면서 무언의 대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특히 '나'라는 생각이 불현듯 고개를 들고 일어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면 그것도 내 속에서 나온 습인 줄 알고 슬며시 놓아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비교적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만, 어떤 때는 격한 감정이 솟구치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자신도 모르게 저 잘난 소리를 마구 늘어놓다가 한순간에 나도 모르게 '어이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스님께서는 늘 되입력하는 도리를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만 이렇게 먼저 입력된 것이 잘 지워지지 않는 경우는, 말하자면 습이 워낙 중한 까닭인지요? 아니면 되입력하는 마음의 힘이 약한 때문인지요? 놓고 또 놓는다고 하면서 되나오고 되나오니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그건 입력이 안 됐기 때문에 되나오고 그러죠. 그것이 말입니다, 자기한테 자기가 자꾸 따지는 버릇을 갖는다면 습입니다, 그게. 자기한테만 따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도 따지죠, 일일이. 그게 왜냐하면요,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속에 자기가 다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과거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몸속에 전부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거기서 솔솔, 그저 이때 한 거는 이때 나오고 저때 한 거는 저때 나오고, 그냥 입력된 대로 순서대로 착착 나옵니다.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착착 나오는데 그 나오는 의식들이 수가 없습니다. 그 의식들이 입력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자꾸 거기서 나오는 대로 나오는 그것만 알지, 그것이 잘되고 잘못되는 거를 모르는 중생들입니다, 이게 업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대로, 그놈도 거기서 나온 거, 그놈도 거기서 나온 거, 그놈도 거기서 나온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옛날에 어느 수좌가 동짓날 큰 솥에다 팥죽을 쑤는데 팥죽이 부글부글 끓어서 팥죽 방울이 수없이 나오거든요. 수없이 나오니까 퍼뜩 그 생각을 한 겁니다. '아, 우리 몸뚱이 속에 있는 팥죽 방울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러니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되겠구나. 방울대로 따로따로 있는 줄 알고 했는데 아이고, 한 팥죽 솥에서 나오는구나!' 하고요. 이제 아시겠죠? 한 팥죽 솥에서 방울이 나오는 거지 팥죽 솥이 따로 있어서 방울이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것도 문수 요것도…." 자기 법이란 얘기죠. 법신! "요것도 법신 요것도 법신!" 하고는 주걱으로 때렸단 말입니다. "이것도 문수 저것도 문수!" 하고 그저 때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부가 스스로 익는다면 벌써 팥죽은 다 익었으니까, 열기가 더 오르지도 않고 더 내리지도 않고 아주 평상시처럼 따뜻하게만 하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팥죽 방울이 올라오지 않죠. 모두가 하나가 돼 버렸으니까, 그냥 모두가 팥죽이 돼 버렸으니까 말입니다.

그렇듯이 모든 것을, 거기서 어떠한 뿔따구가 나오든지, 또 자기에게 누가 되게끔 생각이 나오든지, 또 집안 식구들한테 짜증이 나든지, 또 자식이 잘못해서 속이 상하든지, 모든 것을 거기다가 그냥…. 그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 그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 자식의 일이든지 뭐든지 다 거기다가 맡겨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나오는 걸 거기다가 맡겨 놓을 때, 동시에 "흥, 이렇게 나오는 거라면 돌아서 잘 나오게도 할 수 있잖아!" 하는 생각이 아주 필연적으로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안되는 일도 거기서 나오는 거라면 되게 할 수 있는 일도 거기서 나올 수 있잖아?' 하고 돌려놓는 겁니다.

속에서 이렇게 뿔따구가 날 때, 아니 불이 일어나게끔 나올 때 '불을 가라앉힐 수 있는 것도 바로 거기 아닌가?' 이럴 때는 아주 선선하게 이 마음이 곧바로 화해 가지고는 아주 좋게 나옵니다. 즐겁게 나옵니다. 웃음도 깔깔대고 웃다가 '아이고, 이거 안됐잖아?' 하는 생각을 하면 웃음이 뚝 멎죠? 허허허…. 그렇게만 하신다면 모든 게 아주 더함도 덜함도 없는 잘 익은 팥죽이 돼서 맛있게 맛을 볼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을 염(念)하라는데

질문 저의 친구 중에 불교를 오랫동안 신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친구가 있어서 제가 어려운 일에 직면해서 고충을 토로했더니, 관세음보살을 염하면 모든 액난이 소멸되고 원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관세음보살 염불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종교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과 관세음보살님께 염을 하는 것이 어떻게 다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답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오고 나서야 상대가 있는 것을 알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상대가 있고 세상이 있고 가정이 있고 이런 것을 알겠습니까? 먼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부처도 있고 상대도 있고 세상도 있고 우주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대 성인들, 부처님으로부터 조사들이 모두 말씀하시기를 "못났든 잘났든 너 먼저 알아라. 네 나무는 네 뿌리를 믿어야 공덕이 있는 거지 네 나무가 딴 나무를 믿어 봤자 에너지가 이쪽으로 오지 않느니라." 하셨습니다. 지금 말로 통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 무제가 그렇게 부처님을 믿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달마 대사가 공덕이 하나도 없다고 했으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금 기독교나 가톨릭교나 불교나 전부 기복이에요. 자기를 쑥 빼고 타의에서 찾거든요. '주여!' 하는 것도 (가슴을 짚으시며) 여기에 자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처가 있는 거를 알아야 될 텐데 자기를 쑥 빼놓고 바깥으로 '주여!' 하고, 부처님을 믿는 사람도 역시 자기를 쑥 빼놓고 '부처님!' 한단 말입니다. 아니, 자기가 있기 때문에 부처도 있고 부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거지 자기가 없는데 무슨 부처가 있고 세상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타의에다 바라면서 해 달라 그러고 형상과 이름만 믿고 이 부처님 이름 부르고 저 부처님 이름 부르고,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뭐, 별 부처님 이름을 다 부르고 그런다면 공덕이 될 수 없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공덕이 없느냐? 지금 이 세상 사는 나의 마음과 과거로부터 수억겁을 살아오면서 진화를 시키고 형성시킨 장본인이자 주인인 자기 참뿌리와 통신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참뿌리는 싹이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몸뚱이를 형성시켰죠. 자기 몸뚱이를 형성시켜서 자기가 이끌고 다닙니다. 때로는 보디가드가 되고 때로는 안에서 일어나는 걸 대치를 해 주고 모두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참(眞)자기와 가(假)자기가 둘이 아닌 까닭입니다. 차와 운전수가 콤비이듯이, 나무들과 뿌리가 콤비이듯이 사람도 자기 영혼의 근본 뿌리와 몸이 콤비입니다. 그러니 못났든 잘났든 자기 뿌리를 믿어야지 그 나무가 딴 데 형상을 믿고 딴 데 이름을 믿고 딴 데 이름을 부르고 아무리 외치고 기도를 해 봤자 그건 공덕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통신이 되지를 않아요. 부처님의 통신은 자기의 근본 주처인 그 뿌리라고 하는, 주인공이라고 하는 거기서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들이고 내는 자리도 거기요 통신하게 되는 것도 거깁니다. 일체제불의 마음과 더불어 같이 직결이 돼서 통신이 되는 것도 거깁니다. 우주하고도 직결이 돼 있고 이 세상 만물만생하고도 가설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광대무변한 내 주처인 자신의 뿌리를 그렇게 무시하고 형상이나 이름을 믿고 찾는다면 자기는 언제까지나 이 중세계의 생사윤회의 수레바퀴 속에서 한 치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자비심이 가득한 사랑으로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사명으로 알고

같이 울고, 웃으며 땀 흘려 봉사해 온 35년의 세월들

세계 곳곳에서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사명으로 알고 국내를 비롯하여
지구촌 후진국 빈민촌의 어둠과 고통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는 불교 지도자들이
이제는 군소종단의 통합을 염원하며 아픔을 함께 하고자 하는 한국 군소종단들의 모임체

땅에 떨어진 불교의 위상 군소종단들이 하나로 뭉쳐 불교를 바로 세우는 밑거름이 됩시다.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종단 지도자 여러분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여기 저기 기웃거리다가 자신의 마음에 뜻이 같지 않으면 순식간에 등돌리고 무리져서 이리 가고 저리 가는 부실종단 지도자들은 더 이상 먹물 옷을 욕되게 해서는 안됩니다. 부실종단이 난립하니 승려의 자질과 역량이 사회와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수행자의 출현이 아쉽다는 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우려 아상과 독선, 옹고집 명예와 권력야욕 벗어 던져 버리고 이제는 초발심으로 돌아가 종단은 다르나 모임에는 통합되고 단결된 종단들이 되어 불교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역할로 각자의 본분을 충실히 다져야 합니다. 적으면 적은대로 불교에 누를 끼치는 종단에서 벗어나 불교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주역이 됩시다. 가입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단 정식 법인 등록된 종단 및 단체가 가입 자격이 있습니다.

대표전화 02)733-5665. 733-5670.
팩 스 02)733-5615. H.P : 011-229-6061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승려교육 통일. 품수통일 불교행사통일 종단활동 지원 가사 통일
단일금강계단 설치하여 합동 품수식 및 합동 수계법회. 단일 합동 고시위원회 활성화
사단법인 : 세계 불교 법왕청. 종교법인 :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大韓佛教108宗正聯合會. 大韓佛教 宗團 總聯合協議會. 韓國佛教 高僧長老團.
世界佛教 考試委員會. 大韓佛教 大宗師 聯合協議會. 韓國佛教 元老長老團. 韓國佛教
나라사랑 聯合協議會. 韓國佛教 宗團 人權委員會. 국제붓다봉사단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사명으로 그늘진 곳에
같이 웃고 같이 울며 고통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하는
봉사단 불자를 모십니다.
불자라면 남,녀 누구나 환영합니다.

불자 세상보기

종립대학 학풍 변화하려면



고영섭
동국대 불교대학 교수

동양의 고전 〈대학〉 제1장에서는 '대학의 길(大學之道)은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으며(在明明德), 백성을 친하게 하는데 있으며(在親民), 지극한 선에 이르게 하는 데에 있다(在至於至善)' 고 하였다.

여기서 '밝은 덕을 밝힘' 은 진리의 탐구와 연마를 의미하고, '친하게 함' 은 깨달음의 사회화를 뜻하며, '지극한 선에 이르게 함' 이란 보살의 이타행을 일컫는다. '작은 배움' (小學)이 아닌 '큰 배움' (大學)은 이처럼 큰 의미와 가치를 담고 있다.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의 대학은 어떠한가? 너무나 작은 가치와 의미에만 빠져들고 있지는 않은가?

동국대 전신인 명진학교는 불교대학의 모체가 되는 불교학과로 출발(1906)하였다.

동국대 불교대학은 구한말 불교계 선각자들과 불자들의 후원에 의해 세워졌다.

이와 달리 하버드대 신학대학은 메사추세츠 주립대학으로 출발(1636)했지만 존 하버드 목사가 자신의 재산 반액과 전 서적을 기증함으로써 학교이름을 하버드대학으로 바꾸고 신학대학을 정체성으로 삼았다. 두 대학 모두 종교대학으로서 정체성을 삼고 있다는 데에 공통점이 있다.

하버드대 신학대학은 독립 건물과 도서관 및 세계종교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신학뿐만 아니라 불교학과 힌두교 및 이슬람학 강좌 등을 개설하여 강의해 오고 있다.

반면 동국대 불교대학은 독립 건물이 부재하며 불교학자료실과 세계불교학연구소와 인도철학불교학연구소 및 생사문화산업연구소를 운영하면서 불교학뿐만 아니라 인도철학과 선학 및 불교사회복지학 강좌도 개설해 강의해 오고 있다. 두 대학 모두 자신의 정체성을 견지하면서도 타종교를 수용 혹은 수학하려 한다는 점에서 개방적인 학풍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하버드대가 자신의 정체성인 기독교라는 종교를 넘어서려는 유연한 학풍이 있는 반면 동국대는 불교라는 종교를 넘어서려는 유연한 학풍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하버드대 신학대학이 로마교황청이나 세계기독교연맹과 무관하게 운영되는 반면 동국대 불교대학은 대한불교조계종과 유관하게 운영되기 때문이다.

불교가 지혜와 자비의 정신에 기반하여 연기와 중도의 철학을 제시한다면, 기독교는 사랑과 박애의 정신에 기초하여 사랑과 믿음의 신학을 제시한다. 불교학이 역사와 철학을 학문의 중심축으로 설정한다면, 기독학은 종교와 신학을 학문의 중심축으로 시설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불교의 역사 철학 지향과 기독교의 종교 신학 지향은 두 종교의 학문적 방향과 맞물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버드대 신학대학의 학풍은 종교학을 추구하기보다는 철학을 지향하는 반면 동국대 불교대학의 학풍은 철학을 지향하기보다는 종교학을 탐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시선들은 학문과 종교의 객관적 거리 확보와 균형감각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 짐작된다.

학문탐구를 지향하는 대학이 객관성과 사실성의 탐구에 앞서 믿음의 선행을 강조한다면 '학문의 전당' 이 아니라 '종교의 성소' 가 될 수밖에 없다. 불교와 기독교는 모두 아시아에서 태동한 종교들이다. 한국의 동국대 불교대학과 미국의 하버드대 신학대학은 불교와 기독교 두 종교의 정수를 연구하고 교육하는 대학이라는 상통점이 있다. 이런 시각 위에서 두 대학(college) 사이의 상호 긴밀한 교류와 대화가 요청되고 기대되는 것이다. 동국대 불교대학은 하버드 신학대학이 추구하는 성직자와 재가자 사이의 균형의 학풍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 하버드 신학대학은 동국대 불교대학이 추구하는 유교와 도교 및 힌두교와의 대화의 학풍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서를 대표하는 두 대학의 상호 교류와 상호 대화를 통해 대학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 근원적 인식의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 주기를 기대해 본다.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언대

오바마 · 시진핑에게 제안한다

융섭 문화만이 인류의 미래 보장



법응 스님
한반도평화통일불교실천기획단장

고대 인도대륙을 통일했던 아소카 왕(Ashoka, 기원전 273~232년)이 칼링가(Kalinga) 전투 후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걸까. 이것이 승리라면, 패배는 무엇인가? 승리인가, 패배인가? 정의인가, 불의인가? 이것이 용맹함이라면, 무고한 아녀자와 아이들을 죽이는 것도 용맹이란 말인가? 내가 한 일은 제국을 번성시키는 일인가, 아니면 또 다른 이들의 번영을 빼앗고 파괴하기 위한 일인가? 누군가는 남편을 잃고, 아버지를 잃었다. 또 누군가는 자식을 잃었다. 이 흩어진 주검들의 잔해란 무엇이란 말인가? 이것은 승리의 징표인가 패배의 낙인인 것일까? 시체로 몰려드는 독수리와 까마귀들은 죽음과 악마의 전령(傳令)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오늘날 세계의 강대국 지도자들이 새겨야 할 내용이 아닌가 합니다. 미국은 세계 곳곳에서 막강한 군사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전쟁 억지력을 발휘하여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케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근래 '아시아 재균형(US Rebalance to Asia)' 정책으로 동북아에서 군사와 경제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개혁과 개방이후 급성장하였고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 등 첨단의 무기로 무장하며 자국의 영해와 영공 보호를 넘어서 공격적인 군사력을 보유하려 합니다. '반접근거부전략(A2AD: anti-access area-denial)' 을 통해 본토와 연계된 국가와 바다 그리고 하늘에 대한 방어와 공격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강대국이 약소국가를 지배하고자 하거나, 특정 사상과 종교를 강요하거나, 한정된 에너지를 독점하려는 시대는 막을 내려야 합니다. 각국의 국경과 영공, 영해 그리고 공해는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하지만, 아울러 그것은 인류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공존번영을 위해 개방되고 공유되어야 합니다. 세계는 하나의 꽃, 하나의 가족이라는 융섭(融攝)의 문화만이 인류의 미래를 보장합니다.

우리는 미국과 중국, 중국과 미국의 양 정상에게 제안합니다.

첫째, 양국 정상은 조속히 만나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적 대결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이곳에서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그 어떠한 군사력의 배치와 공격은 시도하지 않을 것을 협약하십시오.

둘째, 양국 정상은 분쟁이 예상되는 제1도련(일본~대만~필리핀을 잇는 라인), 제2도련(오가사와라~괌~사이판~파푸아뉴기니를 잇는 라인) 그리고 대만, 센카쿠(댜오위다오)지역과 한반도에서 평화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십시오.

셋째,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부터 중동과 유럽에 이르는 세계평화를 위한 가칭 '유라시아 평화실크로드 – 평화벨트 구상' 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평화공존의 가치와 인류애 구현을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넷째, 미국과 중국의 지도자는 일본과 러시아의 지도자들과 함께 역사적으로 한반도의 분단이 당사국들의 패권주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인식하고 남북의 국민 앞에 참회하고 진정한 평화주의 정책으로 전환하십시오.

다섯째, 중국은 북한의 핵폭탄 개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저지와 개혁과 개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 미국은 대북정책을 전환하여 북한과 수교하십시오. 중국의 개혁과 개방은 1972년 중미 간 수교 후 촉진되었습니다. 현 세계 인류의 8억 명이 굶주림의 상태이며, 매년 280만 명으로 추산되는 5세 이하 어린이 사망 원인의 절반 정도가 영양실조라고 합니다. 미국,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일본은 군비경쟁을 중지하고 그 비용을 인류의 기아와 질병 그리고 환경보호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일찍이 부처님께서는 "오직 참는 것만이 싸움을 끝낼 수 있나니 참는 것이 야말로 존귀한 법이니라" 고 하셨습니다. 그 교훈을 상기해 봅니다.

부디 미국과 중국, 중국과 미국의 지도자는 대립과 갈등이 아닌 인류가 추구해야 하는 보편적 가치인 자유, 평화, 복지, 인권, 환경과 인류애를 확산하여서 모든 세계인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여건조성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한반도평화통일불교실천기획단이 5월 18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보낸 제안서 중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社說

수명 길고 전력소비 줄이는 'LED' 연등

봉축을 맞아 거리엔 오색 연등들이 아름답게 5월의 밤을 수놓고 있다. 이중 서울에서 유독 눈에 띠는 것들이 있다. LED조명을 활용한 연등들이다. 올해 들어 1만개 이상 대폭 증가했다. 그중엔 햇빛으로 전기를 자체 생산하는 태양광 연등도 절반 이상 차지한다.

서울시는 올해 광화문과 청계천 주변, 인사동, 삼청동 등에 설치된 연등 4천여개를 에너지 효율이 낮은 백열등서 친환경 고효율 LED 전구로 교체했다. 또한 사찰마다 태양광발전을 통해 불 밝히는 태양광 연등도 5550개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조계종과 태고종, 서울시는 함께 지난해 부터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을 맺고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번에 3W LED 전구로 교체가 이뤄지게 됨으로써 전력소비를 70% 줄이는 성과를 가져왔다.

LED 전구는 벌레가 좋아하는 자외선을 발산치 않아 청결한 환경이 유지되고, 발열량이 적어 조명 아래 진열된 상품의 신선도를 장시간 지켜준다. 수은을 쓰지 않아 인체에 해가 없으며, CO_2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킨 친환경 조명이다. 수명도 백열전구에 비해 최대 25배까지 길다. 전원공급을 위한 수십미터의 전선을 연결하던 기존 연등과 비교해 태양광 연등은 따로 전원 공급을 안해도 되어 설치와 관리가 한결 편하다. 이렇게 경제적인 데다 햇빛으로 충전된 LED조명의 불빛이 더욱더 밝고 선명해 아름다워 보인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은 LED 조명이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퍼져나간다면 더욱더 무명의 바다를 헤매는 우리 중생들에게 밝은 빛을 선사하지 않을까 기대한다.

끝나지 않은 낙단보 마애불의 아픔

2010년 10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4대강 공사 낙단보 구간에서 마애불이 발견됐다. 그것도 공사로 인해 훼손된 채로. 당시 불교계는 공사 반대를 외쳤고, 마애불을 직접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찾아 참배하고 마애불의 보존을 정부에 촉구했다.

하지만 의성군청이 발견하고도 마애불을 방치하고 은폐하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조계종은 2011년 2월 기자회견을 열고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 보물급으로 평가됐던 낙단보 마애불이 돌연 경북군청의 관리하인 도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것도 석연치 않았다.

이후 정비 사업을 통해 주위가 공원으로 조성됐지만 관리 부실로 인한 훼불 문제가 야기되기 시작했다. 관할 교구본사인 고운사는 임시법당 마애사를 설치하고 주지를 파견했다. 이곳 소임을 맡은 원종 스님은 지역주민과 국민, 불자들이 화합할 수 있는 행사를 자주 마련해 이곳에 부처님이 계심을 알렸다.

하지만 올해 초 수자원공사는 돌연 입장을 바꿔 연등과 불단 등 종교시설물을 철거하라고 구두로 통보했다. 원종 스님이 1월 22일 기자회견을 하고 이로 인한 여론의 성토가 이어졌지만 수자원공사는 기존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고수 중이다.

불교계가 반발하고 여론이 안좋자 모든 것을 들어줄 것처럼 읍소하다가 정권이 바뀌고 나니 약속을 여반장(如反掌)처럼 뒤집었다. 정치권과 공무원들을 사회가 불신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책의 연속성이 없고, 행정 편의대로 일을 진행한다. 국토부와 문화재청이 당초 약속한 대로 낙단보 마애불을 성역화하고 종단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문제가 없을 일이었다.

5월 16일은 한국불교 최대 법석으로 기록될 세계간화선무차대회가 열린 날이었다. 하지만 이날 고운사는 수자원공사의 종교탄압에 맞서 민족문화수호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지금도 고운사와 마애사는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고, 낙단보 마애불의 아픔은 끝나지 않았다. 사부대중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성종사 대만최대 규모 범종 제작 수출

세계로 수출되는 성종사 범종! 우리의 자랑스런 불교문화유산입니다





최근 세계적인 범종 제작회사로 거듭나고 있는 성종사가 대만 최대 규모인 8,800관(33 ton) 범종을 제작 수출하였다. 높이 4.82m, 직경 2.89m 중량 33ton(8800관)의 이 초대형 범종은 대만 타이중에 위치한 명선사 (明善寺)라는 사찰로부터 2013년 주문 받은 것으로 기존 대만 최대 범종인 25.5ton의 불광산사 범종보다 무려 7.5ton이 무거우며 높이도 50cm나 더 크다.

본 범종의 제작기간은 약 18개월이 소요되었으며, 종 표면에는 12,129자의 경전과 명선사의 역대 祖師 70명이 정교하게 빼곡히 새겨져 있어 보는 이로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성종사의 범종은 대만, 중국, 일본, 싱가폴, 홍콩,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전세계 불교권 국가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聖鐘社 SUNG JONG SA

전시관 : 서울시 종로고 견지동 110-43 TEL 02-733-6141 / FAX 02-733-4840
사이트 : www.sungjongsa.co.kr / E-MAIL : sungjongsa@hotmail.com
공 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TEL 043-536-2581 / FAX 043-536-2582
대 표 : 범산 원 광 식 (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 대한민국 명장)



순례가 시작되는곳
www.ajetour.co.kr
SINCE1999

아제여행사

☎ 02)730-4008

YouTube blog 카페

구광국대표 010-3048-4008 구경모이사 010-2747-0908

지역별 담당 직통 전화 - 지역별 전문 상담가와 상담하세요!

- 광/사이판/필리핀 임천지부장 070-5030-6229
- 네팔/인도 김남규팀장 070-5030-6233
- 부탄항공/항공 정진화대리 070-5030-6239
- 오대산/면산/태항산/태국 김하정팀장 070-5030-6234
- 부탄/부탄항공 김다영계장 070-5030-6237
- 구화산/황산/일본/백두산 장윤희팀장 070-5030-6232
- 미얀마/라오스 허은주계장 070-5030-9600
- 베·캄/아미산/동티벳 유나라주임 070-5030-6231
- 유럽 이석준주임 070-5030-6230
- 대만/중남미 정혜수주임 070-5030-6238
- 호주/스리랑카/몰디브 이정효주임 070-5030-4008

出 : 5월19일 6월22일 보현보살상주처 아미산 5일
성도,아미산,낙산대불

出 : 6월19일 몽골5일(초원문화와 라마불교)
울란바타르-에르덴-테를지

出 : 9월3일 대만 공승제 5일
중태선사,불광산사,자제공덕회

디자인 등록원

현 불 샵 단독입점

현불샵이 추천하는 **명품청동촛대세트**



웅장함을 토대로 세련된 형태의 장식미를 갖춘 국내에서 한국 장인이 직접만든 명품청동촛대세트

- 불법을 수호하는 길상동물인 거북 · 사자 · 코끼리를 형상화하여 제작한 디자인 특허제품으로 오직 현불샵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 각 공법에 따라 4번의 주물작업을 통하여 완성된 작품입니다.
- 일반 촛대와 다르게 넘어질 염려가 없고, 안정성과 균형미가 뛰어 납니다.
- 한국 장인이 주문제작을 받아 직접 만드는 작품이므로 주문부터 발송까지 1주 ~ 15일 소요됩니다.


촛대(大) 촛대(中) 촛대(小) 향로 향통 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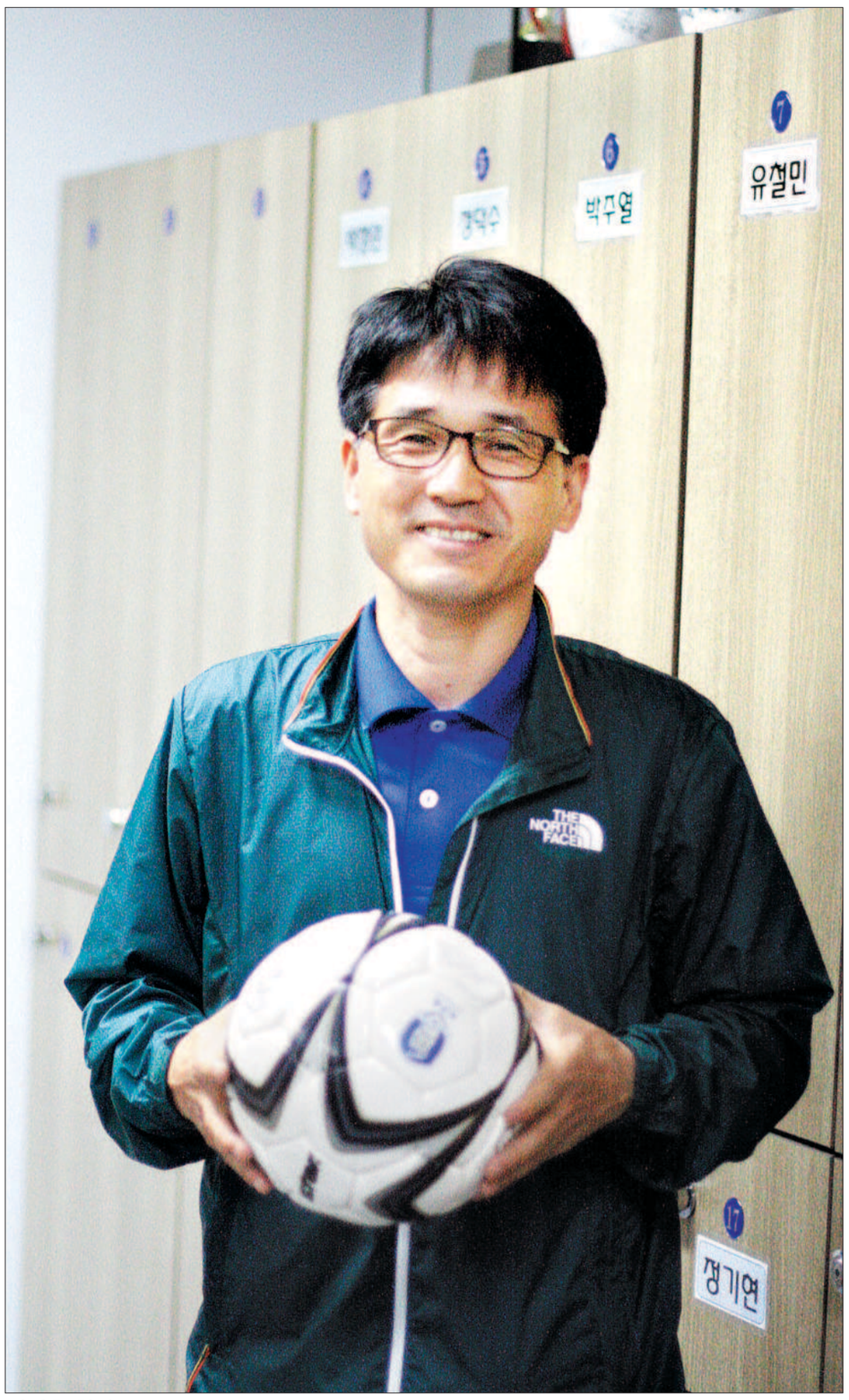
품 명		규 격 (세로 / 지름)
촛대	사자 코끼리	(大) 51㎝×21㎝ (中) 41㎝×21㎝ (小) 35㎝×21㎝
	거북이	(中) 41㎝×21㎝ (小) 35㎝×21㎝
향로	거북 용두	(大) 28.5㎝×34㎝ (中) Ⓐ 21.5㎝×29㎝ (中) Ⓑ 18.5㎝×23㎝ (小) 15.5㎝×18㎝
다기	다기	(大) 26㎝×20㎝ (中) Ⓐ 22㎝×14㎝ (中) Ⓑ 20㎝×13㎝ (小) 17㎝×12㎝
향통	원형	(大) 15.5㎝×7.5㎝ (小) 11.7㎝×5㎝

저작권이 등록된 제품임으로 무단도용시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TEL 02)2004-8216

“장애우들은 나의 또다른 가족”…

한마음장애인후원센터 전진호 회장



전진호 회장은 … 1966년 경남 밀양서 태어났다. 1986년 ‘하얀비둘기’ 장애인 봉사단체를 시작으로 불교봉사단체 부산불교보현회에서 청년회장을 지냈다. 1987년 천마재활원 · 성우원 · 평화의 집 등 재활원에서 체육활동 및 결혼 돕기, 문화활동 지원 등을 이어갔고, 2006년 (사)한마음장애인후원회 설립에 기여했으며, 2012년 (사)한마음장애인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했다. 2012년엔 사회적기업 (사)한마음 오피스를 창립,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노력했으며, 2015년 4월에는 한마음직업재활원을 열고 장애인 자립에 힘쓰고 있다. 전 회장은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2008년 부산교육청 교육감표창,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표창, 2009년 부산광역시 표창, 2011년 부산 사상구 표창, 2013년 전국자원봉사자의 날 행정안전부장관상 표창, 2014년 동부산대학교총장 표창도 수상했다. 또한 그가 이끄는 (사)한마음장애인후원센터는 2011년 대한민국 국무총리 단체 표창을 받기도 했다.

수많은 공장이 들어선 부산 사상구. 공장 지대를 지나 좁은 골목에 들어서면 새롭게 지은 30평 남짓의 2층 건물이 있다. 장애인들의 자립적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4월에 새롭게 문을 연 한마음직업재활센터다. 안으로 들어서자 10여명의 장애우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다. 밝은 얼굴의 장애우들은 운동화에 들어갈 라벨을 작업하는 중이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장애우들을 다정한 눈빛으로 이끌어주는 한마음장애인후원센터 전진호 회장(50)이 함께하고 있었다.

20대 청년, 장애우의 눈물을 보다

전 회장이 장애우들을 처음 만난 것은 1986년 그의 나이 21살 때였다. 손재주가 뛰어났던 그는 회사에서 수리를 도맡아 했던 기술자였다.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가던 그에게 어느날 직장 동료가 봉사단체 ‘하얀비둘기’를 소개해 주었고 장애우 시설로 봉사를 나가게 되었다. 하얀비둘기를 통해 처음으로 들렀던 곳은 수녀님들이 운영하던 성프란치스코 재활원과 고아원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직장 동료가 함께 가보자고 해서 따라나섰어요. 당시 그곳에 들어섰을 때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아이들 때문에 악취가 진동했고 건물은 낡고 추웠어요. 지금처럼 인원수 제한도 없어서 120명 많게는 150여명의 부모 없는 장애 아동들이 머물고 있었죠. 우선 주방시설부터 고쳤고 부서진 창문, 바닥, 목욕탕 타일 시공도 해주었어요. 라디오와 전자기기도 손을 보아주었죠. 그 다음에는 아이들 목욕도 시켜주고 놀아준 게 전부였어요.”

정말 많은 일을 한 것 같이 보이는데 그는 정작 이런 것이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싶었다고 한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돌아서려고하니 한 아이가 그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며 울기 시작했다.

한 명이 울기 시작하니 여기저기서 아이들이 울어대기 시작했다. 그 광경을 보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다음주에 또 오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때부터 매주 시설을 찾았고 회사에서 받은 월급은 고스란히 재활원의 아이들을 위해 썼다. 생필품은 물론 특별한 날 선물도 사주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었다.

“매주마다 찾아 갔어요. 씻기고 먹이고 못할 일이 없었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돌아 설 때는 손을 잡고 가지 말라는 아이들의 눈을 보면 다시 안 갈 수가 없었어요. 주말 평일 가리지 찾고 시간이 날 때마다 찾았죠. 추운 겨울 보일러가 고장 나면 새벽에도 찾아갈 정도였으니까요.”

그가 아이들을 외면할 수 없었던 건 자신의 어릴적 모습이 생각나서였다. 2남 2녀 중 셋째인 그는 7살 때 아버지를 잃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가난하게 자랐죠. 그래서 그 누구보다 가난이 인간의 꿈을 얼마나 제한하는지 잘 알아요. 그 현실을 아니 이 아이들이 부모가 없고 몸이 아프다고 꿈을 접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특히 장애인들은 일반인들 보다 수명이 길지 못해요. 짧은 삶이니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이라도 하고 싶은 것을 하며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랬죠.”

이후 그는 불교계 천마재활원과 인연을 맺고 통불원에서 불교공부를 하면서 불교계 복지시설과 인연을 맺었고 부산불교 보현회에서 청년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본격적으로 교계활동도 시작했다.

운동의 중요성을 일깨우다

그가 장애우들을 돌보며 가장 크게 느낀 것은 몸을 안 움직이면 근육이 부족해 걷기 힘들어지고 성격도 난폭해진다는 사실이었다. 운동의 중요성을 절감했지만 열악한 경제적 상황에서 운동을 제안하기는 힘든 상태, 그때 그가 생각해낸 것이 바로 축구였다.

“당시 부산 불교계 청년들이 축구하며 포교도 많이 했어요. 저도 축구를 좋아했고요. 축구는 공 하나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으니 따로 돈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어요. 또 장애우들이 운동을 통해 서로 친구가 되고 고민을 나누고 건강을 찾고 자신감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1987년 천마재활원 축구부 창단을 시작으로 그는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 활동에 힘을 쏟았다. 장애인

1986년 20대때 장애우들과 우연한 만남
이후 매주 재활원 아이들 위해 월급 사용
1987년 천마재활원 축구부 창단 계기로
체육 활동 지원 통해 꿈과 희망 심어줘
장애우 국가대표 양성… 자신감 회복 보람

2012년 사회적기업 ‘한마음 오피스’ 창립
전셋집 담보로 한마음 직업재활원 설립
직업재활원 사회복지법인 추진이 큰 원

체육 활동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장애우들을 음지에서 양지로 이끄는 특별한 의식과도 같았다. 축구를 시작한 장애우들은 고민도 줄어들고 웃는 일이 늘면서 하루하루 행복을 찾아가는 듯했다.

이런 과정을 지켜보며 전 회장은 장애인을 위한 축구부를 늘려갔다. 천마 재활원 축구부는 물론 종덕원, 성우원, 평화의 집 등 그가 봉사활동을 하는 복지시설에 축구부 창단을 제안했다. 그리고 1990년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 첫 도전했고, 매년마다 한마음 체육대회도 지원했다. 그는 여기서 머무르지 않았다. 등반대회, 사이클, 볼링, 수영 등 운동 종목의 범위를 늘려가면서 장애우들을 지도해 나가기 시작했다.

이런 그의 노력은 놀라운 성과를 기록했다. 1995년 미국에서 열린 제9회 장애인특수올림픽 축구 은메달, 1999년에는 미국 스페셜 올림픽 수영 부문 금메달, 2005년 제25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금메달, 2011년 지적장애 유철민의 국가대표 확정까지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면서 주목받는다.

이런 큰 성과에도 불구하고 장애우들이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기에는 경제적으로 턱 없이 부족한 상태였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아이들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후원자가 없기 때문에 운동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닥칠 때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는 천마 재활원에 있던 최용길이란 학생인데 수영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어요. 전국 체전과 지역 체전은 물론 세계 대회에서 금메달을 받기도 했지만 후원자가 없었습니다. 당시 재활원에 있는 아이들 대부분은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후원자 없이는 달리 지원할 방법이 없었죠.”

많은 장애우들이 아무리 뛰어난 실력이 있어도 차비가 없어 해외에서 개최되는 세계대회를 포기해야 했다.

“장애우들을 돌보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고 꽃집을 운영하며 벌어들인 수입 대부분을 투자했어요. 후원자도 모집했죠. 하지만 장애우들의 운동 후원금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또한 아무리 좋은 성적을 거둬도 고정된 수익이 나오지 않는 현실에서 장애우들에게 막연히 계속 운동을 권할 수도 없었죠. 사실 세계대회에서 금메달을 딴다고 해도 연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니, 당장 생계가 시급한 장애우들에게 운동을 계속 권유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는 이제 장애우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운동을 통해 성격도 밝아지고 건강해지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행복해하는 것을 봤지만 그들이 성장해 어른이 되어서도 운동을 계속 할 수는 없었습니다. 장애우들도 가정을 가져야 하고 자립해야 하는데 경제적으로 돌아오는 게 없는 운동으로는 명확한 미래를 제시해줄 수가 없었어요.”

장애우들의 일자리를 고민하다

운동이 장애우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는 있지만 현실적인 부분은 해결할 수는 없었다. 장애우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그는 한마음직업재활원 설립에 이르게 됐다.

“제가 운영하는 꽃집에 일자리를 만들어 장애우들을 고용도 해보고 사상구에 있는 공장에 일자리도 알아봐 주었지만 여의치가 않았어요. 요즘, 일반인들도 직장을 구하기 힘든 세상이잖아요. 장애우들이 어떻게 일자리를 구하겠어요. 그들을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2012년, 예비사회적 기업 한마음오피스를 열었다. 잉크, 토너, 복사용지 등을 판매하는 업체로 장애우들을 위해 마련된 사회적 기업이다.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장애우 결혼식도 돕고 문화활동 지원비 등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마음오피스는 한계가 있어요. 장애우들은 사상구 주변의 공장과 관공서 등으로 배달을 다니는 정도의 일만 할 수 있어요. 현실이 이러니 고용에도 한계가 있었죠.”

전진호 회장은 말을 흐렸다. 장애인들을 위한 환경이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일상에서 그가 만나는 장애우들의 현실은 너무나 열악했다. 이렇게 장애우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던 그는 드디어 올 4월 한마음직업재활원을 열게 되었다.

자신의 전셋집을 담보로 1억 8000만원의 빚을 냈다. “한 달 이자만 계산해도 엄청난 액수죠. 직업재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수덕사 만공 · 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70번째 저서 출간!
신간 실증설 5개국어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불법의 참뜻을 보이기 위해 홀연히 펜을 들어 일시에 써내려간 실증설! 실증한 이가 아니고는 설파할 수 없는 도리로 가득한 이 책이 드디어 영어, 불어, 스페인어, 중국어를 더하여 5개국어로 편찬되었다.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과학도 밝히지 못한 태초와 우주탄생의 비밀, 더불어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를 밝혀놓은 환단고기. 근본성품으로부터 비롯하여 전우주, 지구촌으로 이어온 광대무변의 역사와 진리를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일체종지를 통달한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밀밀하게 바로보였다.
www.zenparadise.com 참조 ☎ 031-534-3373

문화관광부 허가 등록번호 : 37221-00249
육조혜능 조계선맥 계승자 제26세 전법 전수제자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 종 안 내

총무원장 무공당 혜봉
불심을 하나로 모아 불국정토(佛國淨土) 이루고자 네가지 큰서원(四弘誓願)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重生)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나갈 사찰 및 종도님(승려, 법사, 포교사, 보살님)을 널리 모십니다.
입종서류
- 사암 및 승려, 법사님 등록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법당사진(내,외) 각 1매. (사찰등록 하실 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
- 사진(반명함판) 4장.
- 종단 간부 직위 맡으실 스님 우선적으로 모십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보호법 중에서 –
개인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자산과 사찰관리감독을 주지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보증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
문의 : 전화 054)262-5060, 262-4848
팩스 054)262-0067
총무원장 혜봉 스님 직통 010-3545-5060

수정기공 및 기공재활사 자격과정 특강
(사람정비 메뉴얼 수정기공)이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 (수정기공 재활사) 민간자격(2014-5765)을 등록하고 여러분 앞에 인사드립니다.
아직도 약물이나 침 뜸 지압, 마사지 등으로 질병을 치료를 고집하는가?
수정기공은 1-3차원에 강압에 준하는 단계가 아닌 거의 힘을 주지 않는 4단계를 지나 과거 설화나 천기누설같이 사랑의 극치인 5단계 재활 단계로 영육간 불편했던 모든 장애인에게 건강과 희망과 행복을 재활시키는 꿈의 결정판입니다.
◆강 의 일 정 : 매월 첫주 일요일 시작, 1개월 4주 단기코스 (일정변경 가능)
◆강 의 내 용 : 기공을 이용한 사람정비 매뉴얼
◆접 수 인 원 : 선착순 8명 이내.
◆수강 대상자 : 의료인, 물리치료사, 건강과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모든 남녀.
1 강 사 : 김문기 원장 (박사 / 한국 신지식인)
2 교 재 : 환상의 통증치유 STT의 4단계와 5단계 기공법 전수
3 강의 장소 : 수원 성균관대학 전철역 앞
4 접수 및 상담 : 010-3463-7806
5 수강료 : 수정기공 수료 및 자격증 취득과정 전화 상담
6 참고 홈페이지 : soojung99.pe.kr

일자리 창출, 자립이 가장 중요



전진호 회장은 올 4월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마음장애인재활센터를 설립했다. 왼쪽서 두번째



제14회 부산시 장애인 축구 친선대회. 사진 중앙 가운데 심판을 보고 있는 전진호 회장.



2009년 제8회 장애인 어울림한마당 행사 기념사진. 가운데 붉은색 상의가 전진호 회장.



전진호 회장이 참여한 2006년 11월 16일 (사)한마음장애인후원회 출범식 장면.

활원의 수익은 장애우들의 월급을 주고 나면 딱 맞아요. 경제적 이익을 생각했다면 시작할 수도 없는 일일 겁니다. 단지 장애우들의 일자리를 구해주어야겠다는 하나의 목표만 생각했어요. 현재는 이자를 갚기도 힘든 상황이지만 향후 한마음장애인후원센터는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이 되어 줄 것이라 믿습니다."

그는 앞으로 한마음직업재활원이 사회복지법인으로 거듭나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대 목표다. 그리고 그가 창단한 장애인축구단들이 마음껏 대회에 나갈 수 있도록 재정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저희가 제대로 된 차량이 없어요. 물건 나르는 승합차 한 대가 전부인데 행사가 클 때는 최대 100명이 이동해야 하니 한번 움직일 때마다 차량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물론 장애우들을 위해 하는 일은 이뿐만이 아니다. 30여년 장애우들의 성장과 자립 결혼은 물론 신혼여행까지 도와온 그는 장애우들의 사소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이기도 하다. 특히 그는 장애우들이 사고치지 않게끔 도와주고 있다. 장애우들의 사고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고의 개념과는 달랐다. 바로 장애우들이 사기를 당하는 것을 두고 일컫는 말이다.

"사기꾼들이 장애우들을 보고 친구처럼 다가가서 사기를 쳐요. 판단 능력이 부족한 그들이 잘해주는 사람들을 보면 아무생각 없이 믿고 그냥 그대로 따라 갑니다. 그러다 문제가 생겨 해결할 방법이 없으면 저를 찾아오죠. 일을 만들기 전에 와서 의논을 하든지 아님 며칠이라도 시간이 있을 때 오면 해결이 쉬울 텐데 정말 그럴 때는 너무 힘들죠"

경제적 사기를 당하는 장애우들의 사연은 참담했다. "핸드폰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예사입니다. 여러 번 그러면 안된다고 주의를 줘도 막상 그런 사람이 접근해오면 판단이 어려운 가 봅니다. 명의를 빌려준 장애우들에게 결제금액이 청구 되거든요. 통화료만 청구 되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핸드폰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결제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사기 당하는 수준이 엄청난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은 집이 넘어 갈 뻔한 것도 다시 찾아줬어요. 저는 이걸 사고 친다고 말을 합니다."

30여년 장애우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성장과 자립 결혼까지 도와온 그는 정작 결혼을 하지 않았다. 전셋집마저 담보를 잡아 장애우들을 위한 시설을 설립했으니 그의 삶은 무주상보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왜 이런 삶을 선택했냐는 질문에 그는 웃을 뿐이다.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20대 초에 재활원에서 처음 만난 아이들의 눈빛을 보며 그들을 보살피겠다고 결심했죠. 그렇게 아이들의 순박한 눈빛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을 뿐이에요. 정신이 온통 여기에 쏠려 있는데 누가 저한테 시집을 오겠어요.(웃음) 그저 지금의 삶에 만족합니다. 장애우들이 힘들 때마다 저를 찾는 것처럼 저도 당연히 그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가족을 돕는 것이 당연한것처럼 저는 그들을 가족이라 생각하며 도울 뿐이죠."

그에게 장애우들을 돕는 것은 오래된 습관처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한마음장애인지원센터를 설명하기 위해 내민 자료집에는 강령이 적혀 있었다. '처음처럼, 끝까지, 베푼 은혜 생각말자. 초심(初心)'

그는 자신이 처음 먹은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고 싶다고 했다. 그의 보시행에는 바라는 마음이 없다. 모든 것을 그저 내려놓고 행하는 보살의 마음, 그 하나만 있는듯했다. 그래서 그의 보살행은 더 빛나 보이는듯 했다. 그는 그저 처음 자신과의 약속을 기억할 뿐이다. 처음 봉사활동을 나가서 보았던 아이들의 눈빛이 계속 가슴에 남았을 뿐이고 다시 찾아오겠다며 안아줬던 그 약속을 기억하며 30년 전 그때의 마음으로 장애우들의 가족으로 남고자 한다. (051)301-2204. 후원: 농협 121044-51-055063

하성미 기자

전법일기

이제는 문화가 대안이다

"원래 종교가 기독교였기 때문에 절에 와서 뭔가 하는 게 생소했지만, 1박 2일 동안 나름대로 보람 있었습니다. 세상 살면서 내 인생을 다른 사람의 시선과 기대에 맡기다시피 했고, 그러다 이렇게 병들었는데 마음을 다스려 세상의 주인이 되라는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판화라고해서 솔직히 우습게 봤었는데 직접 작업해보고 나서 박물관에 전시된 작품들을 구경하니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기계도 아니고 손으로 이렇게 정교하게 아름다운 작품들을 찍어냈다고 생각하니 새삼 옛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명주사에서 실시된 군 장병 템플스테이에 참여한 1군수지원사령부 병사의 참가 후기다. 명주사 템플스테이는 고판화박물관과 명주사에서 문화와 자연과 명상이 어우러진 문화형 템플스테이로 이루어져 있다. 종교적인 색깔보다는 우리나라가 세계인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한국 인쇄문화의 우수성이 가득 담긴 고판화 박물관의 유물을 해설과 함께 관람한다. 나무 목판에 자신만의 문양을 새겨서, 하얀 면 T-셔츠에 찍어 수련복을 만들어 입고, 가족들이 협업하여 가훈 등 단체 판화도 만든다.

이런 고판화를 주제로 한 명주사 템플스테이를 생각하게 된 것은 군에 있을 때부터였다. 필자는 1983년부터 1998년까지 15년 동안 군법사로 있었다. 이 때 군 장병들과 함께 종교 활동을 할 때 보다 더 많은 군 장병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을 했다. 마침 종교라는 벽이 없는 고판화를 통해 우리 선조들의 문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장병들에게 전할 수 있으면 어떨까는 생각이 떠올랐다.

2003년 고판화박물관을 개관한 후 장기적으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하고자 했다. 단순한 박물관이 아닌 가족, 군장병, 시민, 노인, 학생, 다문화, 새터민, 장애우등 다양한 계층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말이다.

좋은 기회는 곧 찾아왔다.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를 지정 후 이를 죽은 문화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08년부터 생생문화재사업을 펼치고 있었다. 문화재를 활용해 미래 사회의 가치를 창출해 내고자 함이었다.

명주사에는 삽화가 들어있는 옛 책 7건이 문화재로 지정돼있는 상태였다. 이를 활용해 이동전통판화를 통해, 우리 전통 인쇄문화의 아름다움을 전파하고자 했다. 이동판화학교를 통해 군부대와 병원 등 전국곳곳에서 요청이 오면 거리와 관계없이 찾아갔다. 처음에는 왜 판화인가라며 의문을 표하던 참가자들도, 옛 선조들의 판화를 인쇄하며 재미를 느끼고, 그 내용을 살펴보는 기회를 갖는 것을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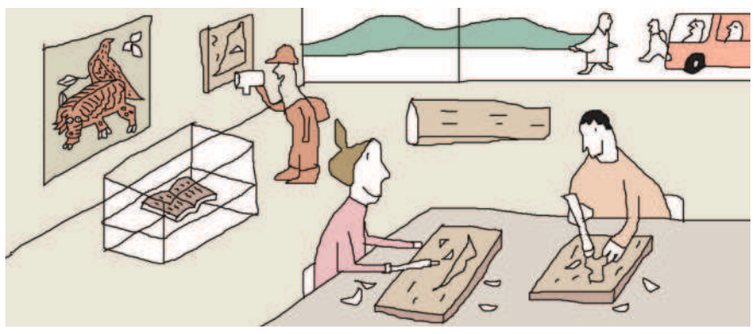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박물관 시설을 활용하는 '뮤지엄스테이' 와 함께 명주사가 위치한 치악산의 환경을 활용한 '숲속판화학교' 도 구성했다. 2011년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템플스테이 사찰로 지정되며 많은 이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2012년부터 현재까지 4년 연속으로 생생문화재사업으로 선정됐다. 현재 명주사에서는 템플스테이가 하루, 1박 2일의 일정으로 펼쳐지고 있으며, 찾아가는 이동판화학교도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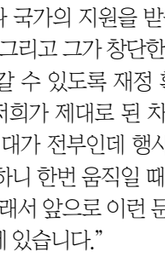
다문화, 다종교 사회인 우리나라에서 다른 사람들의 종교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이해하는 계기를 갖는 것이다. 종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고판화라른 주제를 통해 불교를 알릴 수 있다면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고판화를 통한 명주사의 문화활동들이 다종교 사회의 새로운 포교방법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열심히 목판과 조각도를 들고 전국으로 달려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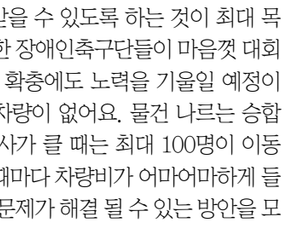


한선학 고판화박물관 관장(명주사 주지)

마하연투어 예약문의: 02) 365-7747 www.mahayeon.com

대표 청정행 두손모음





1. 직영으로 중간 마진을 뺀 가격 책정(거침없는 상품가격)
2. 오랜경험으로 현지 불교행사 진행
3. 맞춤 순례 운영 *불교행사*
4. 추가경비 일체 없는 가격책정
5. 호텔/행사일정/식사 타사 비교 필수

집중모객

불기 2559년 부처님 오신날

미얀마/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출발일: 5월 27일
[지장도량] 구화산 / [관음도량] 보타산	6일	출발일: 6월 17일
[대한민국 영산] 북경/백두산	5일	출발일: 6월 11일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출발일: 6월 11일

요금 문의

미얀마
- 양곤/바고/시리암 5일
- 양곤/바간/헤호 5일
- BEST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7일

티벳/부탄
- 티벳 6일
  성도-라싸-얌드록쵸-간체-시가체
- BEST 티벳핵심하늘열차 8일
  중경-라싸-장체-시가체-라싸-난주역-하늘열차
- 네팔/부탄 8일
  카투만두-파로-팀푸-왕디포드랑-통사-푸나카-팀푸-파로-카투만두-나가르콧

인도/네팔/스리랑카
- 인도 9일
  델리-라즈기르-나란다-보드가야-바라나시-아그라
- BEST 인도 11일(8대성지순례)
  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바이샬리-나란다-쿠시나가르-룸비니-카필라바스투-쿠단-산카시아-아그라
- 인도/네팔 15일
- 스리랑카 6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마힌탈레-담볼라-시기리아-플론나루와-알루비하라-캔디
- BEST 스리랑카 완전일주 순례 8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담블라-시기리아-플로나루와-캔디-누와라엘리아-벤토타

라오스
- BEST 라오스 6일
  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 라오스/베트남 7일
  하롱베이-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베트남/캄보디아
- 베트남/캄보디아
  [베트남] 하롱베이 [캄보디아] 씨엠립 6일

태국
- 태국
  방콕-아유타야-파타야 5일

대만/홍콩
- 대만 5일
  대만 3대사찰 순례
- 대만/홍콩 5일
  홍콩(2)-대만(1)-화련

중국
- BEST [지장도량] 구화산/황산/항주 5일
- BEST [관음도량] 항주/보타/낙가산 5일
- 상해/항주/구화산/보타산 6일
- BEST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 BEST [문수도량] 북경/오대산 5일
- [민족의 영산] 백두산 5일
-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 훼리 크루즈(수륙대제 가능)
  대룡훼리, 화동훼리, 위동훼리
- 세계3대 트래킹명소 호도협
  곤명/호도협/옥룡설산 6일

세계 문화 탐방 베스트 상품
- 그리스 문화탐방 9일
- 하와이 문화탐방 6일
- 동유럽 문화탐방 8일
- 미서부 일주탐방 9일
- 서유럽 문화탐방 8일
- 미동부 일주탐방 9일